

天 摩 山 의 脈



天 摩 山 의 脈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여 백



금년 하반기 온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의 악몽이 아직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행사들이 이런 영향으로 위축되거나, 전면 취소되는 등 금년은 모든 분야가 그럴겠지만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크나큰 악재로 인하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수혜자인 시민 모두에게 손실이 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원은 언제나 그렇듯 지난 한 해 동안 앞뒤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일 년을 돌아보며 무엇을 했는지 곰아보면 딱히 무엇이 라고 꼭 집어 제시할 것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납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280여 응모사업 가운데 우리 남양주의 '삼봉농악 복원 및 재현사업'이 당당하게 선정되어 소멸되어가는 삼봉리 풍물농악을 되살려 전승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가장 소중한 업적이라 자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1년간의 기록을 모아 오늘 한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권의 책으로 문화원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편집 하였으니 대략의 문화원을 이해하는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지나고 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좋았던 일 보다는 아쉬웠던 일이 마음에 더욱 크게 남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합니다.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지난일이 떠오르며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 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노라면 시간은 어느새 당시의 그 장소로 돌아가 있고, 어린 학생들의 글을 찬찬히 읽노라면 때 묻지 않은 그 천진성과 순수함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흐르게 됩니다. 또 부족한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 해주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며 하루속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큰 책임감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늘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한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자료를 모으고 다른 해 보다 규모로나 내용으로나 한층 발전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다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문화인들의 역할을 모아서 기록하고 남양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천마산의 맥' 제18호를 발간하며 시간에 쫓겨 부족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구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음호에 더욱 열의를 다하여 알차게 꾸밀 것과 내년에도 좀 더 알찬 사업과 의미 있는 일로 문화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문화원장 이창수

天摩山の脉

목 차



문화비전선언문	2
발간사 / 남양주문화원장 이창수	3
2009 사진으로 보는 남양주문화원 이모저모	8
남양주문화원을 빛낸 동아리활동	8
• 궁중음식전수	
• 탁본사랑	
• 불화, 민화사랑	
• 향토사연구	
• 여성미술작가회	
• 남양주 윈드오케스트라	
제12기 향토순례단	10
제90주년 남양주화도 3.1절독립만세운동	12
제12회 천마산산신제	13
릉 기신제(홍릉기신제, 유릉기신제, 사릉기신제, 광릉기신제, 광해군추모제) ...	14
시민문화학교	21
• 안보체험, 역사체험, 해양생태체험, 생활체험	
• 국군장병가족 남양주역사문화체험	
• 호국보훈의달 전적지답사	
• 한강원류를 찾아 떠나는 여름여행	
대외문화교류(자매도시와 교류확대)	28
• 영월단종문화제	
• 강진청자문화제	



남양주문화원 제18호



제23회 다산문화제	30
·헌화, 헌다례	
·제3회 다산대상시상식	
·제1회 다산서예전	
기타활동	34
·사랑의떡 나누기(설날, 추석)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늘을지경다지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조안면 삼봉농악 발굴복원)	
일본기행문(명성황후 죽음의 수수께끼를 찾아 떠나는길)	41
제2기 남양주 향토순례단 체험기	57
대외문화교류 체험글 모음	81
2009 문화유적답사 기행문	85
남양주문화원-보병 제73사단 민·군 교류활동	101
남양주문화원-진접문화의 집	162

[특집]

남양주의 인물	177
·다대첨사 윤희신 장군	
·구완 이춘원 선생	
한국의 전통건축 명가의 미	193
·다산초당/정약용	

-대내·외적으로 문화원을 빛내는-

남양주문화원 동아리활동

● 궁중음식전수

우리음식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궁중음식 전수자로부터 궁중음식을 배우고 계승함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한다.

활동 내용

다산문화제, 북한강축제 전통 떡 체험 및 전시, 궁중음식 강좌



● 탁본사랑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하는 탁본체험을 통해 우리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파하고 계승하고자 한다.

활동 내용

다산문화제, 남양주 시티투어,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 러닝숍, 관내 학교 특별활동 탁본체험.



● 불화, 민화 사랑

불화와 민화에 관심을 갖고 배우면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데 앞장선다.

활동 내용

평생학습 러닝숍, 진접 문화의집 강좌, 개관 전시회



● 향토사 연구

역사 관련학자, 지역 내 초·중등교사, 향토사학자, 지역원로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보물과도 같은 우리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소멸되는 것을 막고 후대에 기록으로나마 온전히 전승하고자 한다.

● 활동 내용

남양주 지명유래집 발간 사업을 위한 답사 및 연구활동



● 여성미술작가회

남양주 시민으로 구성된 미술회원의 전시를 통한 자기 성취 및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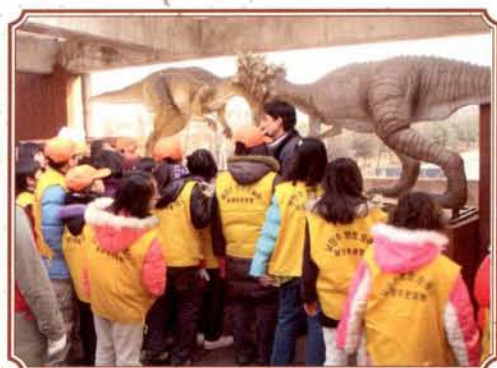
● 남양주 윈드오케스트라

시민들과 공유하며 관내시민들의 참여와 음악적 활동기회를 부여하기위해 창립된 순수 아마추어 음악 동호회

소외된 이웃을 찾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소외시설, 학교,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한 순회 연주팀을 만들어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자선봉사연주회 뿐만 아니라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그리고 남양주시의 주요행사에 축하 연주



제12기 향토순례단





제90주년 3.1독립만세운동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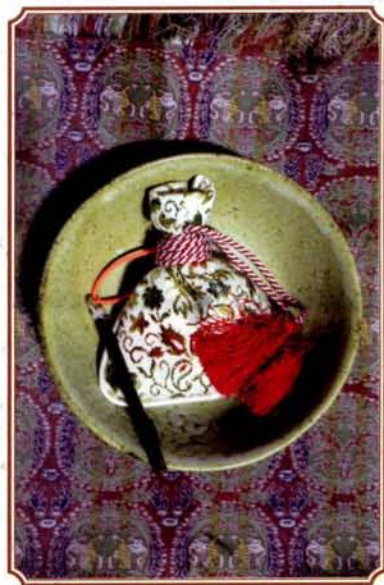
릉기선제(홍릉기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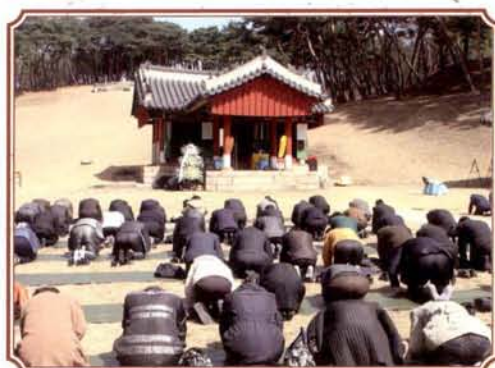
명성태황후어진



명성황후 시해범 중 구미모토
시계아키가 탈취해간 명성황후
의 향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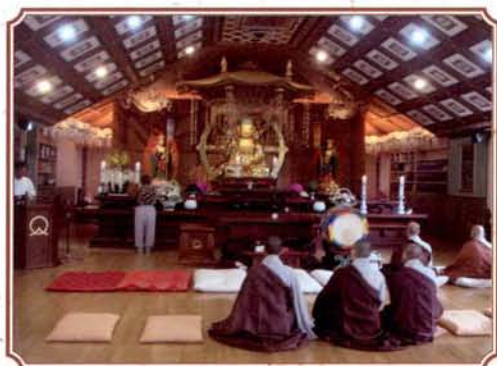
릉 기신제(유릉기신제)







릉 기선제(광해군 추모제)





시민문화학교(역사체험)







국군장병가족 남양주역사문화체험



호국보훈의달 전적지답사





◇ 영월 단종 이모저모 ◇



◇ 강진청자 이모저모 ◇



◇헌화, 헌다례◇



◆제3회 다산대상시상식◆



◆제1회 다산서예대전◆





◇ 사랑의 설날 떡 나누기 행사 이모저모 ◇



◇ 경기민속예술제 참가(늘을지경다지기)◇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조안면 삼봉농악 발굴복원)◇







여 백

남양주문화제18호



天摩山の脉



일본기행문



명성황후 죽음의 수수께끼를 찾아 떠나는 길

〈글, 사진 : 文村 윤덕규, 수필가,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1. 부산으로 떠나는 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우리들에게 친근함 보다는 언제나 갈등의 인연으로 인해 대립의 감정이 깊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앙금이 되어 쉽사리 터놓고 정을 줄 수 없는 이웃나라 일본. 근대사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치욕의 역사로 남아있는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한일합방,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들과의 갈등 요인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과연 일본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배우고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감정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을까?

2009년 4월16일 11:50 어제 미리 챙겨놓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가방에 챙긴 짐이라야 몇 일간 갈아입을 옷가지와 몇 번의 경험으로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겪어본 동생이 일러 준대로 고추장 한 병, 그리고 컵라면 몇 개를 챙겨 넣은 것이 전부였다. 물론 카메라는 필수품이고.....

호평동 집에서 도농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도농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전철로 이동하는 것이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도농역에 도착하여 전철을 기다리는데 매마침 원장님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보다 한발 뒤에 같은 승강장에 도착하였다. 서울역 KTX 맞이방(대합실)에 도착하니 이번 여행을 함께하실 홍릉봉향회 임원 몇 분과 KBS 다큐멘터리 감독이신 정수용 감독, 촬영을 맡아주실 마재인 카메라 감독 등 여러분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나머지 분들도 이내 한분, 두 분 도착하여 당초 출발예정 이었던 17명중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세 분을 제외하고 모두 열네 명이 집결 하였다.

우리가 예약한 열차는 14:15 부산행 KTX 열차. 열차는 정시에 정확하게 출발 하였고 대전, 동대구, 구포에 한 번씩 정차한 후 17:02 부산역에 도착 하였다.

부산역을 나와 광장원쪽에 깨끗하고 멋지게 현대식으로 지어진 TOYOKO-INN HOTEL 이 우리가 1박할 숙소였다. 일단 프론트에 체크인후 각자의 숙소를 배정받고 짐은 로비에 모아둔 상태로 곧바로 지하철을 이용해 자갈치시장으로 향했다. 다들 모처럼 부산에 왔으니 기왕이면 부산의 명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언의 합의를 한 것이다.



부산행 KTX 열차안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본 TOYOKO-INN HOTEL

2. 일본행 배를 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나는 카메라를 들고 호텔을 나와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광장 한가운데 불탑을 세우고 연등을 달아 놓은 것이 가장 눈에 띄었고 불탑과 연등이 석가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광장을 돌던 나는 어제 묵은 호텔을 바라보다 문득 호텔옥상에 올라가면 부산역 일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옥상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부산역 일대와 부산역의 플랫폼, 항구 등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왔다.

이러한 모든 것을 카메라에 하나씩 기록해 두었다. 이러저러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버릇은 문화원에 몸을 담은 후 새로 생긴 습관이다. 모든 것이 세월지난 후 요긴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행은 호텔에서 준비한 식사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짐을 챙겨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었다. 부산 발 후쿠오카 행 10시 정각 티켓을 끊는 과정에서 일행 중 한분의 여권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설명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사정이고 현실은 현실인지라 불가피하게 여권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한분은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호텔옥상에서 본 역 광장과 사대전경



광장에서 바라본 부산역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일행

에 없는 해프닝이 발생되고 말았다. 돌아오는 분도 돌려보내는 우리들도 아쉽고 섭섭한 마음은 모두가 한 가지였다. 한바탕의 해프닝을 치르고 승선 시간이 되어 본의 아니게 한 명이 줄어든 우리 일행은 배에 탑승하였다. 10시 정각 우리가 탄 초고속쾌속선 KOBEE(코비)호는 부산항을 출발하였으며 이렇게 115년 만에 명성황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수수께끼를 찾아 떠나는 우리 일행을 실은 배는 서서히 아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부산항을 뒤로하며 일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해상의 날씨는 쾌청하고 바람도 잔잔하였으며 2층에 탑승하니 주변 해상경관을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10여분쯤 달리자 부산의풍경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망망대해가 펼쳐졌으며 간간히 바다위에 떠있는 크고 작은 배들만이 눈에 보이는 물체의 전부였다. 바다를 달리며 바다는 육지 못지않은 훌륭한 영토임을 새삼 느꼈다. 특히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코 좁지 않은 영토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저런 생각으로 공상에 빠져들 즈음 우측멀리 희미하게 커다란 섬의 윤곽이(사실 배에서 바라볼 때는 섬 이라기보다는 육지라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다)들어왔다. 궁금하여 객실 승무원에게 물으니 그것이 바로 대마도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때 시간이 대략 10시35분, 부산과 대마도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듯 지척의 거리에 일본의 영토가 있다니 놀라웠다.

3. 일본에 상륙하다



배에서 바라본 하카다 국제여객터미널



정면에서 바라본 하카다 국제여객터미널

12시55분, 부산을 떠난 지 불과 2시간 55분 만에 우리는 하카다항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입국의 절차를 마친 후 시내버스를 타고 하카다 역으로 이동했다. 하카다 역으로 가는 길은 약 20여분 거리로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그사이 이국적인 거리풍경이나 일본인의 생활습관이 우리와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구마모토로 가는 신간선 열차 시간은 14시15분발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으므로 역구내 도시락 판매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여 열차 안에서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일본여행이 처음인 나는 하나의 풍경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마모토까지 달리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녹화하기에 분주했다. 시내를 빠져나온 차창 밖 풍경은 우리의 교외 풍경과 흡사하지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어 잘 가꾼 하나같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전통가옥의 모습과 한눈에 보아도 깔끔함이 배어있는 거리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들판에는 수확기로 접어드는 보리가 푸른 기운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고, 선로 옆 야산에는 대나무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었다. 부지런히 초행의 일본풍경을 머릿속에 담는 사이 어느덧 열차는 구마모토 역 플랫폼 뒤편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구마모토 역 플랫폼



구마모토 역에 도착한 일행과 현지모임회원

구마모토 역에 도착한 시간은 15시 40분, 개찰구를 빠져 나오자 일본 현지에서 우리를 초대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몇몇 분들이 서투른 한글로 피켓을 만들어 우리를 맞아했다. 그들과 우리는 곧바로 몇 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10여분 거리에 있는 HYPER

HOTEL로 향했다, 호텔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것이 맘에 들었다. 방 배정이 끝나고 각자의 방에 짐을 놓고 곧바로 미리 준비된 환영행사장인 구마모토 시 해외문화교류센터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3층 회의실로 올라가자 구마모토 시 시의원과 시민문화복지국장, 과장 등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우리일행이 구마모토를 방문하게 된 동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환영인사, 구마모토 시 소개,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환영행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인근에 있는 구마모토 성을 답사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성 초입 작은 공원에는 가동청정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일본식으로 잘 정비된 하천이 흘렀으며, 하천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성의 진입로가 시작된다. 구마모토 성(일본어:熊本



구마모토 해외문화교류센터



구마모토시의 공식환영행사



구마모토 성 전경



구마모토 성을 배경으로선 일행

城,くまもとじょう)은 오사카 성, 나고야 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이며, 축조 된 지 400년이 넘는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다른 이름으로는 긴난조(銀杏城:은행성), 가라스조(カラス城:까마귀성)라고도 불린다. 천수각에 오른 나는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구마모토 시 전경을 찬찬히 조망하면서 모든 풍경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다.

우리가 다시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 호텔 옆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다른 일행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는 혼자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호텔에서 조금 걸어 나오자 큰 하천이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규모는 우리의 왕숙천과 비슷하였고 하천 안내판에는 한자로 '白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우리의 하천 안내판과 아주 흡사했다. 혼자서 천천히 시내를 걸으며 일본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저것 카메라에 담기도하면서 일본에서의 첫날을 마무리 했다.

4. 일본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

다음날 아침 6시 정각 모닝콜에 잠이 깨었다. 호텔2층 식당에 준비된 조반을 먹고 시내 한가운데를 운행하는 전차를 타기위해 전차 정거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철쭉꽃이 만발한 '건군동식물공원' 시내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야구장이 두 개나 마련되어 있었고 그중 한 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연습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전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 올 때는 토요일 임에도 승객이 가득했으며,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체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일본 학생들이 단체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10시30분 숙소2층 회의실에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우리일행과 명성황후살해범의 손자와 손자며느리, 현지 보도진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일행이 먼저 회의실에 자리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하여 잠시 논의를 하였고 얼마 후 그들이 도착하였다. 그들의 정중한 사과와 그들

조부에 관한 훗날의 심경전달에 이어 질의응답 도중 우리 일행 중 한 분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칼집을 보며 격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으며 현지 취재진들의 관심과 취재열기 또한 뜨거웠다.



사과하는 명성황후 시해범의 손자와 손자며느리(취재 열기가 뜨겁다)



칼집사이로 보이는 방문단일행



격한 감정에 잠시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함

뜨거운 관심 속에 이루어진 진지한 사과의 만남은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12:00 구마모토시 교육회관으로 이동한 우리 일행은 1층 회의실에 모여 현지모임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 곧바로 5층 대회의실로 올라갔다. 5층 회의실과 입구에는 현지모임 회원들이 여러 명 나와 오늘의 환영행사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행사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일행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우리 나름대로의 환영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와 입장정리를 하고 13:30분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과 현지 회원의 안내로 환영행사장으로 입장했다.

환영행사장은 불과 1시간 만에 150여명의 관심 있는 시민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환영행사는 3시간동안이나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환영행사가 끝나고 구마모토 대학의 코마츠허 히로시(小松 裕) 교수의 주선으로 현지모임의 회장,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윤현정, 주영덕선생, 우스끼상과 우리는 시내의 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유익한 교류의 시간을 가진 후 숙소로 돌아와 현지에서의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 했다.



현지모임에서 준비한 학습회 겸 환영행사(관심 있는 시민들로 가득 찬 모습)



명성황후 암살가담자 명단
(동그라미가 구마모토 출신)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소개 글

19일 일요일 부지런히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늘 일정한 아소산으로 출발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첫날부터 느낀바 이지만 일본인들의 준법의식과 시간관념, 행동양식은 가까운 나라이지만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오늘 아소산 일정에 우리를 안내할 현지 회원들은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 훨씬 이전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시간에 맞추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익레 일 이십분 정도야 늦게 출발 되려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8시30분, 호텔 앞에 대기 중이던 25인승 버스는 우리가 탑승하자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출발하였다. 출발과 함께 재일교포인 주영덕씨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30여분을 달렸을까 버스는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접어들었다. 교외 풍경은 어찌 보면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듯도 하고 어찌 보면 생소한 같은 정말 오묘한 풍경이 엇갈리며 나를 잠깐잠깐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리고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회관 등은 지금 내가보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건물양식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어느 동네든지 이러한 건물들이 몇 동씩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런저런 생각과 색다른 이국의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버스는 어느덧 아소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마을 이찌노미야에 이르렀고 이곳에 살고 있는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중 퇴직교사들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 회장(카이 도시오)과 환영행사에서 사회를 보셨던 분이 합류하였다. 아소산은 분화구 바로 아래까지 자동차가 오를 수 있었다. 10시10분 아소산 분화구에 도착하여 난생처음으로 활동이 멈추지 않은 분화구의 모습을 보았는데 웅장하기도 하였지만 경이롭고 신비한 분위기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려오는 길 아소화산박물관 앞에 차를 세우고 당시 명성황후 암살에 가담했던 자 중 한명인 마쓰무라 다스끼의 기념비를 찾았다. 이 기념비는 이 고장 출신인 암살가담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소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에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비석이고, 이 비석이 바로 일본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기 시

작한 발단이 된 매우 뜻 깊은 비석이다. 비문에 새겨진 문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추적하던 실행위원장(카이 도시오)의 집념으로 비로소 일본에 조선의 민비(명성황후)에 대한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소산 분화구에서(이창수 남양주문화원장과 필자)



아소화소박물관(건물우측에 암살자의 공적비가 있다)



암살자 마쓰무라 다스끼의 공적비(앞면)



공적비(뒷면, 오른쪽6번째줄에 민비관련문구가선명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토록 숨기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일본의 잔인무도 한만행이 이 아소산 꼭대기 작은 비문하나에서 밝혀지기 시작 하다니....., 비밀이란 절대로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는 교훈을 얻는 순간 이었다. 지금은 비석의 위치가 다소 외지고 중요한 문구가 뒤쪽에 새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실행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길 계획이라 하니 반가운 이야기다.

일행은 실행위원장이 교사로 재직했던 이찌노미야의 차카나시 소학교로 내려와 교정에 서있는 관련된 비를 하나 더 견학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바로 맞은편 실행위원장의 집으로 이동했다. 오늘의 점심은 실행위원장이 우리 일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초대 한 자리다. 한국식 비빔밥과 김치, 강정젓갈에 찔빵까지 준비한 그야말로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다. 뜻하지 않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잠시 마을을 돌아본 후 마을의 교육회관으로 이동했다. 일본은 마을마다 교육회관이 하나씩 있는데 이는 우리의 마을회관처럼 마을 사람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인 것 같다. 이곳 2층에서 아소시에 거주하는 명성황후를 생각하는모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것을 다짐하고 이들이 준비한 이 지역 특산품인 팔 앙금이 들어있는 찹쌀과자



차카나시 소학교 정문



차카나시 소학교 교정에 있는 마쓰무라 다스끼의 비



소학교 앞에 있는 실행위원장의 집



일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국식 비빔밥

와 위원들이 손수 제작한 연을 선물로 받았다. 주말 교통이 막힐 것에 대비해 서둘러 아소시를 출발한 일행은 교외로 나들이 나갔다 돌아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따라 숙소가 있는 구마모토로 향했다. 차량들이 많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주말 교통체증에 비하면 대단히 양호한 흐름이었다.

4시가 조금 못되어 숙소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구마모토에서의 마지막 저녁시간을 숙소에서 멀지않은 시내 아케이드상가를 둘러보는 것으로 정하고 도보로 아케이드상가로 이동했다. 천천히 상가를 둘러보고 식사시간이 되어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이번 여정을 준비하고 전 과정의 안내를 맡은 정수웅 감독께서 안내하는 '화수원(花秀苑)'이라는 한



깔끔하게 정리된 아케이드 상가



일행이 머물던 하이퍼호텔 입구



구마모토 아케이드상가의 한국음식점 '화수원(花秀苑)'



국식당을 찾았다. 식당은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입구에는 '어서오세요'라고 우리말로 큼지
막하게 간판을 붙여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른 곳도 그러하겠지만 구마모토현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우리 한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곳이다. 이국에서 보는
우리글이 반가웠다. 육개장에 가벼운 반주로 저녁을 마친 우리일행은 다시 숙소로 돌아
와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6. 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 귀국

4월20일 이번 여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호텔에서 준비한 조반을 마치고 부지런히 짐을 챙겨 프론트에 모인 일행은 몇 대의 택시
에 나눠 타고 구마모토 역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탑승할 열차는 08:52발 하카다행 JR열
차로 일본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열차편이다. 일본은 우리와는 다르게 같은 철로를 국
영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열차운행 사업을 공유 하고 있다.

하카다 역에 도착한 시간은 10시15분,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시내버스로 국제여객터미
널로 향했다. 11시 무렵에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는 배 시간 착오로 15시45분에 출발하는
티켓을 끊어 무려 5시간가까이를 터미널에서 보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
발하던 날에는 기간 만료된 여권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지더니..... 아무튼 지루한 시간을
터미널에서 보내며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일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하카다
시내를 돌아보고, 또 몇 명은 술도 한잔씩 하면서 부산행 쾌속선 KJ 141 KOBEE호를 기
다렸다. 오후시간이 되면서 현지의 날씨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
으며, 비도 간간히 내리는 것이 바다 위를 달려야 하는 우리를 긴장시켰다. 날씨가 좋지
않자 곳은 해상상황을 우려해 배는 탑승 예정인원이 승선을 마치자마자 예정된 출발 시
간과는 상관없이 곧바로 출발했다. 출발 당시만 해도 약간의 바람과 비가 조금 내렸으며,
파도는 1m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였지만 부산을 향해 항해를 할수록 바람이 거세
지고 파도는 3~4m로 높아졌으며 비도 많이 내려 시시각각 바뀌는 해상의 날씨를 실감

게 했다. 아마도 출발할 때 날씨가 이정도였다면 현지에서 출발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상에 이는 높은 파도와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기도하고 이번 여행의 이런저런 의미를 되새겨 보는 동안 어느덧 우리가 탑승한 배는 무사히 부산항 선착장에 이르렀다. 이때가 저녁 6시40분, 부산의 날씨는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떠날 때의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 험난한 날씨였는데 이는 115년 전 일본의 잔악무도한 만행과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안은 채로 귀국하는 우리에게 명성황후께서 전하는 한 맺힌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생각해보며 이번 4박5일간의 의미 있는 여행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명성황후의 시해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 없이 정부차원의 계획된 범죄가 아니고 단순히 낭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당시에 암살에 가담했던 암살자 후손들의 증언과, 관심 있는 일본민간인들의 노력으로 명성황후 시해가 일본제국주의가 극비리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된 범죄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순수민간단체 '명성황후를 생각하는모임'이다. 정수웅 다큐멘터리 감독의 주선으로 이들은 지난 2005년 한국을 방문하여 시해현장인 경복궁 옥호루와 황후가 고종황제와 황후의 무덤인 홍릉, 여주 생가 등을 답사하며 민간차원의 사죄를 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방차원에서 이번에 명성황후 제례를 봉행하는 홍릉봉향회와 남양주문화원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했던 것이다.>

남양주문화제18호



天摩山の脉



제12기 남양주 향토순례기행문



향토순례 기행문

4학년 김태운

(시청 부터 박물관 까지)

외복조 4학년 김태운

나는 공공박물관이 제일 재미있었던것 같다.
왜냐하면 공룡이 신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박물관에서 참 신기한 것을 보았다 바로 육
식공룡은 고기를 많이먹어서 오래 못 산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초식공룡도 마찬가지이다. 육식공룡이 잡아서
먹기 때문이다. 내가 육식공룡이 면 조금만 잡아 먹고
초식공룡처럼 풀을 먹고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
살고, 금방 죽고싶지 않아서이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화석과 보석 나비, 벌레등이 많이 있었다. 당바닥
나무에는 가짜 지렁이가 있었다. 난 한 번작
이는 보석을 보았다. 그 보석은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큰 보석과 비슷하게 생기였다. 그 보석은 보석은 개
칠하고, 미끄러운 보석이였다. 나도 그 보석을
전시한 사람처럼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첫번째로 모란 미술관에 가
았다. 그곳에는 이상한 가면과 그림 칠로된
강아지가 있었다. 나는 칠로된 강아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이 강아지가 우리처럼
살아 있지는 않아 섭섭하다. 나는 이 강아지가
살아있으면 많은 것을 물어보고싶었다.
그다음 만 마지막으로 팔당댐에 갔다. 팔당댐에
있는 강은 너무아름 다운대 쓰레기가 강 위에
떠있었다. 다음번에는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
다.

애벌레
공룡
성장
왔어



칠강아지
판미술관
이상한가면
그림
작품

화석
공룡
육식과 초식
관람하다.
타이노사우루스

자랑스러운 우리 남양주!

2009. 2. 29에שמ.

제 12기 남양주 향토순례단!

수 종 사

그곳은 산정상에 있는 절 ~~이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등을 했다.
 그곳에 있는 분수대 있는 곳에서 등전도
 던지고 얼음도 깨고 이야기도 했다.
 그곳은 남양주의 얼이 담긴 좋은 곳 같다.



☆ 밤의 전투 HAPPY DAY 밤내초 5-5 노태명

어떻게 하다.
 베개로 싸움을 했다
 형들이 저들러와 베개로
 맞고 때리며 놀았다.



팔암댐 특징
 ☆ 저낙 차석
 ☆ 다목적댐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림, 모퉁 종이
 있고 예니명안으로 보고 남양주에서
 태어나고 남양주에서 돌아가 싶은 것을
 알았다.

쉴 나



대한도서
 남양주 **래**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의 위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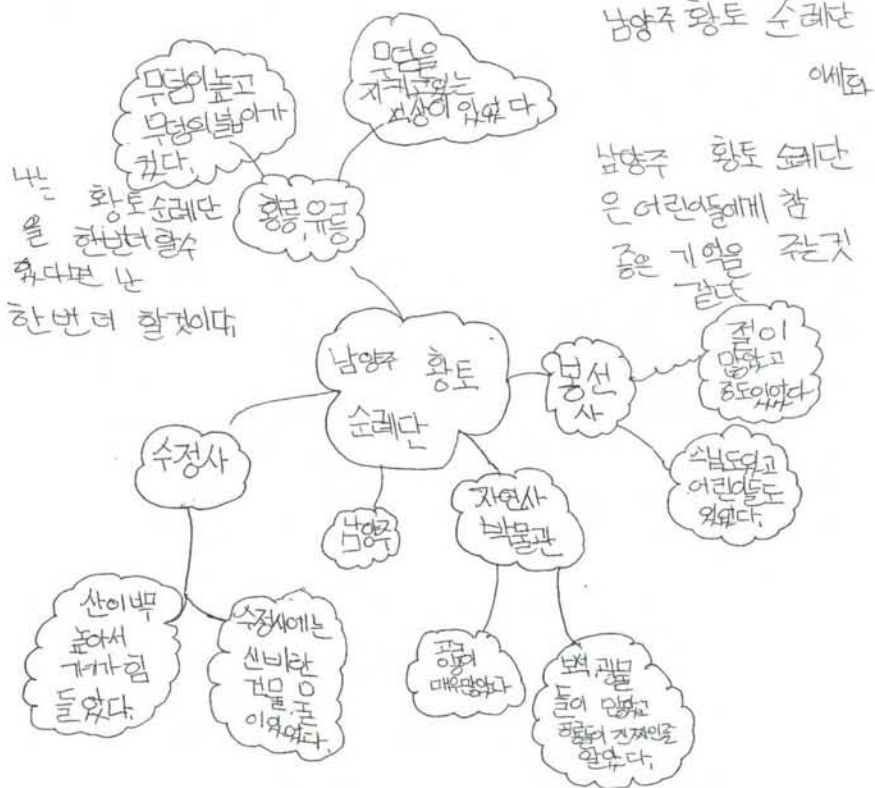
정약용 선생님

우리우리 우리 고장
 빛을 내는 정약용 선생님
 우리우리 우리고장
 켜주기 화영은 새터 주지로

우리 풍향의 위인 淸山 정약용
 선생님

향토순례 기행문

백문초등학교 7학년 5학년



나는 09/02/18에 ^{서울에서} 9시에 ^{천연} 발대식을 마치고 ^{천연} 황릉 유적을 간 뒤 서울로
갔다.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 처음부터 공룡들이 많이 있었다.
2009년 2월 18일 기행문을 쓴 뒤 몽선사를 갔다. 몽선사로 오르는 길은 너무 힘들었다.
몽선사는 울막 산에 있었다. 그 뒤 수정사를 갔는데 수정사도 재미있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향토순례

장내초등학교

5학년

박 은 지

2009년 2월 18일 9시에 남양주 시청에서 발대식을 했다,
나는 엄마와 의논해서 향토순례가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며 신청을 했다, 막상 와보니 힘들다,

첫째 날, 첫 번째로 흥·유릉에 갔다, 흥·유릉에는 몇 번 와봤지만 한 번 더 돌이켜봐서 좋았다, 두 번째로 사릉에 갔다, 사릉에는 단종의 부인인 정순왕후가 묻혀있었다, 세 번째로는 봉선사를 갔다, 봉선사 대종도 봤다, 그것은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다, 네 번째로 광릉을 갔다, 광릉에는 세조와 세조부인이 묻혀 계신다, 광릉보고 마지막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갔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공룡의 화석과 공룡 모형들을 봤다, 처음 봐서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이제야 첫째 날이 (야외에서 하는 것) 끝났다, 숙소로 와서 대강당에서 강의를 들었다, 아~ 졸려 방에 가서 푹~ 잤다,

다음날 모란미술관에 가서 미술작품을 봤다, 수종사에서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 꼬불꼬불한 길에 경사가 급하기까지,,, 아휴~ 하지만 올라오고 나니 신기하고 뿌듯했다, 기분도 상쾌해졌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다음엔 우리 조상 다산의 유적지에 갔다, 동영상도 보고 거중기도 만져봤다, 팔당댐에 갔다, 팔당댐은 다른 댐과 다르다, 깨끗한 팔당댐을 봤다, 앞으로 우리나라 댐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장 기대됐던 레크레이션 시간이다, 숙소로 와서 레크레이션을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보내야지~||

"다시 한번 one more time 향토 순례단!!! 12기"

판 곡 중 학 교
20330 박 경 은

일어나려던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버려 동생과 허겁지겁 꼴찌(?)로 시청에 도착했다. 늦게 온데다 아는 애들도 없어서 무척 심심하고, 떨리고, 한편으론 지루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같이 온 동생과 그전에 알았던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어쨌든 그 추운 날에 발대식을 끝내고 흥·유릉을 향해 걸어갔다. 근데 가만, 전에 내가 11기 향토 순례단 왔었을 때와 똑같은 시작 아닌가? 뭐 그래도 조금은 다르겠지 하며 그새 좀 친해진 조장언니 은경이 언니와 걸어갔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먼저 고종과, 고종부인이 묻혀있는 홍릉으로 갔다. 전에 한번 왔다고 좀 지루 할랑 말랑 했지만 추위 때문에 아무생각도 안했다. 다음에는 순종과 순종부인이 묻혀있는 유릉으로 갔다. 큰 언덕 위에 무덤이 있어 또 조별로 올라갔다. 으~ 힘들어... 관람 후 우리는 하나버스를 타고 사릉으로 향했다. 사릉에는 단종임금의 부인이 고이 묻혀계시던 곳이란 다. 봉선사는 절 같은데 모든 것이 한글로 되어있었다. 이곳은 여기 중에서 최고의 절이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가보면 일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의 있다. 열렁뚱땅 설명을 듣고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을 갔다. 아참 이날 서유리란 아이와 친구가 되었다. 금방 친해졌다. 아, 어쨌든 공룡들과 화석, 광물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가서 구경했다. 저번에도 왔었지만!!! 요번엔 못 보던 것을 보았다. 바로 영상 관람실!! 그곳에서 공룡과 관련된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나만 그런지도 모르지만^^) 다 끝난 후 원래 나머지 한곳 더 갔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지라 숙소로 돌아가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제 벌써 초반에 어색하기만 했던 우리조 모든 아이들과 조장언니랑 친해졌

다, 꼬맹이들은 별별 별명을 부르며 까불대기도 했다, 저녁에는 '리더쉽 강의'를 들었다, 첫날 밤 하루는 끝!!!

다음날 AM 6시 30분에 일어났다, 아 졸려~ 그래도 옷을 차려 입고 정신없이 나갔다, 8시에 아침 먹는다는 말이 틀렸던 것이다, 느긋하던 우리 8조 아이들은 완전 서둘러서 머리감아 젖은 채로 나갔다, 아침 먹고 다시 머리 가꾸고 모란 미술관으로 향했다, 도대체 몇 번이냐,,, 여기서도 가고 학교에서도 가보고 어떤 체험 때문에도 와보고!! 나는 그 모란 미술관 아저씨와 알던 사이!! 근데 이번에는 안에 새로운 작품들이 새로 와있었다, 좀 야시 꾸리 한 것도 몇몇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작품들이 웃겼고 새로웠다, 다음으로는 3·1운동 기념비에 갔다, 역시나 그 당시부터 있던 월산교회와 기념비에서 설명 좀 듣고 곧바로 수중사로 갔다, 악~ 경사도가 이거 몇 도냐? 게다가 신발도 좀 작은 거라 발도 많이 아팠다, 그래도 18등으로 수중사에 도착했다, 발을 보니 새끼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혀있었다, 아팠다, 수중사는 세조임금이 피부병으로 인해 강원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양수리에 묵고 있었는데 종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물소리였다 해서 그 곳을 수중사라 지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다산 유적지 팔당댐을 갔다,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애들 장기자랑도 하고 한줄기차도 하고 춤도 추고 등등 재미있었다,

①동 트기 전에 일어나라, ②기록하라,

새로 알게 된 우리 고장

용신 초등학교

5학년 4반

장민아

처음 남양주 시청에서 발대식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출발 할 때는 모두 다 처음 보는 언니, 오빠, 친구들이어서 낯설었고 조금 떨렸다. 2박 3일 동안 우리 고장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많이 기대도 됐다. 용·유릉 등 많은 곳을 다녀오고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그 곳은 입구 부터 여러 공룡과 동물들이 있었는데 나를 반겨 주는 것 같았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먼저 공룡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공룡은 파충류 중에서도 다리가 밑으로 나서 걸어 다닐 때 배가 닿지 않아서 다른 파충류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다. 모르던 공룡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공룡들의 모습을 재연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 공룡이 공룡의 머리를 뜯어 먹는 모습을 보니 끔찍했고 같은 공룡들끼리 잡아먹는 걸 보니 정말 포악 했던걸 알 수 있게 됐다. 화석들과 광물들도 봤는데 광물들은 너무 예뻐서 구경을 자주 했다. 또 어떻게 자연에서 그렇게 예쁜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신기했다.

모란 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보았는데 특히 가면들은 모두 특이했고 너무 커서 정말 이걸 사람들이 썼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야외 미술관에서는 조각품들 중 신기한 것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 없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가장 특이하고 마음에 들었다.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는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고정 관념을 깨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몸 위에 여러 표정의 얼굴들이 있었는데 표정 하나 하나가 모두 달랐고 표정도 재밌어서 특이했다. 그 중 유관순 언니의 얼굴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

너무 반가웠다, 3·1 운동 기념비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3·1 운동을 기념하는 비라고 설명해 주셨다, 3·1 운동 기념비를 보니 그때 3·1 운동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산 유적지를 보니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집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다산 선생님의 집 이름이 여유당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여 조심조심 살자는 뜻으로 지었다고 하셨다, 정약용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와! 네 살 때 천자문을 공부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으면 노력을 엄청 했겠네! 나도 이제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다산 유적지에 가서 생각을 보고 묘를 보니 정약용 선생님을 본 받아야 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다,

모든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니 '아! 하나라도 더 들을걸, 아! 하나라도 더 볼걸!'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아쉬웠다, 또 집을 생각하니깐 빨리 집에 가서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다!! 너무 재밌는 향토 순례단 내년에 또 또 해야지!!~

2009년 2월 20일



신나는 2박 3일의 Big 체험~!

장내 초등학교

5 학 년 3 반

이 해 령

"기상~!" 7시에 일어난 나... 바로 오늘은 '향토 순례단' 가는 날~!
기대에 부푼 나는 어젯밤에 챙긴 배낭을 다시 확인하고... 밥도 먹고, 갈
이 가는 친구 승주와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시청에 들어서고... 9시
에 발대식을 하는 나의 마음도 여전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이다! 처음으로는 홍릉·유릉에 도착했다. 나는 홍릉·유
릉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본적은 처음이었다. 홍릉에는 고
종, 그리고 유릉에는 순종, 그 다음으로는 사릉에 갔다. 사릉에는 정순
왕후가 잠들어 계시다. 다음에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맛있는 밥과 반
찬... 밥도 먹고, 자유시간이 있어 놀기도 했으니 다시 출발! 다음은 광
릉이었다. 점심을 먹기 전에 봉선사에 갔지만 별로였던 것 같다.(나만
그런가?) 하여튼 4번째 행선지 광릉에는 세조가 잠들어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에는 공룡 화석과
광물이 있다. 4학년 과학시간에 배웠던 공룡과 화석, 그때는 공룡, 화
석, 모두 어려웠지만 직접보고 배우니 더욱더 이해가 잘 되었다. 그쪽
박물관에서 토끼도 보고 공룡과 화석에 대한 영상도 보았다. 그리고 중
간쯤에 박물관 안에 있는 화석들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신비로웠다.
파랑, 초록... 여러 가지 색의 화석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 자연사 박
물관에서 보고, 듣고 하니 피곤했다. 가는 버스에서는 모두가 잠들었다.
숙소에서는 TV도 보고, 친구들과도 놀고, 8시에는 '다산 정약용'... '리
더쉽'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11시에 꿈나라로...

그리고 다음날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자고 있는

향토순례 기행문

언니들을 깨우고 씻고 여자들은 거의 준비를 다했지만 반면 조교들은 자고 있어서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데리고 나왔다, '향토 순례단'의 2번째 날... 처음으로는 모란 미술관에 갔다, 예전에 한번 가 보아서 알지만 계속해서 눈에 띄는 작품은 철로 만든 개였다,

다음으로는 3·1운동 기념비에 갔다,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유관순' 언니!! 그냥 기념비를 보고 짧게 설명을 듣고 수중사로~ 수중사에는 걸어 올라갔는데 너무 너무 힘이 들었지만 다 올라가서는 너무나도 부듯했다, 다음은 다산 유적지에 갔다, 다산 유적지에는 저번에 그리기 대회를 할 때 가보아서 그렇게 신기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잊지 않은 정약용 선생님의 말! ①새벽 동 트기 전에 일어나라! ②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라! ③책을 많이 읽어라! ④실생활에 필요한 학문과 생활을 해라! 라는 이 4마디가 나를 바꾸었다, 앞으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음 행선지는 팔당댐~ 팔당댐에서는 신기한 것이 많았다, 왜? 나는 댐을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다른 댐들과는 많이 달라서였다, 안에서 설명을 들을 때 예도 신기, 신기, 또 신기했다,

이제 숙소... 8시에 다른 조들과 어울려서 놀고, 장기자랑도 보고... 자려고 들어갔을 때는 간식이 있었다, 야식으로 과자도 먹고, TV도 보고! 재미있는 2번째 날도~ 아자~!



향토순례 기행문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호평 초등학교

5학년 1반

조 은 희

친구야, 안녕? 나는 호평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은희 라고 해, 내가 향토 순례단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고장을 돌아보았어, 처음에는 흥·유릉을 다녀왔어, 거기에 고종과 고종의 부인이 죽어있어, 그리고 유릉에는 순종과 순종의 부인 2명이 땅에 묻혀있어, 그 다음에는 사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6대 임금의 부인 여산송씨 정순왕후가 묻혀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봉선사를 다녀왔어, 봉선사에서는 종을 보았어, 그 다음에는 광릉을 다녀왔어, 거기는 세조와 정희왕후가 묻혀있어, 그 다음에는 자연사 박물관에 다녀왔어, 거기는 공룡이 왜 죽고 무슨 동물이 있는지 보았어, 화석이 참 많고, 지질과 공룡을 보고 영화를 감상했어, 그리고는 숙소에 갔어, 둘째 날은 모란 미술관에 갔어, 모란 미술관에는 여러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많았어, 내가 제일 좋은 작품은 로봇 강아지였어, 그리고 얼굴 없는 5명의 사람도 좋았어, 그리고 멋진 사진도 찍었어, 3·1운동 기념비에 가서 돌을 하나 보고 왔어, 그리고 수중사에 가려고 산을 올라가서 수중사에 갔어, 거기서 동전을 양동이에 골인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리고 산을 내려왔어, 그리고는 다산 유적지에 가서 영상도 보고 다산 정약용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화장실도 갔어, 다음에는 팔당댐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서 설명과 대나무 댐도 못 탔는데 거기서 손난로를 얻었다, 그리고는 바로 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잤다, 그리고 문화재를 사랑하자는 마음이 들었어, 너도 나처럼 너희 고장의 문화재를 사랑하면 좋겠어,

2009년 2월 20일

너무 멋진 남양주

와부 초등학교
5학년 10반
박 세 원

첫째 날 2월 18일(수)

이른 아침 빨리 일어나 시청으로 갔다, 왜냐하면 남양주 향토 순례단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시청에서 활기 차게 발대식을 하고 흥·유릉으로 갔다, 너무 추웠다, 나는 벌써부터 엄마가 보고 싶었다, 흥릉에는 고종 임금님이, 유릉에는 순종 임금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부인도 같이 묻혀있었다, 따뜻한 버스에서 몸을 녹이며 사릉으로 갔다, 사릉은 조선 단종 임금님의 부인인 정순왕후 여산 송씨가 묻혀있었다,

우리 11조 조장언니와 친해지면서 이 여행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굶주린 배를 식당에서 채운 다음 봉선사로 올라갔다, 봉선사에서 보물 397호 봉선사 대종을 보았다, 정말 멋진 종이었다, 다시 내려와서 광릉으로 갔다, 광릉은 2개의 갈림길로 되어 있었다, 왼쪽은 세조, 오른쪽은 부인인 정희왕후 윤씨가 묻혀있었다, 이 능은 최초로 한 것이 3개가 있었는데, 원래 왕은 돌판에 묻혀야 되는데, 세조는 겸소하게 회격으로 묻혔다, 그리고 이 정희왕후는 자신의 아들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자 성종을 도와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고, 중간 지점에 정자각을 세운 최초의 능이다, 정말 멋졌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나에게는 처음으로 보는 공룡 모형이었다, 그리고 광물, 보석을 보았다, 이 박물관을 세운 분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이렇게 야의 활동을 끝내고 숙소에서 처음으로 입실을 했다, 정말 재미있고, 나에게 큰 추억이 있던 하루였다,

향토순례 기행문

둘째 날 2월 19일(목)

둘째 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모란 미술관에 가는 길에 멀미가 너무 심해 너무 아팠다. 난 그 와중에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다. 바로 거의 부서져 가는 철 강아지였다. 너무 독특했다. 그 다음 3·1 운동 기념비에 갔다. 난 버스 안에서 보기만 했다. 그리고 수종사에 등산으로 가서, 난 아파 못 갔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 살짝 우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심심했다. 그리고 컨디션이 나아지자 다산 정약용의 생가인 여유당도 봤다. 정말 멋졌다. 여유당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팔당댐에 갔다. 푸른 강이 정말 보기 좋고 시원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난 정말 있는 힘껏 놀았다. 정말 훈훈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잠이 더 잘 오는 날이었다.



재미있고 즐거운 향토 순례단

10조 김 가 현

2009년 2월 18일~20일 동안 향토 순례단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유적지, 문화재 등을 보러 남양주시를 돌아다녔다. 시청에서 발대식이 끝나고 고생이 시작되었다. 시청에서 흥·유릉을 걸어가는데 거의 일주일 내가 움직이는 양이었다. 그래서 내 몸이 놀랐는지 난 다리도 저리고, 너무 지쳤다. 근데 거기에서 설명까지 난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귀를 막고 있었다. 고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고종, 고종 부인이 머물렀던 곳도 보이고 어느 집을 지키는 석물들이 신기했다. 목적은 2박 3일 동안 버티는 건데 과연 될지?? 그런데 우리 문화재는 아름다웠다. 문화재도 다 가치가 있고, 유적지 들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다산 문화재에 있던 거중기와 다시 건축됐지만 아름다운 생가 등, 자연사 박물관에서 본 화석들과 보석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둘째 날은 모란 미술관, 3·1운동 기념비, 수종사 등을 갔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장기자랑도 다른 사람이 하고, 게임도 다른 사람들이 했다. 난 그 중에서 제일 싫은 애가 있었다. 우리 반에 왕따 윤지은이 있는데 윤지은이랑 얼굴도 같고, 성격도 같고, 웬지 정말 더 싫었다. 왜냐하면 속도 빠른 사람 나오라고 할 때 혼자 나 대고 내 안경 가져가서 던져놓고 정말 싫었다. 12기 향토 순례단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우리고장에 아름다운 곳들을 볼 수 있다. 부모님과 갈수 있는 걸 향토 순례단이 미리 가게 해준다. 나쁜 점은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돌아다닌 것, 대장 선생님 마음대로 조와 숙소 정한 것, 남의 숙소 못 가게 막는 것 이다. 다음엔 안 그러겠지!! 느낀 점은 서울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먼저 보자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우습게보지 말자! 비록 오늘이 끝이지만 사진 찍은 것 보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엄마 없이 있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2박 3일 동안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 같다.

3일간의 대장정

호평초등학교
6학년 1반
박 상 준

1일

누나와 나는 3일간의 대장정을 하러 남양주시 시청에 모였다. 우리가 왔을 땐 이미 많은 사람이 와서 발대식을 하고 있었다. 누나와 난 시청에 들어간 순간부터 3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등 많은 기대가 물려왔다. 내 기분은 설레임이 물려왔는데 지나가던 북서풍도 방향을 바꾸고 나의 설레임을 더욱 크게 만들어준다. 난 저번 11기 향토 순례단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 12기는 더더욱 긴장이 된다. 그리고 제 12기 남양주 향토 순례단을 이끌어갈 대장이 깃발을 받고는 발대식이 끝난다. 그리고 우리 1조부터 12조까지 조를 마치고선 홍·유릉으로 한발 한발 내딛는다. 난 저번과 같이 1조인데 교관 형들도 착한 것 같고 특히 1조 교관 형 이름이 이상준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난 더욱 걸어서 홍·유릉에 도착하였다. 홍·유릉은 홍릉+유릉 이라고 한다. 먼저 홍릉에 갔는데 짜~아~악 둘러보니 고종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선 유릉에 가서 또 짜~아~악 둘러보니 홍릉과 비슷비슷한데 홍릉과 유릉의 기분이 다르다. 유릉은 순종이 지키고 홍릉은 고종이 지키고 홍·유릉은 다시 봐도 훌륭한 문화재 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사릉에 가고 봉선사에 도착했는데 봉선사는 다른 절과 똑같은 줄 알았더니 표시하는 주련과 간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절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선 대장이 모두에게 쉬는 시간을 주었다. 난 주위경치를 구경했다. 혼자? 아니 이제 중 1이 되는 정윤석 형과 같이 구경하는데 아까부터 만화를 보고 있는 형이 있는 것이다. 같이 놀자고 하니 싫다고 하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았다. 그래서 그 형의 별명은 애니메이션 광이고 게임을 계속해서 오타쿠 라는 별명이 어울려 그 형은 오타쿠 형이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광릉에 갔다가 자연사 박물관에 왔다. 1,2층이 있었는데 1층은 화석에 관한

것, 2층은 공룡에 관한 것, 우린 가이드의 말을 모두 쓱쓱~! 듣고선 버스를 타고 내가 가장 원하던 숙소에 들어가서 방 배치를 하고 그냥 들어눕자마자 잠들었다,

2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모란 미술관에 갔다. 모란 미술관에는 많은 의미가 담긴 작품과 멋지게 그걸 보태주는 가이드가 있어서 이해가 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선 유관순이 일생을 바친 3·1운동 기념비에 가서 멋진 이야기를 듣고 수종사에 갔다. 체감Km 6Km인 산에 올라서 120명중 4등으로 올라서 멋진 풍경을 보고선 힘찬 마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선 다산유적지에 갔다가 팔당댐을 가고 숙소에 도착했다. 그리고선 다시 잠들었다.

3일

이제 가야한다. 3일의 추억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참가할 것이다. 난 다산에서 '새벽 동 트기 전에 일어나라,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등 많은 것을 배웠다. 내 취침 방에서의 아주 좋은 추억들이 내 머릿속 가장 인상 깊다. 내가 만약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향토 순례단에 돈을 기부를 하고 싶다. 우리 조 상준이 형과의 좋은 추억도 Best of best 이다. 난 3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너무 기분이 좋다. 미래의 멋진 나를 위해선 역사는 50% 향토 순례단은 Best of best!!!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남양주시의 멋진 장소와 향토순례단의 답사

별내 초등학교
5학년 8반
7조 유수환

제 12기 향토 순례단은 2월 18일부터 남양주를 둘러보며 향토사와 역사적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남양주 시청을 시작으로 여러 곳을 다녀왔다. 먼저 나무와 풀이 많아 공기가 좋고 조용한 흥·유릉을 다녀왔다. 여러 번 와 보아서 그리 큰 기대는 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가보아서 전보다 좋았다. 흥릉은 조선 말기(대한제국)시대 고종과 그의 비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곳은 특이하게도 명나라의릉을 비슷하게 본떠 만든 능이었다. 유릉도 마찬가지였다. 명나라의릉을 본떠 놓았고, 유릉은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과 그의 2명의 비가 함께 묻혀 있었다. 또한 두릉은 다른릉과 다르게도 침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다.릉을 오를 때는 힘들었지만릉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 좋았다. 두 번째로 버스를 타고 사릉에 도착했다. 이날 아침부터 화창했는데 그 화창한 날씨 속에 조출한릉이 있었다. 귀신을 막는다는 홍살문을 지나니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과 그 뒤에 단종의 비 정순왕후 여산송씨가릉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단종과 멀고도 먼 곳에 묻혀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 또, 흥·유릉과 달리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냈다는데 정자각이 더 멋있는 것 같았다. 사릉을 뒤로하고 버스를 타고 봉선사에 도착했다. 경기도의 대한불교 조계종계중 으뜸가는 절이었다. 절에 도착해서 현판을 보았는데 모두 한글로 되어있어 읽기가 편했다. 또 절 앞 편에는 웅장하고 멋있는 봉선사 대종이 떡하니 걸려있었다. 이 종은 보물로 지정됐다고 했고, 이절은 세조의 부인이 세조를 기리기 위해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운악사였던 이름이 봉선사로 예종 1년에 바뀌

었다한다, 또한번 세조와 관련된 곳을 갔다, 광릉으로,,,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된 세종의 아들 세조가 잠들어 있었고 그의 부인이 있었다, 그곳 역시 정자각이 있었다,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그리 신기하지도 않았고, 친근감도 들지 않았다,

2월 18일 마지막으로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큰 수장고 속에 여러 광물과 보석들이 있었고, 공룡화석과 화석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특이하게 보석에만 눈이 갔다, 속으로는 '저거 한 덩어리만 떼어갔으면!'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써 향토 순례단 첫 일정이 끝났고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고, 힘들었다,



춡고, 힘들고, 배고픈 향토 순례단

금교 초등학교
5학년 이 선 제

나는 2일전에 사촌 형 윤석이 형과 남양주 시청으로 갔다, 그곳에서 남양주 향토 순례단 발대식을 했다 그리고 그 때는 오전이라 무지 추웠고 졸렸다, 발대식을 마치고 1조부터 12조까지 줄을 지어서 흥·유릉으로 갔다, 별로 볼 건 없었지만 재미있긴 있었다,

그다음엔 사릉으로 버스를 타고 갔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은 뒤에 봉선사에 대중을 보러 갔다, 그 종은 우리나라 보물이었다, 정말 멋있었다, 한번 쳐 보고 싶었지만 12월 31일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광릉에도 갔는데 거기에는 세조가 묻혀있다고 했다, 묘도 되게 컸다, 그 다음에는 또 버스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예전에 갔었을 때보다 더 좋아져 있었다, 공룡도 있고 다른 보석들도 무지 많았다, 그 중에 자수정이 너무 갖고 싶었다, 박물관에서 영화도 봤다, 영화덕분에 하루 일정이 하나 취소되었다,

또 버스를 타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숙소로 갈 차례가 되었다, 너무 기뻐서, 방을 배정 받고 각자 짐을 풀 다음에 저녁을 먹고 10시쯤 수업을 들었다, 완전 지루했다, 우리들은 숙소에 돌아가서 이불을 펴고 잘 자리를 정했다, 사촌형과는 다른 방이어서 아쉬웠다, 밤이 되자 우리들은 씻고 일찍 잤다,

이튿날 아침 엄청 일찍 일어나서 옷만 대충입고 모여서 밥 먹으러 갔다, 밥맛이 맛있었다,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내가 엄청 많이 가봤던 수종사로 향했다, 그곳은 다른 산들과는 달리 바닥이 콘크리트였다, 그런데 나는 다른 때보다 올라가는 게 힘들었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올라가서 좀 있다가 바로 내려왔다, 내려가는 것은 올라갈 때 보다 훨씬 쉬웠다, 그 다음 또 버스를 타고 팔당댐으로 갔다, 댐의 반대쪽은 물이 가득했는데 그 옆쪽은 물이 조금 많았다, 댐을 구경 다하고 설명을 들은 뒤 차안에서 간식을 먹었다, 좀 살 것 같았다, 그 다음 점심을 맛있게 먹은 뒤 12번도 더 가본 다산 유적지를 갔다, 정약용에 대한 영화도 감상하고 거중기도 봤다,

그리고 모란미술관에서 각종 미술품을 감상한 뒤 버스를 타고 3·1운동 기념비를 봤다, 볼 것도 별로 없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했다, 약 10명이 장기자랑을 했고 기차놀이도 하고 각종 재미있는 놀이들을 했다, 그날 밤 누나들이 쳐들어와서 밤에 너무 늦게 잤다,



여 백



天 摩 山 의 脉



대외문화교류 활동

- 강원도 영월 (4월25일~26일)
(단종문화제 및 영월지역 문화탐방)
- 전남강진 (8월8일~10일)
(청자문화제, 완도 해신촬영지, 보길도, 노화도)

— 寧越 (清冷浦) —

— 雪松 —

음성(凝氷)에 눈먼 바위
구렁나무 도끼는
그림 같은 어진 밤
무슨 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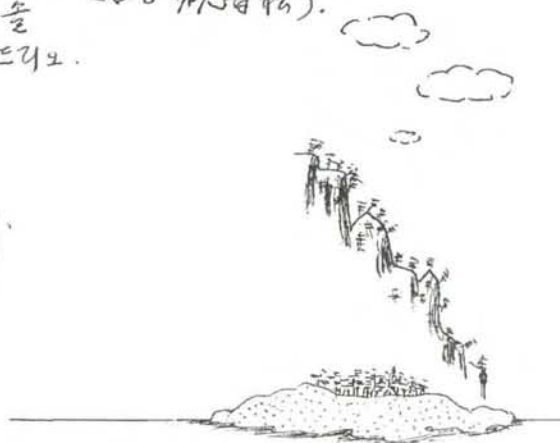
강을 돌려
강소리 평정
장계에 소느라쳐.

50년 장정(長恨)
동강에 구비치고.
낙하암 노승(老僧) 이금 오늘 세
편갈고네
강장호 꿈여.

밤중에 울던 남 꿈서린 강음송(靑音松).
평창산(平昌山)의 줄
마침 문안(文安) 드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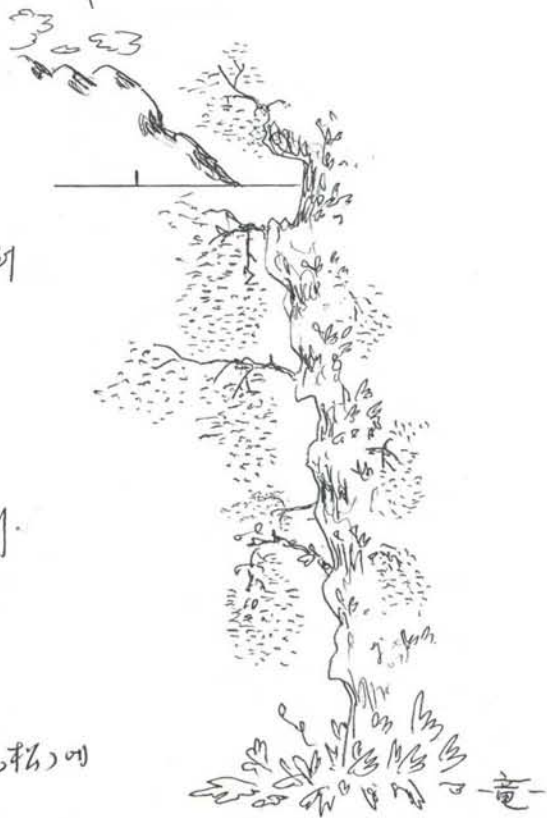
검푸른 숲 앞
이슬 반짝
눈발에 뜬 구름
푸른 대원 가네.

— 龍 —



< 清冷浦 >

— 寧 越 (東江) —



죽룡이 고향
정선에서 내려와
수양수부(首陽叔父) 불려
조카니 뒤 육룡,
임장군(尹將軍) 의리가
리승도 함께 들어
강릉로 5백년.

꽃있는 뽕잎 이곳 꽃아,
새 색서 흰강, 오솔길 땀에.
정선의 수화암(蓀花岩)
심상수곡(深山幽谷)
금림유택(金笠幽宅)
끝고 정어.

청령포(淸靈浦) 노송(老松)에
귀비바위 새 육룡
가슴 찢어
장릉(莊陵)에 노을 붉게 물들어,
나네 밤길
사슴 더 리네.

雪 松 蓀
詩人 (戰爭文學)

<주> 임장군은 본시 영랑강으로 본명
영랑도(尹鳴道),
동강 수화암 본 명상에 허랑하게 내려
갈 노산호(魯山君)의 시언을 글로 수습,
장릉에 가매장 후, 추방을 위해 리강에
양명 했던 리세의 총작한 인물.
영조때 공조 참판(工曹參判) 추증.

— 寧越(清冷浦)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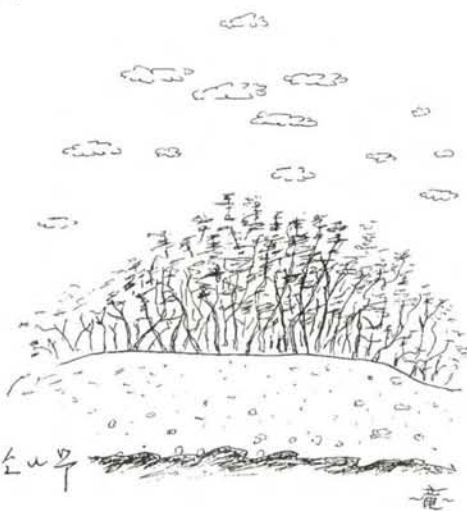
더 넓이 붉은눈
검푸 하얀 옥소리.
강물은 유배 삼이
우는 리로.

2009. 4. 26.

향향의 자는 눈물
6 배로 강을송(靑松)아!

수목(淑父)의 위엄이
눈앞에 막아서.
강물은 폭풍
결소리 텅텅
여린 가슴 헐렁.

낙화암 노승에
이름 모를 새는
뜻있는 너그네.
강물을 굶고.



청령포(靑冷浦) 소나무
이슬 이적 한데.
무심한 폭풍은
북에서 불어와.
엄충선(嚴忠彦)의 숲이
강물을 지키나.

靑松亭
(靑松文亭)



天摩山の脉

2009 문화유적 답사

[경기도 바로알기]

- *제1차(안보체험: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경)-5월9일 토요일
- *제2차(역사체험)-5월23일 토요일
- *제3차(해양생태체험)-6월13일 토요일
- *제4차(호국보훈의달유적답사)-6월17일 수요일
- *제5차(생활체험)-7월11일 토요일

[국군장병가족과 함께하는 남양주문화유적 답사]

- *4월10일- 홍유릉, 사릉, 광릉, 팔당수력발전소, 다산유적지

[하계 방학중 문화유적 답사]

- *8월3일~4일-한강원류를 찾아 떠나는 여름여행
태백(검룡소, 석탄박물관), 영월(동강, 장릉, 청령포),
여주(신록사, 명성황후생가), 양수리(세미원), 팔당(수력발전소)

여 백

〈통일 안보체험을 다녀와서〉

김 혁

발은 아팠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이 아주 많았다.

임직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오두산전망대 이중 보람이 없었던 곳은 한곳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난 우리 엄마의 소개로 우리 엄마와 친한 아줌마들이 가족들이 많이 왔다. 그곳에 간 단체 중 2/3는 죽히 될 것 같았다.

제 3땅굴. 그 곳은 우리가 맨몸으로도 가기 힘이 무척 드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굴을 파고 무기를 나르는 북한군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하여 본다.

도라산전망대에서 통일촌과 북한측 마을을 보았는데 800m가량 떨어진 것 같은 두곳에 남북이 떨어져 오고갈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다. 반 세기를 넘도록 통일이 안된 남북 지금6학년인 내가 통일되는 것을 볼수 있을지...

오랫동안 걸어 힘들었는지 변변치않은 음식이라던 말과 다르게 꿀맛이었고 기운이 났다. 그후 임진각에 다시가서 놀이 기구도 탔다. 오랜만에 타서 재미있었다.

오두산 전망대에서는 북한민족의 음료를 보았다. 술은 우리나라와 그리 다르게 없었다. 그저 상품명만 다른것 같았다.

이렇게 기행문을 써본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이런 좋은 기회로 북한땅의 건물들도 보고 기행문도 쓰고 좋은것 같았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이 체험을 하고 싶다.

2009년도 1차 통일안보체험을 다녀와서

김명숙

오두산 전망대에서 통일을 기원하다

2009년 5월 8일, 민통선을 열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왕복 4km를 자전거로 달린 경기도와 북방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오는 9월 1일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3시간만, 인원은 300명 이내로 민간인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떠났다. 북쪽으로 향하는 자유로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



임진각



임진각

DMZ, 비무장지대! 유엔군 · 공산측(북한군, 중국군)이 6·25전쟁의 휴전에 따라 합의하면서 남북한 간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만들어 놓은 비무장 · 비전투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문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남방한계선은 관할권이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북방한계선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주어졌다. 비무장지대는 휴전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를 중심으로 한 육지의 군사분계선(DM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약 2km 후퇴하여 형성되었다.

참고로, 경기도 지역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은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에 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약 86km이며, 강원도 철원, 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군의 명호리까지 이르는 총 249.4km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총면적은 907.3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45%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의 110여 배에 이른다.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남쪽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에는 평화촌이 있다.



망배단 앞 단체사진



망배단

처음 도착한 곳은 임진각 평화랜드다. 이곳은 임진각과 북한 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 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 안보관광지다. 지난 12월 31일날 김문수 도지사가 평화의 종을 두드렸던 곳이기도하다. 1972년 임진각이 세워진 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있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6년에 조성된 망배단이 있다. 매년 명절 때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탑이 있다. 담장 저편에는 1953년에 건설된 자유의 다리가 놓여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남북포로교환이 이뤄진 곳이다.

또한, 문화원의 노고로 우리는 미리 허락을 얻어 도라산 제3땅굴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귀순한 김부성씨의 땅굴 공사 첩보제보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 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1개가 폭발함으로써 역갱도 굴착 공사를 실시, 1978년 10월 17일 적 갱도에 관통하여 판문점 남방 1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제3땅굴에서 서울까지는 약 52km, 폭2m, 높이 2m에 총길이는 1635m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냉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머리위

로 지하수가 떨어지며 북한은 제3땅굴이 발견될 당시 남측이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땅굴 내부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 폭파흔적(장전공)이 남쪽을 향해 있고, 갱도로 위장하기 위해 석탄가루를 묻히는 등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운행되는 승강기로 오르내리며 비무장지대까지 뚫린 땅굴내부를 훑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땅굴은 모두 4개며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다. 땅굴작전은 1971년 "남조선을 해장하기 위한 속전속결법을 도입하여 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는 김일성의 '9.25'교시로 시작되었다. 제1땅굴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면로, 배수로, 전기시설 1개 연대 병력 침투 가능한 땅굴이다. 제2·3·4땅굴은 출구를 여러개 만들어 유사시 병력을 여러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1시간내 대규모 병력과 야포등 중화기가 통과할 수 있는 땅굴이라고 시청 각실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평양행

인근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를 올랐다. 북한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동산,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등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연건평243평으로 관람석이 500석이나 된다. 1987년 1월부터 공개된 전망대다. 철도 있는 군인의 설명을 곁들인 후 우편함처럼 빨강계 칠한 망원경에 500원을 투입하고 저편 인공기가 보이는 곳을 열심히 보았다. 휴일날 여러 학교에서 스카웃 복장을 하고 온 초등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아려주는 했을까? 망원경의 갯수를 늘리고 이왕 무료로 보여주게 되면 더욱 좋았겠다.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지나니 감회가 새롭다. 그 앞마당을 도라산 역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성으로 들어갈 때 버스가 우리를 태웠던 그 자리인데 철책으로 단단히 쳐있다.

도라산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이다. 2002년 2월 2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그리고 남북화해의 미완성 역이기도 한 도라산역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또한 남북 교류의 관문이라는 이중적 역사 의미도 가지고 있다.



북녘땅을 설명한 조감도



자유의 다리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있는 특수한 마을 대성동을 가보고 싶었다. 허준선생의 묘가 있다는 이정표를 보면서 다음에는 코스에 넣어보자는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솔직한 설명을 들으며 10여분을 달려 통일촌에 다다랐다. 1970년대 초 황무지로 방치된 채 놓고 있었던 땅을 개간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입주민들은 17세이상 60세이하의 남자들로 향토예비군을 편성하여 국방의 일면을 담당하게 하는 등 이스라엘의 전략촌인 '키부츠'를 모델로 만들어진 정착마을이다. 현재는 150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심은 장단콩이 유명하다는 이 곳 저곳의 간판이 보이는 허름한 마을 휴게소 2층에서 해결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북한영화 상영 및 문헌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서울 · 인천 · 청주 · 부산 · 경남 · 광주 · 제주 통일관 등 8곳이다. 또한 북한 접경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오두산 · 고성 통일전망대, 철원 · 양구 통일관 등 4곳이다.

그중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잠시 북한에 대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2월 16일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맞이해 림한 소학교 앞에 모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서울의 한강과 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임진각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해발 118m의 고지다. 옛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오두산 성터가 남아 있는 곳으로 사적 351호로 지정된 고대로부터의 군사적 요충지다. 지금은 서부전선의 최북단으로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강 20km의 짧은 거리를 새들만이 넘나들뿐 반세기동안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다.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곳에 전시된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는 북한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이기는 하지만 소학교 교실을 통해 진열된 북한 교과서와 교과내용, 필기구, 교육제도를 알 수 있고 주민의 안방을 통해 가재도구와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우상화 내용을 알 수 있다. 북한중산층이 사용하는 안방내부를 재현하여 옷장, 탁자, 옷걸이, TV, 시계 등의 생활용품 진열과 김일성 부자 초상화부착, 그리고 북한의 주택현황(아파트, 벽돌집, 집단공영주택, 농촌 문화주택, 농촌가옥)과 계층별 주택구조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교실 모형



북한의 가정집 모형

또한 통일전시실에서는 평화통일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북한 공훈배우 공연영상 상영이 가능했다. 사회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다

급함을 느끼게 한다. 옥외망원경을 통해서 다시한번 분단의 현장에서 북녘의 산야를 바라볼 수 있다. 마당 오른쪽으로는 독립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 고당 조만식 선생상이 있다. 아직도 한민족이 평화통일을 기다린 듯 두루마기의 모습이 애절하기만 하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운영재개를 놓고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는데 이곳의 "개성공단홍보관"은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중국에서 수학여행을 온 듯한 값싼 주황색 수련복의 소림사 학생들은 어찌하여 이곳까지 들리게 되었을까?

통일은 바람타고 실려오는 5월의 아카시향처럼 자연스럽고 부담없는 일이어야 한다. 인간의 본능처럼 해결이 되어야 한다.

여러번의 다양한 답사기회를 주신 남양주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2차유적답사를 다녀와서 (강화유적답사 후기)

김명숙

여러차례 강화도를 찾지만 그 때의 내 나이와 계절과 기분에 따라 역사공부의 깊이와 감흥은 달라진다. 이번엔 외규장각도 강화동종도 아닌, 경고비와 신미순의총, 인조대왕실록과 동국이상국집이 눈에 띈다.

쇄국정책을 폈던 대원군의 업적(?)중 척화비의 실물은 이번 강화 유적답사에서 얻은 귀한 선물이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척화비문에는 대체적으로 ~~ 양이침범 비전측(洋夷侵犯 非戰則)~~으로 쓰여져 있다. 그 뜻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할 수 밖에 없고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대원군이 당시 외세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에게 나라를 지키자는 뜻으로 200여개의 척화비를 1866년에 제작해 1871년까지 전국의 요충지에 비석을 세웠으며 임오군란 때 모두 철수돼 대부분 땅속에 묻혔다고한다. 척화비격인 경고비를 돌아보니 나라를 지키고자 애를 쓴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아야겠는데.....

경고비

海門防他國船慎勿過”(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

덕진진 남단 덕진돈대 앞에 위치한 이 비(碑)는 조선 고종4년 (1867)에 대원군의 명에 의하여 강화 덕진 첨사가 건립하였다 한다.

개화 여명기에 외국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고비로서 비문에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라 음각되어 있으며 이는 어떠한 외국 선박도 함부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쇄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고비는 장대석의 지대 위에 1석의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대리석 비신을 세웠으며 이 비의 크기는 높이 147Cm 폭 53Cm 두께 28Cm 이다. 이 경고비의 우측 상단 하단부에는 탄흔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신미순의총 -

이곳은 조선시대 고종8년(1871년) 신미양요때 광성보 일대에서 미해군과 격전하다가 전사한 용사들의 묘가 있는 곳이다. 당시 중군 어재연 장군과 아우 어재순을 비롯한 군관, 사졸 53인의 전사자 중 어재연 장군 형제는 고향인 충북 음성군 내소면 성본리에 안장하고 남은 군졸 51인은 신원을 분별할 수 없어 7기의 분묘에 합장하여 순절을 기리는 곳이다.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은 최후의 한 명까지도 포로 되기를 거부하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으니 외침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민족의 살신 호국정신을 보여준 곳이다.



경고비



신미순의총



인조대왕실록



동국이상국집

늘 깨우침을 얻게 해주는 남양주문화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3차우리문화유적답사 (천연기념물제414호와 제약부경)를 다녀와서

김명숙

천연기념물 제414호와 제약부경

유년시절 공룡에 대해 무한한 상상력과 매력을 느껴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아들이 5세 때, 방송국에 연락하여 공룡천재가 났다며 호들갑을 떨던 내가 그때 오히려 공룡 공부를 열심히 한 보람으로 오늘 (2009.6.13), 일종의 탐사를 더욱 빛나게 해준 것 같아서 문화원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함을 전한다.



포럼이 있었던 방문자센터



초지입구-무슨공룡일까요?

영화 <쌍화점> 마지막 장면 결투씬의 장소인 草地, 화성송산면공룡알 화석지는 동행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견학의 첫도착지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14호"공룡화석지"이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던 <살인의 추억>도시, 화성으로만 기억하고 기타 다른 생각으로의 진전을 막아버렸던 곳, 화성이건만 면적이 워낙 넓어서 갖가지의 일중에 하나인 살인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해설사는 설명을 곁들인다.

한 달 여전에 있었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최적지로 이곳이 주목

되었었다. 공룡알 화석지 인근지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후보지 신청에 앞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는 이렇다.

경기도는 2009년 4월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영근 화성시장, 이태섭 시의회의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공룡알 화석지인 송산읍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 스미소니언협회 정책분석관인 캐롤 니브스 박사등을 초청해 화성 공룡알 화석지의 자연사박물관 입지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캐롤 니브스 박사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운영사례등을 들며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연구와 전시, 교육을 통한 호기심의 발견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화성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현재 공룡알 화석지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교육목적의 두가지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장 질 뷔프 박사는 '프랑스의 자연사박물관 운영사례'를 소개하면서 "드넓은 자연환경을 갖춘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구기능을 갖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고생대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전날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일원을 둘러보고 주변 여건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김문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역사가 깊고, 많은 가능성, 무한한 꿈이 있는 곳이며, 인근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비롯해 전곡항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 기사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이곳의 생태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공룡알 화석 산출지 안내표지 공룡알 화석-검은색의 동그란부분

이곳은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해당된다.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육지로 변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땅이다. 아직 염기가 남아있는 땅에는 통통마디, 나문재, 함초, 칠면초같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한 입 뜯어서 씹어보니 짭짤하다. 방문자센터에서 화석지까지는 족히 2km를 걸어서 가는데 오늘은 마지 태양도 비켜가 주니 참으로 다행이다. 비가오면 출입이 아예 금지되거나 안개가 끼는 날에는 약간의 공포감이 밀려온다고 다녀온 이가 귀뜸을 해준다. 멧새와 철새 등 수많은 조류의 서식지이며 토끼, 노루, 고라니, 오소리 등 포유동물까지 생태계를 이루어 살고 있단다. 한마디로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1999년 4월 대규모 화석이 발견된 이곳 시화호 일대는 약 1억년 전 공룡들의 집단서식처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3여개의 동지에서 10-15mm 크기 300여개의 공룡알 화석과 각종 식물화석이 발견되었으며 갯벌속에 묻혀있을 화석까지 확인한다면 세계적인 규모의 공룡화석지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2000년 3월 22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화석지-초지에 피어난 칠면초와 함초

퇴적의 흔적들

공룡알 동지는 대개 역암과 사암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산란지가 당시 상류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공룡알 화석은 산란습성과 먹이, 새끼 기르기 등을 추정 할 수 있는 소중한 화석이다.

공룡알 화석은 12-14cm, 두께는 1mm 정도이다. 모양은 둥글고 검붉은 색을 띤다. 공룡알은 대부분 윗부분이 깨어져 있는데 이는 새끼가 알을 낳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 의해 파손된 상태로 화석이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화성시가 화석산지(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입구 맞은편에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금년 2월에 개관하였다. 대지면적 3천 500㎡에 건축연면적 966㎡의 지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실, 영상회의실, 자료 관리실과 부속시설로 화석 처리실, 수장고 등이 있다. 공룡과 화석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풍부한 자연 학습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란다.

거대한 몸집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동물!!! 공룡처럼 신비한 동물로 살고 싶을 때가 더러 있기도 하다. 아직도 많은 의구심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룡의 세계를 시청각 자료를 보는것으로 마무리 짓고 제부도로 가는 길에 가수 조용필의 고향을 지나쳐왔다. 아마도 고향에 콘서트를 마련하고 수익금은 좋은 데 사용했는지 공인은 그래야 한다는 문화해설사의 강력한 주장에 잠시 이끌려 보았다.



제부도 갯벌 체험장



1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함

제부도!!! 제약부경!!! 화성의 송교리라는 마을과 원래의 제부도 섬을 연결하는 갯고랑을 지나갈 때 아이는 업고 노인들은 부축하고 건네주어서 '제'자와 '부'자를 따서 제부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모세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바닷길은 하루에 두 번 열리는데 지금은 포장공사를 하여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다. 해안 산책로가 개발되어서 나름의 관광지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보인다.

장화와 호미를 잠시 빌려 도망가는 소라게와 작은 게들을 연신 잡아왔건만 하룻만에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북유럽이나 네델란드 등 선

유적답사 기행문

진국들은 간척사업으로 얻어진 육지를 이제는 다시 갯벌로 환원하여 갯벌이 주는 무한의 은혜로움을 다시 찾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진화와 비전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고자 각종 인프라를 내세워 시화호 명품관광레저개발 등으로 한층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와 심훈의 상록수가 주는 경이감으로 이곳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자.



제부도 갯벌 체험장



天 摩 山 의 脉



◆ 남양주문화원-보병제73사단(민·군교류활동)
국군장병 남양주역사, 문화바로알기



다산과 목민심서 를 통해 본 리더의 역할과 자세

제206보병연대 3대대장

중령 이희상

다산과 목민심서 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다산 사상을 훑어보고 목민심서 를 두 차례 정독하고 보니 부끄러움, 씁스러움, 안도감, 서글픈 심정 등 만감이 교차된다. 군의 중견 리더이자, 지휘통솔자인 나로 본다면 목민관과 크게 다를 것 없다. 늘 백성의 곁에서,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 깊이 그들을 사랑했던 다산처럼 나도 그렇게 부하들을 대했는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나는 지난 8월 사단장님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목민심서 를 받았다. 목민심서 가 "딱딱한 문어체로 도배된 고리타분한 고전에 불과하겠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제1편의 부임(赴任)과 제2편의 율기(律己)만을 대충 훑어보고는 사무실 서재의 한 구석에 꽂아 두었다가 독후감을 써야 한다고 하기에 다시 꺼내어 부랴부랴 읽었으니 이 얼마나 씁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다산과 목민심서 라는 고전의 숲에서 미래를 헤쳐 나갈 통찰력과 추동력,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리더의 역할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다행이며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나마 안도감이 생겼다.

어떻든 다산과 목민심서 는 그렇게 나에게로 슬며시 다가와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

우리는 왜 다산과 목민심서 에 새삼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환경은 어떠한가? 많이 개선되고 정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끓이지 않은 부정과 부패, 소리없이 다가오는 끝없는 유혹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되는 혼탁한 정치, 복지부동 내지는 철밥통 행정,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경제 등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우리 육군도 대형 금융사기 사건, 탈북 여간첩 사건, 급양 부정 납품 사건, 일부 예비군 지휘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최근 GP 수류탄 및 음주 사고, 잇따른 인명손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내홍과 몸살을 앓아 왔고, 그러한 관성들을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아래의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병폐들의 많은 부분이 외교적 분쟁, 전쟁 등 외부와의 갈등이나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릇된 몸가짐, 허물, 모순 등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생존과 처세의 법칙을 공부하기 보다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서점에는 부동산, 주식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하는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동안

소홀했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인문학적 성찰과 관련된 서적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은(군의 경우 일부의 모습이) 다산이 "씩고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고 진단한 조선 후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육군 내부적으로는 한숨과 위기의식이 교차되는 가운데 "의식을 전환하자",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자",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자"는 등의 자성적 목소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과 부대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무관심, 무기력, 무책임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지휘통솔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는 진정한 힘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월의 칼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올곧은 원칙과 신념을 설파하고 몸소 실천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목민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군의 지휘통솔자들은 바로 백성의 곁에서,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 깊이 그들을 사랑했던 조선 후기 최고의 지식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주목하고 그의 불후의 역작 목민심서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그의 사나, 그의 사나를 훑어 두루 살펴보고 다산과 목민심서라는 거울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현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

다산과 목민심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내가 목민심서 읽고 느낀 소감은 그것이 단순히 '지방행정의 지침서'라는 세간의 평가를 넘어 목민관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영·행정 방식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역작이라는 것이다. 육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민심서는 군인복무규율, 육군가치관, 지휘통솔 교범, 부대지휘절차, 지휘관 및 참모업무, 부대관리 Know-How 123, 병영생활지도 지침서의 기능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 마디로 40년을 철저하게 야전의 현장에서 누비다가 은퇴한 '사령관의 경험 총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뼈저린 고뇌로부터 조선 후기 시대적 상황을 밑바닥에서부터 냉철하게 파헤치고 구체적인 치유책을 제시하는 다산의 해안과 통찰력은 새삼 진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다산의 통찰력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차원을 넘어 다산과 그의 역작 '목민심서'가 지휘통솔자인 나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아래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 번째는 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견지하라는 것이다.

목민심서 내용 중 유난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구절이 있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나오니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겁내어 엎드릴 것이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함에 백성들이 모두 순종할 것이다.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던진 듯 조출하여 남은 수레와 야원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가 그것이다. 다산은 부임부터 시작해 임무 수행 과정은 물론 해관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도 목민관이 가져야 할 최고의 윤리는 바로 청렴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로마 역사에서 위대한 두 명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유혹에 완전히 정복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마 역시 부정·부패와 퇴폐라는 말기적 증상들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이 북베트남군에게 베트남군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전쟁 내내 끊이지 않았던 티에우 정권과 고급장교들의 부정·부패,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반면 월맹군의 지도자였던 호치민(胡志明)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애민 사상과 청렴의 철학을 본받도록 가르쳤고 미군의 폭격을 피해 토굴을 전전하면서도 목민심서를 품에 간직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유혹과 부정·부패는 소리없는 점령군'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대한 유혹의 향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 출세욕,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각종 유혹과 부정·부패에 소리없이 점령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부패한 군대로 건강한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처럼 부정·부패는 부대의 단결을 저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지휘통솔자가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용기를 견지한 가운데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청렴하게 부대를 지휘할 때 부하들은 진심으로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다산이 충고했던 것처럼 청렴을 군인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올바른 가치와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소리없는 점령군'으로부터 나와 조직을 지키는 첩경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시라도 대대장의 본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라는 것이다.

다산은 원목(原牧)이라는 글에서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牧爲民有也)"고 결말을 짓고 있다. 다산은 우리에게 "리더는 부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將爲卒有也)"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산 사상의 근저에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자세와 백성에 대한 애정이 짙게 깔려 있다.

신음하는 민초를 보고 몹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을 다산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래의 구절을 보자. "성인의 시대는 너무 멀어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도(道) 또한 점점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친구령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당시 백성의 피폐하고 참혹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파헤쳤던 그는 목민관에게 선수범하는 자세로 늘 백성의 곁에서,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 깊이 그들을 사랑할 것을 귀가 시리도록 주문하였다. 나는 대대를 지휘하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여긴 군대야!", "내가 중대장할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대원의 기(氣)를 빼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슴보다 머리로 지휘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본다.

아울러 "리더는 말보다 행동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모름지기 리더가 열린 마음으로 부하들을 대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혼(魂)을 담아 지휘한다면 부하들은 감동하여 임무완수에 자발적으로 전력투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위대한 민족의 스승, 다산의 가르침처럼 말이다.

세 번째는 부하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감성형 리더'가 되라는 것이다.

다산은 당시의 다스리는 자(목민관)-다스림을 받는 자(백성)의 구조에서 백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목민관의 책무와 백성의 권리를 각성시키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목민관은 백성을 계도하거나 다스리기 이전에 거두어주고 길러야 한다"는 것을 따갑도록 역설했다.

나는 어떤가? 감성이 어우러진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부하들을 주관을 뒤흔기고 전자계산기를 누르듯 다루지는 않았는가? 부하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진급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단기적인 업무 성과에 급급하여 부하를 마음으로 통솔하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지휘하지는 않았는가?

개인적인 꿈과 비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부하가 부대 임무에도 자발적으로 참

여하며 일의 성취도 또한 높다. 내 부하들과 조선 후기의 백성들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길러라"는 다산의 가르침처럼 부하들의 꿈과 비전, 인생의 목표를 알아주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리더가 된다면 멀지 않아 그들이 리더와 조직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임무에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능력을 겸비한 가운데 현장에서 행동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라는 것이다.

다산은 경학을 통해 수기(修己), 즉 자기의 인간됨의 완성을 위해 수양하고, 경세학으로 치인(治人), 즉 완성된 인격과 능력으로 천하와 국가를 경영(세상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조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治裝)에서 다산은 "요즘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책력 이외의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에 넣지 않는다"라고 꼬집으면서 책을 한 수레 싣고 수령으로 부임위해 수양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또한 수령은 이(吏)·호(戶)·예(禮)·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자기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호전(戶典) 편에서는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하고 백성이 세미를 바치는 날에는 아전에게 맡기지 말고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목민관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See), 손으로 만져보고(Touch), 발로 걸어보고(Walk), 직접 체험해 보는(Experience) 현장 경영,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것이다. 지방 행정의 많은 부분들이 아전의 술수에 좌지우지되었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목민관과 지휘관이 다를 바 없다. 내가 임관 후부터 군인으로서 살아 왔던 삶의 궤적들이 그다지 손색이 없다고 느껴왔건만 다산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가는 삶의 허물들을 겸허하게 반성해 본다. 200년 전 혼탁한 조선 후기 시대의 사회환경에서 고도의 인격과 직무지식으로 무장하고 현장에서 발로 뛸 것을 따갑게 주문했던 다산의 해안과 통찰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던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자. 어설픈 상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담금질하자. 부하와 부대에 대한 애정 어린 눈과 냉철한 시각으로 현장에서 끊임없는 질문으로 답을 구하자. 가장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솔선수범하자. 그리고 대대의 중간 리더는 물론 부하들에게도 다산의 바이러스를 퍼트리자.

다산 정신! 이제 충일부대와 남양주의 숲에서 대한민국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결정을 찾고, 그 의미를 새겨보자는 취지에 따라 각 대학교수, 연구원, 재야 역사학자 100여 명이 중심이 되어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108가지를 선정하여 최근에 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아쉽게도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 다소 부질없는 생각일지는 몰라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을 유배하지 않았더라면 조선 후기는 물론 근대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한 시대가 다산이라는 위대한 인재를 알아주지 못함으로써 조선 후기 이후의 역사가 치른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라.

나는 한 때 가장 정직한 정치 교과서이니, 5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 리더들의 지침서이니 운운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탐독하고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었다. 그는 군주론에서 "권력은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여우와 같은 간사한 지혜(책략)와 사자와 같은 힘(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의가 두렵고 종교심도 많으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가 이러한 군주론을 애지중지 하면서 탐독해 왔다는 것 또한 큰 부끄러움이요, 허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는 다산의 벗이 되었고, 목민심서는 어떤 칼바람에도 군의 지휘통솔자로서 나를 지탱해 줄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현대의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해묵은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을 거둬내고 그 자리에 다산주의(Dasanism)를 채워 넣자.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를 '나의 친구! 다산'으로 바꾸자. 한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곁에서,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 깊이 그들을 사랑했던 위대한 휴머니스트 다산!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없으나 그의 힘과 정신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밝고 희망차게 조명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목민심서를 통해서 말이다.

다산의 위대한 힘과 정신이 우리 충일부대와 남양주의 숲에서 퍼져나가 우리 군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밝게 비취질 날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다산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다산을 주목하게 하고 목민심서에 눈과 귀를 열게 해 주신 사단장님께 감사드린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1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중대장으로서 가지고 지켜야할 다산사상(茶山思想)

제205보병연대 3대대 12중대장

대 위 도 기 완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인 경세제민이 근간에 흐르고 있는 역작이다. 이 목민심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목민관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부임육조에서부터 해관 육조까지 총 12개의 조문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 목민심서에 나와있는 12개의 조문은 오늘날 공직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12개의 조문은 선생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자세이며,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고민하는 애민의 정신의 집약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산사상은 군인이라면 반드시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며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부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본정신은 경세제민이라고 앞에서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중대장으로서 그리고 육군의 장교로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목민심서에 비추어 보면 이 근간이 되는 정신은 중대장으로서 부대를 잘 지휘하고, 중대원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대를 잘 지휘하는 것은 중대원들을 편안하게만 하여 잘 먹고, 잘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방침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게 지휘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후 정비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대급 부대는 기본 전투 단위 부대이며 이는 행동화하는 부대를 의미한다. 이에 중대급 부대는 행동화된 전투준비가 주된 임무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유사시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영(令)이 확립된 지휘체계 보장, 비전투 손실 예방 및 물자·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목민심서에 흐르는 다산사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대장이 가져야 할 기본정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중대장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전투력 발휘의 창끝 역할을 하므로 나의 중대가 내가 내 마음대로 지휘하는 중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임관 사령장을 받은 육군의 장교가 육군으로부터 너는 이 부대를 지휘해라고 임무를 받아 부대의 전투력을 격상시킬 책임을 받았다. 즉 나의 중

대는 내 중대가 아니라 국가가 19 개월 동안 나에게 잠시 지휘권을 주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이 중대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이는 부임육조에 흐르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대장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율기육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상 나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부터 바르게 하여야지만 중대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명령을 따를 것이며, 전이나 유사시에 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대장 자신이 문란하게 생활하며, 상급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 하며 뒤돌아서서는 휴지 조각 버리듯 그 명령을 무시해버린다면 이는 나의 중대원들도 나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또한 봉공육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항상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규정과 방침에 따라 근무하며, 모든 보고서는 중대장 자신이 직접 작성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가 나에게 준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허물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목민심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대장으로서 또한 장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일 것이다.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중대장으로서 병전 육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병전 육조에 그 당시 군대의 실상에 대해 나와있는 것을 살펴보면 오와 열을 유지하는 것이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쌀과 포목을 걷기 위한 것이 실지의 목적이라 하였다. 이는 최근에 우리 군의 일부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교육훈련의 형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이 아닌 단지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내용의 수준이 아닌 단지 교육을 했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잘못된 교육훈련은 과거의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적한바와 같이 올바른 군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강력한 쇄뇌를 장치고 쏘는 법을 익히지 않아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통해 실전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편제화기에 대해 조작능력은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다. 이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과연 나는 과거의 관리들과 같이 훈련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훈련에 임한적은 없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실전적인 훈련에 부합되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역 중대원들은 매일매일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며, 완편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조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令)이 확립된 부대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병전 육조에 나와 있으며, 형전 육조에도 영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인 신상필벌에 대해 잘 나와 있다. 기와 북으로 하는 호령에 따라 나아가고 정지하고 나뉘고 합치는 법만은 마땅히 상세하고 익숙하게 연습해야 하며, 모든 형벌은 규정과 방침에 따라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영(令)을 확립할 수 있는 부대 지휘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훈련 소요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내실있게 시행하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였다. 중대장은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솜을 확립하는데 노력해야만 하고 나 스스로도 영(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인복무규율을 체득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전투 손실예방에 대해서는 애민 육조에 잘 나와 있다. 애민육조의 내용이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중대원

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중대장으로서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중대원들을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나를 배제한채 그들만의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사랑한다면 나의 중대는 나에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훈련이 어렵다고 해서 이 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 훈련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인원들에 대해 중대장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 해 주는 것이 중대장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대장이 먼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며, 이렇게 한다면, 급작스러운 훈련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나, 평상시 되어있지 않은 훈련 수준을 중대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어 질 것이다. 또한 중대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중대원들이 중대장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시기적절하며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자·장비를 전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비하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대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전시에 투입될 전투진지를 관리하는 것 역시 축성에 비유되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사단의 특성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보다 정비하고 관리해야 할 장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중대장이 눈 앞에 있는 것만 관리한다면, 실제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눈 앞에 적이 있고, 손에는 화기가 있는데 사격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전투 진지 역시 사단의 특성상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춘·추계에 한 번씩 있는 진지공사시에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중대장이 사계는 잘 나오는지 중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치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중대원은 하나지만 이들은 둘로 나뉘어진다. 한 중대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함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지휘를 받는 현역 중대원들이다. 다른 중대원들은 1년에 2박 3일 얼굴을 보며 평상시에는 완편 명부나 온라인상으로 보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는 예비역 중대원들이다. 그러므로 예비역 중대원들이 모두 집합을 하여 교육훈련을 하며, 점호 행사를 하며 중대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2박 3일의 짧은 기간뿐이다. 1년 중 362일은 나의 중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중대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나 실천적인 교육훈련과 영(令)이 확립된 지휘 체계 확립 그리고 비전투 손실예방과 장비·물자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다산 선생이 말하는 목민관으로서, 육군의 장교로서 더 조심해야 할 지 모른다. 이들은 군을 전역한 인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원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2박 3일의 짧은 훈련 기간만으로 군대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릴 지도 모르며,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앞에 서있는 중대장의 모습으로 거의 대부분을 평가해버릴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적인 훈련을 같이 한다면 이들은 앞에서는 불평불만을 가질지는 모르나, 훈련을 끝내고 가정으로 복귀하고 나서는 오히려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민심서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일지 모르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일지도 모르며, 해관육조에 나와 있는 다산의 사상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민심서를 읽는 동안 과거 병적을 작성하여 이들을 수시로 집합시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병전 육조에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을 읽으면서 우리의 전시 완편 명부 작성과 동원훈련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동원 예비군에 편성 되지 않으려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과연 나의 얼굴없는 중대원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는가라는 반성도 해보았다. 나의 행동이 과거 잘못된 행동을 하는 향리와 닮지는 않았는가라는 자문도 해보았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여야 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다.

현재 군 간부들의 행동에 지침이 되는 것은 많다. 각자의 임무와 직책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방침이 있으며, 군인으로서 기본이 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이 있으며, 육군의 5대 가치관인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도 있다. 우리 군이 창군할 당시 많은 제도와 규정을 미군에서 본받아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번 목민심서 탐독의 기회는 나에게 선조의 현명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읽는 동안 얼굴이 많이 붉어졌는데, 이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는 내가 앞에서 쓴 것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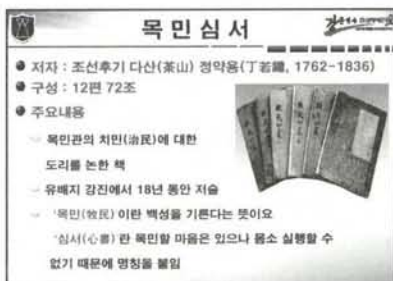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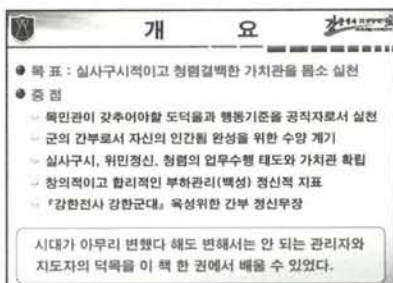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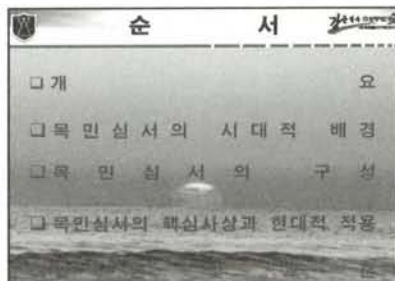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하며, 그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군에서 내가 배운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정과 방침이 있고, 생각과 가치관에 해당되는 군인복무규율과 5대 가치관이 있지만, 이번 목민심서 탐독을 통해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좀 더 구체적인 다산의 사상을 접목 시켜 한 단계 더 격상된 군인이자 장교로서 그리고 중대장으로서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1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작전과장

소령 한성진



다산 정약용 일화 소개

강진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중

- 큰 아들이 아버지의 고초를 보다 못해, 모친을 이들과 화해를 간청
- 다산 선생이 말하기를
 - "세상에 두 가지 큰 기준은 첫째는 옳고 그름이요, 둘째는 이익과 손해다.
 - 여기에는 네 가지 양상이 있는데
 - 첫째는, 옳음을 지키고 이익을 얻는 것이요,
 - 둘째는, 옳음을 지키고 손해를 보는 것이요,
 - 셋째는, 그름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요,
 - 넷째는, 그름을 좇아 손해를 보는 것이다.
 - 그들은 강고하다가 이를 대 없는데 그름을 좇아 이익을 얻자는 것은

목민심서의 시대적 배경

다산의 성장기

- 영록, 7세에 시를 짓고, 10세부터 과에 공부 시작
- 15세에 학운형성의 스승인 실학의 선구자 성호 이익을 만남
- 22세 진사시열 합격, 33세 경기 알현서사, 학문적 스승 정호 만남

청정

- 정조가 서거, 순조가 즉위 하면서 신유교난 현주교 탄압사건
- 18년간 유배생활 : 포항 - 강진 등(당시 42세)
- 다산 초당(강진 유배지) : 목민심서, 경제유포 등 저술
- 말주자학적 삼학체계 구축 및 실학의 집대성 : 실사구시

사회, 경제

-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망한 이후 사회, 경제적 질서 붕괴
- 주자학의 권위주의적 공론으로 탐관오리의 폭압, 폭정 난무
- 사회 현실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풍 형성

❖ 색어가는 국가의 대를 보듬 새롭게 바꾸고
허물어진 주춧돌을 단단히 개는대 평생을 바침

목민심서의 특징

- 이 책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지방행정의 원리는
- 관(官)의 입장에 서서 논한 것이 아니라 민(民)의 입장에서
- 관의 힘포와 부정부패를 폭로, 고발, 탄핵, 경계하고 있으며
-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일반 인사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함

자기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읍민수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

목민심서의 구성

12권 72편

1권 4편 : 목민관의 기본자세

2권 10편 : 목민관의 실천 정책

3권 12편 : 수령의 실무와 교제 과정

강진 유배지 작문방 사의재(政宜齋) : 생각을 담백하게 하고,
언어를 장엄하게 하고, 언어를 광학하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

목민심서의 구성(1/3)

목민관의 기본자세

부일 6조

1. 일명
2. 행장을 꾸림
3. 인사
4. 부일 행차
5. 부일
6. 입부

물기 6조

1. 바론 물가질
2. 청렴한 마음
3. 집안을 다스림
4. 손을 물러짐
5. 절박
6. 기뻐이 베풀

풍광 6조

1. 덕화를 품
2. 법률 지킴
3. 예의로 교제함
4. 공론서
5. 세균
6. 근로

예반 6조

1. 양로(養老)
2. 어린이를 보살핌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4. 상사를 숭배함(哀恤)
5. 병자를 돌봄
6. 재난을 구제함

목민관의 실천정책(2/3)

이전 6조

1. 아전단속
2. 관속들을 통솔함
3. 사형사기
4. 인재의 추천
5. 물정을 살핌
6. 고과제도

호전 6조

1. 전쟁
2. 세법
3. 한국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6. 농사 권장

예전 6조

1. 제사
2. 손님 접대
3. 백성을 가르침
4. 교육용 진흥사업
5. 신분 구별
6. 과거 공부를 힘쓰도록 함

방전 6조

1. 병역 의무자 선정
2. 군사훈련
3. 병기 수선
4. 무예 권장
5. 편찬에 대응하는 법
6. 외침을 막아내기

형전 6조

1. 송사 심리
2. 형사사건 판결
3. 형벌을 신중하게 함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5. 백성 축복근심
6. 도둑의 피해 제거

공전 6조

1. 산형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목민심서의 구성(3/3)

수령의 실무와 교제 과정

전장 6조

1. 구출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
6. 마무리

핵심 6조

1. 임무교대
2. 떠날 때의 행정
3.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함
4. 백성들이 응시하기를 힘
5. 일지에서 죽음
6. 덕장의 사랑

지방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 총 망라

목민심서의 핵심사상과 현대적 해석과 군생활 적용

다산 기념관 : 『목민심서』의 열 구절이 적힌 돌판으로 장식

1편 부임 6조(1/3)

수령이 임명된 받고 입지에 가서 처음으로 수령의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할 일

구 성

1	입	명
2	명	장
3	인	사
4	부	임
5	부	일
6	입	무

1편 부임 6조(2/3)

● 핵심사상

한 명

- 다른 벼슬은 구해서 얻어도 좋지만 목민관은 구해서는 안된다.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

관리를 두임

-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
- 모른다면 모범이 됨, 따라서 부임 시부터 겸손한 자세

인 사

- 신임 수령을 환영하는 예절에서도 백성에 대해 경중을 안배
- 행정 예술(안구, 웃김, 지체)을 신학에게 음, 이역시 안됨

부임행차

- 나라에서 주는 벼슬 외에는 한문도 백성의 손을 받아서는 안됨
- 관마상(수령 행차에 위세를 높이는 것) : 매우 싫어 함

부 임

- 수령 통치시 관은 반드시 본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하는 안됨
- 민간에 발행하는 것은 육전 36개조항의 규정을 확인 / 감사

한 무

- 일을 처리 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
-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

1편 부임 6조(3/3)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간 군부로서 임관 후(지휘관 취임 후)
- 처음의 청렴의 마음을 잃지 않고 군의 재산(예산)을 절대로
- 개인의 사사로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됨

준수해야 할 사항

- 규정한 책정
- 겸손한 책정과 규정한 직종 행사
- 공정한 문명비 집행
- 공과 사의 구분
- 최후구조의 실상 확인

하지 않아야 할 사항

- 사제 책정 / 불바르지 않게 책정
- 사치스러운 책정과 불필요 관행
- 관청이, 시키는 대로 해!
- 공사의 구분 없음
- 삼부 지향적 근무자세

2편 율기 6조(1/3)

율기는 율을 다스리는 원칙으로서 이 편에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원칙을 담고 있음

구 성

1	바	준	가	질
2	정	범	한	마
3	집	안	줄	다
4	손	을	을	리
5	일			악
6	기	커	이	배

2편 올기 6조(2/3) 목민관의 기본지식

● **핵심 사상**

- **배운 열거**
 - 학공(學公 단속함) : 절도, 단정, 장중 / 옛사람의 도와 일치를 위함 :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킴
- **행위를 마음**
 - 행함은 수령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선왕의 군침, 모든덕행의 뿌리가 되며, 모든 잘못된 전례는 바로 잡아야 함
- **집안일 디스립**
 - 수신제가 차국 행전하(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 공과 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법을 세워 지킴
- **손을 멀리함**
 - 병역(兵勇을 멀리 함) : 군부에 손님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가난한 친구와 만공한 친족은 후하게 대우하여 보내야 함
- **말 씌**
 - 수령 노릇을 할 때는 반드시 자애스럽고, 정정해야 하며
형평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엄박해야 함(가장 우선 일무)
- **가이이 백**
 - 낚시(물거미 물줄기로 도라함) : 가난한 자를 찾아서 도와줌
단, 관문가는 후하게 씌어서는 안 함

2편 올기 6조(3/3) 목민관의 기본지식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군 간부로서 임관 후의 몸가짐은
 - 어항숙의 금봉어 처럼 항상 내 부하가 나를 바람됨을 인식하고
 - 부하와 상관에 인정받기 위해 바른 몸가짐을 위해 노력

준수해야 할 사항

- 절도와 위법
- 술기와 쾌기
- 군정질책, 부하복지 도모
- 건전한 여가 및 가정 생활
- 일과이후 건전한 사생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이종친척, 미기주위
- 문행비의 사적 사용
- 한행주의, 뇌물 수수, 형책
- 희식도 일무의 연장이며!
- 2차는 거론, 술 절박으로 절도 절제

3편 봉공 6조(1/3) 목민관의 기본지식

봉공은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뜻으로서
이 편에는 수령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복무규율로서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을 다룸

구 신

1 덕 화 례

2 법 률 자 칙

3 예 의 료 교 재 함

4 공 문 서 (보 고 서)

5 세 금 (공 물 바 치 기)

6 근 로 (차 출 되 는 일)

3편 봉공 6조(2/3) 목민관의 기본지식

● **핵심 사상**

- **덕화 함**
 - 철학 : 왕궁을 멀리 우리로 보아 하례 하는 일
 - 양위 : 국상 시 수령이 왕궁을 향하여 조위의 뜻을 표하는 예법
- **법률 지킴**
 - 수법 : 법이란 임금의 명령, 법률 만지킴은 곧 명명 위반
한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나라의 법전을 살펴야 함
- **예의로 교재함**
 - 예제 : 예를 바로게 하여 남과 접촉하는 것, 군자가 지켜야 할 일
이웃 그들과의 친목하고 예로서 접촉하면 허물이 적을 것
- **공문서**
 - 목민관은 어려운 공문서를 백성이 쉽게 이해하도록 일러줘야 함
 - 예규상 보고 기밀 문서, 사무간소화, 백성관련 일은 직결작성 등
- **세금**
 - 재물은 백성에게 나오고, 받아서 바치는 자는 수령이다
관납과 같은 세금은 공평하게 징수하여 아전들의 부정을 방지
- **근로**
 - 요역(방에 가서 일하는 것) : 상사가 출장을 명할
상사는 만물 편함이 있고, 수령은 그것에 순종 할 의무가 있다

3편 봉공 6조(3/3) 목민관의 기본지식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간부라고 해서 규정과 방침을 미 준수해도 되는 것은 아님
- 먼저 술선수법, 지휘관에 충성하고 부하에 대한 인격존중
- 상급부대(지휘관)의 의도를 부하들에게 알려주고 적극 시행

준수해야 할 사항

- 제 규정준수 : 군민복무규율
- 군대예절, 영의 확립
- 일문바 직무에 충실, 정통
- 공정한 업무수행, 행정 간소화
- 공정한 부대원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
- 규정대로 하면 되는게 없애!
- 병영생활 지침서 미준수
- 남에게 물어내기 위한 업무수행
- 불필요한 행정서류 작성

4편 애민 6조(1/3) 목민관의 기본지식

애민은 수령이 백성을 보살피는 일 즉, 노민을 구원하고
어려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난과 질병에 대처 하는 일

구 신

1 양 보 (노 민 구 원)

2 어 민 이 례 보 살 함

3 가 난 한 자 례 구 제 함

4 상 사 례 술 피 함

5 병 자 례 돌 보 함

6 재 난 을 구 제 함

4편 애민 6조(2/3) 독민권의 기본지식

● **핵심 사항**

- ▶ **양로** : 수형은 일년에 한번 출가전에 60세이상 노인 초형 행사
- ▶ **백성의 목자가 된 수형은 양로의 예를 거하지 않아서는 안됨**
- ▶ **자유** :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본 선생의 군 경사로 임금의 방명 간음으로 인해 일본 아이가 출산 개탄에 버려짐 : 입양 허락
- ▶ **4종물 구제** : 흙이비, 과부, 고마, 노인
- ▶ **스스로 밀치고 일어설 수 없는자를 대려다가 재산을 주고 도움**
- ▶ **상사(喪事)에 예도** : 표하는 것은 백성의 수형한 자의 도리
- ▶ **길가에 죽은자도 묻어주는대** : 하늘에 백성의 부모원자 마땅함
- ▶ **배달이나 목질에 일러 제함으로 삼기** : 아려로 자는 살길을 막힌
- ▶ **명통어 가난한자** : 악이 없도록 관에서 악을 내주어야 함
- ▶ **수재, 학재** : 둘 100호 미만이면 전제를 사고하여 구제 한다
- ▶ **장래의 흉년 예방** : 물파기는 경지로, 큰 고를은 제방 꼭 쌓기 등

4편 애민 6조(3/3) 독민권의 기본지식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 약조건하에 임무수행중인 격오지, 독립부대, 특수 근무자와
- ▶ 어려운 형편에 충실히 임무수행중인 부하의 복지를 도모하고
- ▶ 하절기 재해예방, 동계 안전사고 등 국민의 군대로서 재난예방

준수해야 할 사항

- 학전·근무기간 순발행동 잘하기
- 연말 연시 불우전우 돕기
- 의무대, 화관, 총상물립 등 순찰
- 하절기 재해예방 공사/대책 강구
- 동절기 화재, 동파 등 대책 강구

하지 않아야 할 사항

- 의례적, 형식적인 순발행동
- 일과 이후 당직근무자의 무책임
- 말년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 신상관리 혁명 노력
- 학계, 동계 기상에 지휘조치 미흡

5편 이전 6조(1/3) 독민권의 실천방법

이전 편 부타 공전편 까지는 각편의 세부영역을 설명 한
호(戶), 예(例), 병(兵), 형(刑), 공(工) 육방의 업무로서
이전 편 인시에 관계 되는 일을 말 함

1	아	구	선	속
2	관	속	물	을
3	사	함	쓰	기
4	인	재	의	추
5	관	정	물	살
6	고	과	계	도

5편 이전 6조(2/3) 독민권의 실천방법

● **핵심 사항**

- ▶ **이전단속** : 이전단속은 자신의 일을 규율하는데 달의 있다 학문이 뛰어나도 자신의 몸이 바르지 않으면 바둑 명장해도 시합되지 않을 것임
- ▶ **관속 정속** : 관리가 정기를 대리고 술을 마시는 일은 정물에 자숙되는 행위
- ▶ **예로** : 일사를 세우고 은영으로 대우하라, 마음 내키는 대로하면 안됨
- ▶ **사람 쓰기** : 부합한지 무어일 되면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책상위에 놓음
- ▶ **능력** : 관교, 우직을 실력하고 공행하고 기복관원의 정복 시도
- ▶ **인재 추천** : 용인 : 나하론 잘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잘 통용하는 데 있다
- ▶ **거친(이전단속) 전거함** : 한없는 사람을 전거하는 것이 수형의 지책
- ▶ **물정물 살림** : 수형은 혼자서 고집, 한 힘상 받은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이다
- ▶ **수형은 잘 전마다** : 행통 한번도 경솔히 해서는 안됨(미행은 안됨)
- ▶ **고과제도** : 공적을 고사하지 않으면 역성들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 ▶ **신상정리** : 공 있는자 상주고, 죄 있는자 반드시 벌함

5편 이전 6조(3/3) 독민권의 실천방법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 간부의 인사관리는 학전, 지전, 혈전에 연연하면 안되고
- ▶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 하여
- ▶ 간부(지휘관)으로서 술선수범하여 부하의 모범이 되어야 함

준수해야 할 사항

- 공정한 인사관리 / 보직 심의
- 적재적소, 올바른 평정문화
- 간부의 술선수범
- 리더십, 조직관리 및 부하관리
- 공정한 신상발령

하지 않아야 할 사항

- 불공정한 인사관리(학박)
- 대충 집한다고 쓰면 되지!
- 일로써 자취하는 간부
- 조직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
- 자 간부는 인간성이 문제야!

6편 호전 6조(1/3) 독민권의 실천방법

이전 편 부타 공전편 까지는 각편의 세부영역을 설명 한
이(吏), 예(例), 병(兵), 형(刑), 공(工) 육방의 업무로서
호전편은 세법에 관한 중요한 일을 말 함

1	전	경
2	세	법
3	관	의
4	조	장
5	부	부
6	역	역
7	물	물
8	공	공
9	평	평
10	하	하
11	계	계
12	할	할
13	장	장

8편 병전 6조(2/3) 독민권의 실천정책

● 핵심사상

- 병역 의무론: 병역 의무자를 선정하여 병역에 상응하는 것
병역 면제를 위한 군로(洞路) 수납 부정을 적절하여 병상 위함
- 군사 훈련: 연중(군사를 훈련 시키는 일) : 수량이 참히 병법을 가르침
이전과 관노의 훈련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 병기 수선: 병기는 백년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루라도 정비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병기를 수리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인 것이다
- 무예 권장: 무리의 풍속은 부도덕한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익히는
것은 불쏘기 뿐인데 요즘은 그것도 익히지 않으니 무예를 권장 함
- 병란 대응: 뜻밖의 병고에 임기응변의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함
유언하여, 민심교란, 투사, 강도 등 백성의 불안한 마음 안정
- 지침 학기: 병법에 '하' 하면서 실 한갓처럼 보이고 실 하면서 하 한갓처럼
보이게 하라 '병란이 있을때 책을 읽고 지팡을 지게야 한다

8편 병전 6조(3/3) 독민권의 실천정책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응 방안

- 부대의 안위를 책임지는 간부(지휘관)로서 책무를 다함
- 고급간부 부대 지휘능력과 초급간부 부하지도능력 구비
- 전투준비를 위한 심전과 같은 교육훈련 태진

준수해야 할 사항

- 가속의 병역의 의무를 다함
- 미래를 준비하는 간부교육
- 고급간부 통합전투수행 능력
- 초급간부 부하지도 능력
- 직책별 교육훈련, 부대관리 업무

하지 않아야 할 사항

- 참전적 병역의 의무 미 이행
- 이 나이에 무슨, 시키는 거나 할까
- 형단장비, 신교리 미 적용
- 철석적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 교관 연구 미흡

9편 형전 6조(1/3) 독민권의 실천정책

이전 편 부단 공정한 제치는 각형의 새부담을 실을 함
이(吏)는 호(戶), 호(戶), 호(戶), 호(戶) : 공(工) 육성의 입부로서
영원한 은 모든 정열(情) 공경하고 정당한 지리를 할 함

구	성	리
1	형 사 사 건 관 결	
2	형 벌 물 신 준 하 게 솜	
3	회 수 물 불 양 하 여 집	
4	백 성 의 폭 혁 근 절	
5	도 적 의 회 폐 재 거	

9편 형전 6조(2/3) 독민권의 실천정책

● 핵심사상

- 송사 처리: 송사를 들어 판단하는 근본은 정의에 있고 정의는 백성 인도
재판과 재판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을 신중히 하여야 함
- 형사사건 판결: 중대한 범죄를 판결하는 요점은 밝고 신중하게 하는 것 뿐임
백성의 죽고 살이 한번 생각에 달려있는데 어찌 신중 간하랴
- 형벌 적용: 형벌 시행은 민사(부패), 군사(남색), 군사(제사)의 상응 실시
남형(한계를 위반한 지나침 형벌)을 제시는 안된다
- 징수를 불행히 여김: 송수(회수를 불행히 여김) : 강박은 이 세상의 자책이다
눈먼이와 어둠이를 고문하지 않는것은 물의 조문에 실려 있다
- 백성 축적: 금포(罰金) : 존재하고 강성한 무리를 재해 하고 억압하며
포악한 백성들을 금지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 도적 처벌: 재해(災害) : 백성을 위하여 위태를 제거 하는 것은 수령의 할바
아 할바로 도둑, 갈취, 호랑이 만 안으면 백성의 근심은 덜어짐

9편 형전 6조(3/3) 독민권의 실천정책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응 방안

- 각종 규정과 방침의 준수는 물론이며
- 병역생활, 부대, 간부 상호간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 엄정한 신상징벌로 신의의 경경과 끝없이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준수해야 할 사항

- 준법정신, 주민정신
- 법치정신, 법치 의식소통
- 엄격한 신상징벌
- 병영 부조리 척결
- 징계위원회의 구성, 규정 준수

하지 않아야 할 사항

- 징계위원회의 미구성
- 한다 그만하면 재: 결론이 뭐야?
- 미윤적 징계 처리, 과도한 처벌
- 병영 부조리 관행과 하 처리
없어져 재 사고만 만나면 되지?

10편 공전 6조(1/3) 독민권의 실천정책

이전 편 부단 공정한 제치는 각형의 새부담을 실을 함
이(吏)는 호(戶), 호(戶), 호(戶), 호(戶) : 육(育) 육성의 입부로서
공정한 신을, 전(轉), 양(良), 도(道)의 형성에 대한 일을 할 함

구	성	리
1	산	림
2	수	리 사 업
3	관 아 건 물 수 리	
4	성 의 수 축 조 보 수	
5	도	로
6	관	작

10편 공전 6조(2/3)

● 핵심사상

- [illegible]

10편 공전 6조(3/3)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응 방안

- 안정된 병영시설 및 부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 계절적 거건과 경중환자를 고려 단기 조치사항 즉각 조치하며
- 문제점 발생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함

준수해야 할 사항

- 병영시설 정상화 가동 유지
- 전투장비 가동상태 점검
- 진지공사 물 전투준비 노력
- 재래, 화재, 원파 예방 노력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숙성

하자 알아야 할 사실

- 경영실시의 방지: 원래 그런거야
- 휴전 할 때 준비하면 돼
- 사전잠입 순시코스만 잡혀!
- 일사방언적 문제제기
- 여가, 빈도, 배회(회차, 회차)

11편 진화 6조(1/3)

마지막으로 진황과 해군의 두편은 수령의 실무에 속하는
반반구제와 수령의 일기 발표 과정을 적은것으로서
간략하면서도 재해기 난을 때의 대비책이 잘 나와 있

3

- 구출을 자행한 비
부자애게 베풀도록
세부개척
시행방
인생관점시키는 방법
마음

11편 진화 6조(2/3)

● 핵심사상

- | | |
|---------|--|
| 구호를 외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를 외치는 빈도를 구체화해 줄 것 ▶ 청중을 잘 아는 쪽이나 잘 아는 사람이 잘 외칠 것 |
| 무엇을 외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강화)이 수렴된 관세나 주제를 통해 강연에서 요구하는 구호를 잘 외칠 수 있도록 강연에 참여해 핵심의제를 잘강연하여 출산시켜 줄 것 |
| 대우가 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이 끝날때 강연에 연설을 독백하는 지 ▶ 출간되어 있는 사서의 강을 외쳐야 하는 지 철저한 대우를 할 것 |
| 사태가 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을 외쳐야 하는 두가지 지점: 시기와 규모 ▶ 핵을 외쳐야 하는 두가지 지점: 강도와 외쳐야 하는 규모 |
| 반대편이 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이 큰 제는 반드시 강연에서 제2기 주제를 포함할 것 ▶ 출산이 큰 제는 반드시 강연에서 제2기 주제를 포함할 것 |
| 대우가 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주제를 포함할 것 ▶ 제2기 주제를 포함할 것 |

11편 진황 6조(3/3)

● 현대적 해석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 병영내 복지시설(체육, 놀이, 동아리 등) 확충과 복지를 도모
- 하계 폭우와 동계 폭설 등 국민의 군대로서 대민지원 등
- 적극적인 의무지원 및 찾아가는 전투지원 활동

준수해야 할 사항

- 복지사업 정상 가동상태 유지
- 피부부노는하는 복지 향상
- 적극적인 대민지원
- 철저한 재해재난 대비계획 준비
- 향어가는 적극적인 전무지원활동

하지 밭아야 밭 사

- 고향난 복지시설 탐치
- 특수숙제 감수할 리악 갈래라!
- 기상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난대비
- 주는 대로 받아, 무슨 일이 있어!

12편 해관 6조(1/3)

마지막으로 전방과 해군의 두편은 수병의 실무에 속하는
병안구제와 수병의 임기 만료 과정을 작은것으로서
해관에서는 수병이 바뀌어 돌아갈 때의 태도와 처치 양

3

- 1 일 두 고 대
2 떠 날 때 의 행 장
3 백 성 들 이 어 울 기 를 원 함
4 백 성 들 이 용 서 하 기 를 빌
5 일 지 에 서 작 음
6 다 자 의 나

12편 해관 6조(2/3) 수행의 실무와 교훈

● 핵심 사상

- 임무고대**
 - 제대(謝代) : 벼슬이 떠날 때, 벼슬이란 반드시 제임 되는 것이다
 - 행위를 근본으로 벼슬을 사함하면 승벌의 경으로 물란간도 괴할
- 비남의 행**
 - 행한 벼슬을 입수록 임기 만료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을
 - 벼슬을 마칠때 받은 재산을 신고하면 재산의 비웃음과 함양
- 벼슬을 마칠 때**
 - 임무(臨去) : 벼슬들이 수행이 마치는 것을 제석해 할
 - 대왕에게 달려가 그를 유임 시켜주기를 빌어 임금과 통하게 될
- 벼슬을 마칠 때**
 - 임무(臨去) : 재직중에 죽어 벼슬들이 상어를 물고고 슬피한
 - 벼슬들의 물부리고 오세도록 잊지못하면 백민들의 유종의 미
- 임지에서 죽**
 - 문종(文宗) : 재직중에 죽어 벼슬들이 상어를 물고고 슬피한
 - 벼슬들의 물부리고 오세도록 잊지못하면 백민들의 유종의 미
- 행장의 사**
 - 사향에 있어 못해 수행의 상을 떠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할
 - 백민들이 고를을 떠나도 그가 남긴 자취는 남는 법이다

12편 해관 6조(3/3) 수행의 실무와 교훈

● 현대적 해석 및 생활 적용 방안

- 선심성, 인기관리 위주의 부하와 부대관리 지양하고
- 떠난 후에도 하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 보이기 위한 업무 실적형이 아닌 진정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 부대육성 분위기 조성

준수해야 할 사항

- 혁신적인 마인드, 창의적 수행
- 기를 살리는 리더십 지휘
- 예하부대 훈련 전념 여건 보충
- 근무상황을 고려한 실적적 출현
- 훈련은 고되게 전무는 없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자난변에 한대로 해
- 하리만 해! 이간 저간!
- 아 훈련실적 가지고 와 봐!
- 실한면 어떻게 하면... (말다치고)
- 사단장님 오시면 뭘 보이드리지

결론 및 교훈 수행의 실무와 교훈

실사구시적 기치권으로 정령결핵하고 직무에 정통한 진부

그 정령결핵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자신을 관리

그 정령결핵하고 실사구시적인 사고로, 업무에 중실

그 정령결핵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신과 헌신, 헌신

그 정령결핵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신과 헌신, 헌신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1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結者解之(결자해지)의 표본 牧民心書(목민심서)

제205보병연대 3대대 군기강담담당

중 사 변 차 식

우리나라 국민들의 1년 독서량은 1인 평균 0.3권이라고 한다. 나 또한 1년은 고수하고 26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탐독하고 정독한 책의 수량을 세어보라 한다면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사단장님의 지시 / 강조사항으로 다산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목민심서를 읽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신 덕분에 手不釋卷(수불석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

다산 정약용 선생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國史(국사)시간에 들어왔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實事求是(실사구시)사상, 수원성과 舉重機(거중기)제작 등으로 그저 유명하고 대단한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박석무(現 다산연구소 이사장)선생님의 초빙강연과 10월 다산문화제 참가, 교육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사이버 청렴교육, 상황보고 시 사단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다산사상 등을 견주어 볼 때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의 간부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인성이자 생활 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생활화해야 하는 삶의 眞理(진리)가 녹아있는 사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목민심서의 첫 페이지를 펴니 '근세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참모습, 그리고 관리의 부패와 횡포가 어떠했으며 서민들의 고통과 염원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다산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목민심서의 옮긴이는 말하고 있다.

군의 간부를 官吏(관리)라 칭하고 우리 兵士(병사)들을 서민이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였다. 글귀 하나하나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 군의 현실태와 간부로서의 내 모습을 매칭(matching)하며 읽으니 조금은 사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茶山(다산) 선생의 저서는 방대하고 다양하지만, 저서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일치된 정신은 經世濟民(경세제민)이다. 즉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는데 다산 선생님의 뚜렷한 애국 / 애민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라 생각한다. 이런 정신을 저서로 내기까지 많은 경험과 견문을 쌓았으므로, 이 내용이 결코 실속 없는 설교에 그치거나 억지로 갖다 붙인 헛된 논리나 추측에 흐르지 않고 조목마다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다.

일찍이 수령을 지내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失政(실정)을 보았고, 정조의 어명으로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본 일도 있었다. 또 전라남도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중 지방 관리의 횡포와 무능함, 그리고 아전의 농간과 농민의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을 많이 보고 들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목민심서』는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한 저서로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두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간부는 지방의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수령들에 비유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책에는 총 12가지의 분야로 공직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중 몸소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알고 지켜야 할 사상에 대하여 느낀 바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赴任六條(부임육조) :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수령의 사무를 처리하기까지 명심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하사, 소위, 전입간부 등 누구나 처음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나름이다. 이러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군 생활을 시작한다면 목적지가 없이 드넓은 사막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作心三日(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年初(연초) 모든 사람들이 새해의 계획을 세우듯 부임, 취임, 전입 후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심삼일도 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듯이 쉽사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律己六條(율기육조) : 자기의 몸을 단속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군의 간부로서 개인 신상 및 외모, 사생활 등은 자신과 가장 먼저 지키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image)이며 부하들도 하여금 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지휘관의 임무부여와 책임 부여 등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게으르고 뻔질거리는 간부와, 착실하고 복명하는 부하가 있다면 누구에게 임무를 주겠으며 인정을 더 하겠는가? 이는 개인 사생활과도 연계된다고 생각한다.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간부와 일과만 끝나면 酒色(주색)을 일삼는 간부 중 누가 신뢰가 높고 본받을만한 사람이 되겠는가? 불필요하게 몸을 치장하거나 복명하지 않고 주색을 일삼는 간부는 반성이 조속히 요구된다.

奉公六條(봉공육조) : 수령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복무 기율이라는 의미이

다. 우리 육군이 강조하는 5대 가치관을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이다.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이 5가지 가치관이 정립된 가운데 우리는 추가적인 복무기율을 세우고 실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실하여야지만 완벽한 건축물을 완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 5가지 사항이 모두 자기 몸에 스며들었을 때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의 간부로서 나라와 상급지휘관에 대하여 충성하여야 하고,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과오와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군의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복무 규율이라던지 복안을 가지고 군생활에 임한다면 이 어찌 錦上添花(금상첨화)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愛民六條(애민육조) : 수령이 백성을 보살피는 일, 곧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난과 질병에 대처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많게는 수백명, 적게는 한두 명의 병사들과 同苦同樂(동고동락)을 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는 병사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개인신상에는 어떠한 변동이 생겼는지 등의 關心(관심)이 가장 중요한 治(치)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내 부하가 내 전우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현재 느끼는 심정이 어떠한지, 임무를 부여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명하는지 등의 모든 정황을 생각하며 때로는 易地思之(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보다 상급자에게는 忠信(충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급자에게는 恭敬(공경)받을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不信(불신)과 背信(배신), 背反(배반) 등은 사라지는 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된다.

吏典六條(이전육조) : 인사에 관계되는 일들을 말한다. 대대 군기강 담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吏典六條(이전육조)에 대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느낀 바도 많았다. 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지, 學緣(학연), 地緣(지연), 血緣(혈연)을 생각하며 처리한 적은 없었는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눈감아주지는 않았는지 등의 상황이 뇌리를 스쳤다. 지난 5년이 넘도록 인사업무를 하면서 병력들의 사기증진과 복지대책 강구를 한다는 임무를 핑계로 한아 내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 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신은 지난 시간동안 '눈 뜬 장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반성을 하였고 병력들의 신상필별과 사기증진, 상급자에 대한 보고 체계 확립을 통해 스스로에게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解官六條(해관육조) : 수령이 바뀌어 돌아갈 때의 태도와 그 뒤에 남긴 치적이라는 의미이다. 내가 현재 임무수행하고 있는 군기강 담당관이라는 보직은 언젠가는 마치게 되어있다. 5년 여간 임무수행을 했던 인사업무를 다른 이에게 인계함에 있어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당당하게 후임자에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사분야 동향, 업무 간 특이사항, 규정 및 방침, 예산 / 회계 분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상 없이 인계하여야만 전·후임자 모두가 얼굴을 붉히지

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전임자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발전시켜 그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虎死留皮(호사유피) 人死留名(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듯 어떤 자리가 되었던 떠난 후 전임자에 대한 신뢰와 인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어느날 식사를 하시며 나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結草報恩(결초보은)은 못할망정 背恩忘德(배은망덕)은 해서는 안된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누군가의 고마움(도움)에 대하여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배신을 한다거나 실망을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 것 중 아버지의 이 한 말씀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의 나는 우리 병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다.

이기주의, 님비현상 등 각박해진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이다. 다산의 사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나라일을 하는 공직자는 혼자만이 생각하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祿(녹)을 먹는것이 아니고 민생의 안정과 평안,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통해 그 무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며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 고마움의 礎石(초석)은 清廉(청렴)과 易地思之(역지사지)가 근본이라는 소견을 밝히는 바이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통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나라의 祿(녹)을 먹는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산 사상을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사단장님의 의도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1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 군인의 길을 걷는 것..

포병연대 교육장교

중위 조 정 환

'목민심서'란 책을 읽으며, 내가 느낀것들과 느낀점들을 토대로 내 인생 곧, 공직자로써의 삶군인으로써의 삶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를 상당부분 깨닫게 되었다.

어렸을적 정약용이란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위인전이라던지,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게 쉽게 풀이되어있는 소셜 목민심서를 접해보았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의미하는바가 어떤것인지, 알지 못했고, 책 많이 읽으라던 부모님의 권유로 그저 지나쳤던 한권의 책이었다. 하지만, 어느정도 나이가 들고, 세상물정을 조금씩 알아가며, 공직자로써의 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목민심서란 책은 분명 그냥 지나쳐갔던 어린시절의 책 한권이 아닌, 나에게 너무 나도 중요한 바이블이 되었다. 이 책에는 목민관들, 즉, 고을의 수령들이 지녀야할 품성과 그에 맞는 행동, 도리 등이 기술되어 있다. 무엇보다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본 내용들이 아닌, 정약용 자신이 뼈저리게 필요성을 느끼던 올바른 목민관의 모습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목민관들은 물론이요,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의 가치관과 올바른 품성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책 속에는 여러 가지 한자 글귀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 구절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큰 가르침이 되었던 몇 구절을 통해서 내가 느낀 감정들을 풀어가려한다.

毋多言(무다언)하며 毋暴怒(무폭노)하느니라. 라는 쉬운구절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갑작스레 화내지 말아야한다는 뜻이다. 부모님과 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구절 밑에 적혀져있는 해설이 무엇보다 먼저 와닿았다. 말이 많고, 갑자기 화를 낸다. 이것은 밑에 사람, 즉, 군대로 말하면, 병사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된다. 특히 지휘관이라하면, 더더욱 이러한 모습들을 갖지 말아야한다. 사회에는 이런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말이라도 5분이상 하

게되면, 그 말이 좋은말인지 모르게된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말이 많다보면, 그 많은 말 속에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나도 친하고 편한 병사들에게는 말이 많은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중에 내가 꼭 해야할 말은 몇마디가 안되는것 같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말로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지 않아야겠다는 어찌보면, 누구나가 쉽게 범하면서, 쉽게 고치려 하지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또한 갑자기 화를 내는것에 대해서 얘기하려 한다. 짧은 군생활이지만, 군인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가끔 보게된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그 잘못된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화를 내기 마련이다. 그 화를내는 모습은 내가 봤을 때 당연히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저건 불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한 적이있다. 내가 생각할 때 화를 내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섞여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화를 내는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절에서 나오듯 갑자기 화내고, 쉽게 화내는 것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며, 화를 많이 내지 않고 말로 잘 설득시켜도 따라오기 마련인, 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도 군생활을 하다보면, 나도 몰래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때마다 나 자신을 더욱 잘 다스리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겠다.

다음에 기억나는 구절은 凡吏奴所供(범리노소공)이 基無會計者(기무회계자)는 尤宜節用(유의절용)이니라. 라는 구절이다. 이것에 대한 해설은 관부에서 사용하는 모든물품은 어느것하나, 백성의 부담이 아닌것이 없다. 특히 관부에서 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백성의 부담이 더욱 큰 것이므로, 절약하여 사용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내가 꼬집어낸 한 단어는 바로 "절약"이다. 군생활간에 중요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밥, 내가 받는 월급, 내가 쓰는 모든 사무용품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듯 받고 쓰고 하고 있는것 같다. 군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신성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신성한 의무가 아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즉, 자신의 출세라던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택할 수 있는 직업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나 자신도 군인의 멋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군인을 선택한것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컸다.

"절약"이라는 단어에는 "아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군 생활을 하며, 신경쓰지 않으면, 쉽게 버려지는 것들, 전기, 수도, 기름, 종이 등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껴야 하는 것은, 바로 병사들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것들을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 병사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은 군 간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내가 쓰는 모든 것에 대해 절약하고, 특히 동생과도 같은 병사들을 잘 보살필 줄 아는 멋진 간부, 멋진 공직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깨닫게 해준 구절이다.

군 간부라면, 반드시 규정과 방침을 실천하고, 준법정신으로 무장해야하며, 그것을 적용하여, 부하들에게 신상필벌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준법정신 이러한 구절이 있다. 凡國法所禁(범국법소금)과 刑律所載(형률소재)는 宜慄慄危懼(의률률위

구)하여 毋敢冒犯(무감모범)이니라. 한가지 일을 당할 때 반드시 나라의 법전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법대로 처리하며, 절대로 그 죄를 덮어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내 부하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아무일 없었다는 듯 덮어두어 주면, 나중에는 규정과 방침이 모호해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과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부하에게는 가감없이 필벌을 해야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간부로써 또 상급자로써, 하급자로써의 위치에 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보고 있는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준법정신을 가지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만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된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이 준법정신이 결여로 일어난다. 음주운전사고, 성 군기 위반사고, 대상관 사고 등 규정과 방침 그리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 군인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이지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고의 불안감들이 곧곧에 내재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들이며, 반드시 뿌리뽑아야하는 군대 조직의 암과 같은 존재이다. 남은 군생활동안 준법정신을 지키고, 내 기분을 쫓아 군대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치닫게 하는 행동들을 삼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목민심서에 나온 여러 구절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꼈다. 특히 여러 내용중 내가 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먼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군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 시켜주었다. 그저 여러 직업 중 하나로써의 군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아주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의 한 일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나에게 커다란 보람도 안겨주었지만, 더불어 커다란 거룩한 부담도 안게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하고, 누구보다도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져야하며, 누구보다도, 건강한 육체와 사고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간부의 리더로써의 역할이다. 리더라 함은, 모든이들을 이끄는 사람이다. 군에서는 간부가 리더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간부라고 해서 모두가 리더는 아니고, 모두가 자기 밑의 하급자들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하며, 하급자들로 하여금 그 리더를 따르게 하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덕이 있어야한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엄하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타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자애로움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타락한 고을 수령들이 백성을 고통의 수령에 빠뜨리고, 간신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부도덕한 임금이 나라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하듯이, 리더의 역할은 그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사실을 머릿속이 아닌 가슴 깊이 생각하며, 나라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내가 얼마

나, 리더라는 직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 내가 엄청난 위치에 놓여진 사람이란걸 매일 인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보았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것이 부끄럽지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내가 현재 참모라는 위치에 있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나라는 사람에 의해 여러 가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하들이란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행동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싸움을 하는 싸움꾼으로써의 생각을 해본다. 싸움꾼이 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한다.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고을의 수령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분쟁에 시달리기에 사전에 곡식도 충분히 비축해놓고, 훈련을 통해 군사력도 키워야한다. 지금 분단의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제압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겪어야하는 군인이기에 평시에 교육훈련에 매진하여, 싸우는 기술을 익히고, 실전 상황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한다. 준비가 되지 않은 군인들은 자기자신도 지킬 수 없을뿐더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지킬 수 없다. 군인은 항상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야하며,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한다.

목민심서라는 책을 통해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과 연계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다. 연말연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틈틈이 책을 보며, 내가 공직자로서 살아가며, 놓치고 있는것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공직자와 군인이라는 위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며, 나라는 사람 또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라는 사람을 공직자, 군인, 리더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2009년 새해가 밝게 된다. 지금 느낀것 들을 잊지 않고, 새해에는 멋진 공직자, 멋진군인,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흘려야겠다. 과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억하며,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여러번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여, 일하는 효율적인 업무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는 과거의 책이 아닌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도 공직자들을 위한 영원한 바이블이 되어줄 것이다.

■ 군생활의 나침반이 된 목민심서

공병대대 본부중대

일병 김 태 용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을 해본 적 있는가.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게임이 되었다. 이 게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테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대라면 한번쯤은 '플레이'해 보았을 법 하다. 이 게임의 단순한 특징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우스를 통해서 어디로든지 '가라'고 명령하면 순순히 그리로 가고, '싸우라'하면 그 뜻대로 싸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복종은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있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모습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자라며, 생활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다. 이는 우리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임무의 올바른 완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복종할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라는 것이 쉽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는, 상관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상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어떻게 온전히 자발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고, 상관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어찌 결실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얼마 전 대대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목민심서'란 책은 올바른 목민관(牧民官), 즉 상관의 모습과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후기에 벼슬을 맡고 있는 관료들에게 민생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저술하신 책이다. 이 책에는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부터 할 일과, 그 후에 자기 관리며 기초적인 규율, 인사, 군현, 형벌, 공사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시대에서 대응한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목민심서'를 통해서 차후에 분대장이 되어

서 부대원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분대의 구성원으로서 분대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목민심서'를 살펴보자.

첫째,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다. '목민심서'에는 자기관리에 관해 도움이 되는 교훈이 많이 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律己六條(율기육조)를 통하여서 자기관리에 대해 강조하셨다. 자기관리에 있어서 우선은 자신의 몸을 단속하는 것이다. '목민심서'를 살펴보다 보면 자신의 몸가짐과 언행, 남을 대할 때 어찌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교훈 중에 飭窮(칙궁)이라는 단락이 있다. 그 중에 '毋多言(무다언)하며 毋暴怒(무폭노)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부대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견비하고 싶은 격언이다. 그 뜻을 풀이해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갑자기 성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살펴보았다. 우리가 부대 안에서 있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각각의 입을 통해서 어느새는 모두가 잘 알게 마련인데, 그 소문이 생활관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중대로, 중대에서 대대 전체로 퍼지게 된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관에서도 말을 삼가고 화내지 않으며 특히 일과 중에는 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처음 자대에 배치 받았을 때가 떠오른다. 군기가 바짝 들어서 간부님들이나 선임병이 한마디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 따른다. 하지만 이때에 했던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행했었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명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명령한 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군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무엇이든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 게다가 나는 앞으로 열심히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이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갈 수록 '나는 알고 있다.'란 자만심에 휩싸이게 되었다. 자만심이 차오르는 만큼 상관, 선임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는 선임병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는 선임병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점은 내가 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바꾸어야 할 과제가 되어 있다. 이 과제는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인 동시에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 곧 자기관리는 부대생활에 있어 핵심과제인 것이다.

둘째, 깨끗한 마음, 곧 淸心(청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겉 허물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겉만 화려해서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 인성, 가치, 비전 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신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이로 인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게 하는 효과도 뒤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성향인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인정을 받

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느냐, 몰락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침 중에 물품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貧交 族(빈교궁족)은 量力以周之(양력이주지)니라.'란 글이 있다. 예로부터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 여겨왔다. 요즘에는 봉사활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고아원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淸心(청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봉사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지인을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될지...

이러한 청심이란 마음가짐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탤런트 최진실과 같은 유명연예인의 자살 문제를 비롯해 각종 생활고와 채무, 구직난의 고민과 직장 스트레스, 신체의 과중한 질환으로 인한 중압공포, 젊은 남녀의 연애평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우리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동적, 또는 장기적 조울증, 우울증으로 심화되어 자살로 이어진다. 외부와 단절되어있다는 고립감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있더라도 이를 털어놓을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스스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를 택하는 사람도 있다. 계급사회가 주는 압박감이 문제일까? 아니다. 이 압박감은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에 있었던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淸心(청심)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의 낭떠러지 끝에 놓여서 갈등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생사를 달리한 경우가 많지 아니한가. 나와 같은 경우라도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함께 나누는 전우가 있다면, 군생활 하는 동안이나 사회에서라도 자살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청심과 더불어 진정 즐거이 도움을 준다는 樂施(낙시)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를 통해 열린 마음은 조울증, 우울증의 예방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상관에 대한 이해이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교훈을 주셨지만, 지금 이 목민관(牧民官)의 모습처럼 애쓰고 계실 우리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을 떠올리면 그러하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자칫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타지에서 맘 놓고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든든한 지휘관이 자리 잡고 계셔서 아닐까 싶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역 후 장래에도 도움을 주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이제 상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상관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다짐해본다. 지금 군에서는 인터넷 수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학문을 권장하셨는데 그 덕목이 바로 '禮典六條(예전육조)'에 있는 '課藝(과예)'란 덕목이다. 비단 학문 뿐 아니라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능력을 살린다면 군에서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민심서'를 살펴보다보면,

課藝旣勸(과예기권)하야 科甲相續(과갑상속)이면 遂爲文明之鄉(수위문명지향)하리니 亦民牧之至榮也(역민목지지영야)니라.', 즉, 과예를 부지런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자가 잇따라 나와서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된다면 또한 목민관된 자의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잘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매 시각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텔레비전이나 신문,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 펼쳐지는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정보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 패습들을 이 바다 속에 훌쩍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넘쳐나는 인터넷 기사와 게시판, 블로그에서는 사이버 테러와도 같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와 같은 시절에는 현대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었다. 선조들은 앞에서 거론한 문제들을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오셨던 것이다.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서 리더가 되어갈 때에 갖추어야 할 좋은 교훈들도 많이 주셨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삶에 잘 적용하면 스스로를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더 불어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군 생활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목민심서'를 바라본 소감은 이렇다. 현대에 있는 문제들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현재의 내 위치는 분대의 구성원이지만, 분대 원으로서 상관을 이해해 보았고, 조금이나마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함께 한다면, 군기와 사기, 군인정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내일 당장부터 내가 쉬는 시간에 전우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움직여야겠다. 앞으로 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목민심서'를 남은 군대생활에서의 지표로 삼고,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크게 도움을 받는 지침으로 삼아 나갈 것이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2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 현재와 미래의 뚜렷한 길라잡이로서의 목민심서

제206보병연대 3대대 본부중대

작전병 상병 권 창 동

나의 직책은 대대 작전과 작전병이자, 본부중대 분대장이다. 작전병으로서 해야 할 과업도 적지 않고 현장에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 다른 전우에 비해 하루 일과가 바쁜 편이고 여유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전투세부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수정하느라 많이 지쳐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대장님께서『목민심서』책을 건네주면서 정독해 보고 독후감을 써 보라고 하는 것이다. 사단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다산사상 독서감상문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대대 본부중대에는 나보다 시간이 많은 전우가 많은 데 왜 하필 바쁜 나를 시킬까라는 불만이 많았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계발시간, 휴일, 식사 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목민심서』가 반가운 손님은 되지 못했다. 대학의 전공과목 일부에 역사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민관이 고을을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서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목민심서』는 첫 쪽부터 난관 그 자체였고 갑갑했다. 제1부인〈율기6조〉를 읽고 나니, 딱 막힌 문체에, 과도한 한자어 또한 알 수 없는 문법.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를 고민하게 했다. "그만 둘까, 대충 써 내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약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하는 얇은 근성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읽어 보기로 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수십 번 고쳐 먹어가면서 정독할 수 있었다.

『목민심서』를 읽고 나니 현재 내 직책과, 전역 후 나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민 했었던 '분대장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 '교사로서 나의 태도', '올바른 인생관'과 같은 막막한 것들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마지못해 읽은『목민심서』는 잠들어 있었던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두 차례나 읽으면서 내가『목민심서』에서 주목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목민관과 분대장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분대장은 분대를 지휘통솔하며 분대의 성패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육군의 가장 말단에서 '창끝 전투력'을 발휘한다. 또한 10명으로 구성되는 분대의 지휘권과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늘 분대원과 함께 지내며, 육성으로 진두지휘해야 하는 분대장의 특성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동형 리더'라 불릴 만하다.

육군에서는 최말단 전투력의 핵심인 '분대장' 혹은 '분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다. 분대장에 대한 권위신장, 분대 견제유지 생활화, 또한 육군 병영문화 혁신의 선봉장으로서 '분대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분대장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병영부조리, 구타 /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대장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민심서』에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9세기 조선말의 사회 상황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삼정의 문란 중 환곡의 폐단이 가장 극심해 굶어죽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지방의 향리라는 작자들은 기생과 풍악으로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직의 말단인 목민관들에게 이 책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나는『목민심서』에서 목민관과 분대장의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 책의 목민관과 분대장은 모두 현장에서 술선수범하며 행동하는 '행동형 리더'라는 점이다. 분대원들과 먹고, 자고, 마시고, 숨쉬기를 같이 하는 분대장과 그 고을에서 상주하며, 목민관은 최말단 고을의 모든 일을 알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실세 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백성의 얼굴빛이 나물색을 띄게 되는 것은 바로
사대부가 나물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물맛'으로 대변되는 현장은 목민관이 마땅히 나설수 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분대의 목민관인 나도, 현장에서 분대원들의 '나물 맛'을 직접 느끼면서, 다음주에 있을 '취사장 청소 도우미' 때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는 '짬'을 한번 혼자서 치워볼까 생각한다. 이등병 때 선임병들이 시켜서 했었던 것에 '본전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이를 악물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했었던 그 각오를 잠시 잊어 버린 것이 아닐까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면 순종치 않는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는 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볼 것이 무엇 있겠는가"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

아랫사람에게 예(禮)를 차리는 일이란 쉽지 않다. 더구나 군대라는 상하계층 관계가 뚜렷한 곳에서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뜨끔했고, 부끄러웠다. 단지 '고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에 따라 말을 내뱉었던 적이 많았다. 그 순간에 나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비수를 꽂으면서 사람을 잃은 버린 것이다.

생똥쥐베리의 『어린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대장으로써 술선수범하여, 바른 언행과 태도로 후임병들에게 예를 먼저 갖춘다면, 그들도 나에게 선임병으로서 예를 갖출 것이고,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이 어어져 그들이 내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목민관과 분대장에게는 항상 책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분대장을 경험하면서 분대장의 책임은 많은 데,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이런 생각은, 나 하나만을 생각한, 특권의식에 젖은 모습 처사란 생각이 들었다.

"수령이라는 직분은 관장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여러 조목을 차례로 드러 내더라도 오히려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울 것이다"

분대장이란 직책도 마찬가지이다. 분대의 모든 일을 관장하며,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이 있기에 목민관이나 분대장은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일품검사, 신상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에 대해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 또, 내가 분대를 지휘하면서 내가 해야 일에 대해 "아무나 좀 해. 바빠!", "옛날에는 말이야."라고 외치며, 내 직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본다.

"내가 분대장인가?", "할 수 있을까", "난 그만한 인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목민심서』를 분대장 임무수행의 교범으로 삼으면서, 분대원의 곁에서, 분대원과 함께 먹고, 마시고하는 동안에 나도 의젓한 '분대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 몸으로 부딪치고, 앞장서면서 분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목조목 알아 나갈 것이다.

주자의 『주역』에 보면 "앞사람의 말씀이나 지나간 행적들을 많이 익혀서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목민심서』라는 항아리 속의 물에, 분대장으로써의 내 자신을 얼굴을 들이밀어 내 모습을 반성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또, 중대 분대원과 분대장의 사이에서 오는 갈등들은 곧 구타 / 기혹행위, 병영부조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다산 선생이 알려주는 것처럼 백성(분대원)을 위해 베풀고, 분대장들이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특권의식이나 본전생각을 버린다면, 우리 군은 밑으로부터

터의 '녹색 견장의 혁명'이 일어나 병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둘째는 『목민심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세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교사란 나라의 '뿌리'이며, '씨감자'이다. 교육이라는 근간이 올바른 몸가짐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밝지 못할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교육계에는 큰 혁신을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폐단을 가져왔었다.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이 중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식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사교육, 교사들과의 로비 행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또, 박봉의 월급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 역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입시 전·후를 망라하고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금기시되는 교사들의 고액 불법과외가 시작되었다. 비단 교육계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교육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정화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뒷 그늘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폐단이 혹시 '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목민심서』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공직자가 여겨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를 망론하고 항상 최고의 미덕이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2년의 시간을 공부에 매진했다. "공부에 미쳤다"라는 소리도 간간히들어왔고, 그만큼 내 의지도 강했다. 욕심도 있었다. 23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한쪽 구석이 가장 뜨끈했던 순간들이었다. 이러한 꿈에 대한 생각들이 개인적인 '과욕'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처럼, 나라의 중심인 교사는 어떤 부정과 유혹에도 물러서지 않고, 목민관에게 또 하나 중시되는 의(義)를 몸에 익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열정을 쏟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사를 우러러 보지 않을까? 다만 선생이 전했던 "청렴"과 "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의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후 세상은 초(Second)단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 기술이 미약했던 과거시절에는 사회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아, 1~2백년을 8~10살짜리 아이들에게 '공자 왈 맹자 왈'을 가르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초단위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그만큼 교사의 교육내용도 수시

로 바뀌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90년대 무역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교육한다든지 또한, 그 당시 출생률을 통해 인구 증가율을 추측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직업을 '철방통쫄',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주의에 빠진 교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부자리와 베개,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많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다산 선생은 목민관이 고을에 부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책 한 수레를 가져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목민관이 늘 자기 수련에 힘쓰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 강조한 사항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변하는 사회의 상황에

따라 그에 발맞춰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임금과 사부(즉, 교사)가 같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 교사 한 명 한 명이 생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목민심서』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최 일선에서 청렴과 책 한수레 가지고서 그 능력을 갖춘다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현재와 미래의 길라잡이로서의 목민심서

13세기 후반부터 약 2세기 동안 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이를 사학사(史學史)에서는 르네상스라 한다. 르네상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난 과도적 현상이었다. 그것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다. 이와 같은 유럽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인식되었다. 르네상스의 선구자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는 이를 '재생'이라고 표현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판 르네상스'가 있을 뻔 했다.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페트라카나 보카치오라면, 조선 르네상스의 선구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그의 학문은 인본주의(humanism)와 실용주의(pragmatism)를 근간으로 한다는 데서 르네상스와 일맥상통한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성공을 거두어, 유럽의 모든 것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조국의 르네상스는 신유사옥으로 다산선생이 유배당하면서 막을 내린다. 다산의 르네상스가 조국에 봄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관리들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인재들 물어 버렸다.

개인적으로 오천년 역사상 조선 중기 조광조의 혁신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한국사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선구자적 인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저서에는 기본적으로 목민관의 자세를 논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산의 사상을 내 삶에 접목시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본다. 비록 우연한 기회에 마지못해 되었지만 『목민심서』는 군인으로서의 현재의 나와 전역 후 교사로서의 내가 살아가야 할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분대원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미래에 내게서 인생의 일부분을 배우게 될 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지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달나라 금송아지 백마리를 잡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푸주관에서 쇠고기 반근이라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달나라에 금송아지는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라. 『목민심서』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제 나와 어깨동무하고 '2인 3각'으로 걸어갈 나의 동지이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2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나를 발전시키는 책, 목민심서

206연대 3대대 본부중대

인사병 일병 배 동 호

목민심서에게 배우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딱히 장르도 가리지 않고 그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사서 읽든 빌려서 읽든 어떻게든 읽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목민심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 보는 일종의 경연대회가 있다고 해서 솔깃했었다.

목민심서, '배울 점은 있겠지만 딱딱해 보이는 책.' 학생시절에 목민심서는 나에게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다. 그 이름과 뜻은 자주 들었지만 특별히 읽어야겠다 거나 읽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던 책이었다. 하지만 목민심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기로 생각을 굳힌 뒤에 그저 이름과 뜻 정도만 알고 있던 목민심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글도 보고 대대장님께서 주신 자료도 살펴보니 이제까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 목민심서라는 책에 흥미가 생겼고 또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에게 흥미가 가기 시작했다. 유배지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세세하게 책으로 남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의 열정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현대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에서도 바뀌지 않는 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문구를 보았을 때 현재의 나에게도 도움이 되면 되지 절대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또 직접 책을 읽어보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없진 않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이같이 배울점이 많은 목민심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도움이 된 것들을 적어보겠다.

동전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다.

목민심서 제 1부 부임 편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이 문장은 목민관으로써 청렴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나는 사회와는 조금 다른 군대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나는 군에서 달마다 월급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월급을 너무 헤프게 써 오고 있었다. 신병위로 휴가를 처음 나갔을 때 나는 월급 통장의 내 잔고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다. 딱히 어디에 쓴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통장에는 내가 담배를 조금만 덜 피웠으면, 충성클럽에 가서 먹을 것을 조금만 덜 먹었으면 있었을 돈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통장에 잔고를 보고 나서야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쓸 걸 하는 후회를 했었고 이 책을 읽고 난 뒤 또 이 책을 좀 빨리 읽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번 더 하게 되었다. 목민심서를 보면 '청렴함은 손해를 보니 행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검소함은 비용도 들지 않는데 어찌 쉽게 행하지 못하겠는가?'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니 순간의 기분을 위해 돈을 막 써버린 내가 어리석어 보였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다산 정약용의 검소함에 관한 생각을 엿보고 난 후 내가 검소함을 실천할 곳과 검소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군대에 오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었던 생각은 모두 잊고 지내고 돈을 쓸 때의 좋았던 기분만 기억에 남겨서 그런지 계속 헤픈 씀씀이를 해왔었던 나였다. 부모님께서 휴가 때 주신 용돈들과 친척들에게서 받은 돈이 결코 그냥 쉽게 번 돈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월급으로 달마다 받는 돈도 결코 막 써서 될 돈이 아닌 부모님께서 힘들게 내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이 들게 되었다. 세상에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 검소함이 곧 효도도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헤픈 씀씀이와 헤픈 생활 습관은 버리고 검소함을 생활화하자'라는 결심도 하고 그 결심을 지킬 마음도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청렴 하라. 청렴하면 성공 할 수 있다.

나는 사실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검소한 것만이 청렴한 것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목민심서를 읽고 청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바로 청렴이라 한다. 모든 근본은 청렴함에 있고 청렴함을 갖춰야만 올바른 목민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의 한 구절 중에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을 내 생각대로 뜻풀이 해보자면 똑똑하고 목표가 큰 사람일수록 작은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 큰일을 망치기보다는 자신이 목표로 한 일에 열정을 쏟아 정진해서 그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내가 작은

이익의 유혹으로 갈등할 때 마다 이 글을 떠올리며 목표를 향해 마음을 재정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같다라는 생각에 목민심서를 잘 읽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부대에서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남는 시간들을 모아서 자기개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받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개발 학습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는 핑계로 목표로 한 학습을 하지 않고 그저 책을 읽는다거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음을 정한 후로 내 목표에 맞는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원하는 양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청렴함을 항상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과 말투에서도 군대에 오기 전까지의 나는 욕도 많이 쓰고 비속어나 남을 비하하고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을 많이 썼었다. 군대에 오고 난 후에 말투가 조금 딱딱해진 감은 있지만 비속어도 예전보다 사용횟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만한 말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목민심서를 읽는 중에 청렴함에 대해 적은 부분은 읽을 때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 것이다."라는 글을 보고 갑자기 나의 생활방식이 떠올랐다. 군대에 와서 바뀐 것 중 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고친 것중 가장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이었다.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군대에 와서 내가 좋게 변한 모습을 느끼게 되니 군생활 중에 얻어가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되물림에서 벗어나자.

나에게는 가족같은 동료와 있고 후임병이 있고 선임병이 있어서 군생활이 생각보다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 이처럼 좋은 부대에 와서 좋은 전우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군대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을 때 항상 맞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속칭 '갈굼'을 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이런 나쁜 관습들이 계속 되물림이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미 전역한, 오래전의 선임병들이 후임병에게 잘 못한 탓이고, 그 후임병이들이 다음 후임병에게 다. 목민심서에서도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나의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도 말하듯이 이런 계계목은 관습들이 계속 되풀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나는 겪어보지 않았고 다행하게도 연대장님과 대대장님 등 여러 분들의 노력과 나보다 먼저 군대를 온 선임들이 목민심서의 저 구절을 먼저 본 것인지 내가 군대에 들어왔을 때는 부조리가 사라지고 찾기가 어려워 이야기로만 듣게 되었다. 나 또한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군생활을 해 나간다면 이제 '군생활은 맞으면서 하는 것이다. 부조리가 많다'라는 강박관념은 그저 옛날이야기로만 전해질 것이고 앞으로의 군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고,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곳'이 아닌 군 생활이 '가족같은 전우와 함께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古書(고서) 목민심서, 高書(고서) 목민심서

지금까지 내가 목민심서를 읽으며 느낀 점으로는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부임에서부터 해관까지, 목민관으로서의 행동, 말투, 옷차림새까지 세세하게 집필 해 놓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열정에 감탄을 했다.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목민심서가 그저 고서로만 취급되지 않고 몇 백만부가 팔리는 밀리언셀러로써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목민심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군대에 와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나의 현재 생활과 목민심서를 연관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결론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다산의 사상과 목민심서에서의 목민관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이자 근본인 청렴함이었다. 군인도 엄연한 공직자로서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목민관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후임병을 백성과 연관하고 임금을 나라와 관계지으면 목민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나도 목민관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청렴해야 하고 검소해야 하며 지켜야 할 예와 의를 갖추고 있어야만 군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목민심서에는 내가 적은 것 외에도 모두 글로 옮기기 힘들만큼 도움이 되는 글귀들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라든지, 제 4부 애민 6조에 나오는 모두는 군생활과 사회생활 모두에 필요한 글들이다. 물론 무조건 적으로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만 따라가거나 맹신해서는 안되겠지만 '溫故知新(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명심하여서 목민심서를 읽고 깨우친 내용을 적절히 현실에 적용을 잘 시켜서 이해해야겠다.

이제 나는 누구나에게 추천할만한 책을 한 권 알게 되었고 이 책은 기업인에서부터 공무원, 그리고 지금의 나의 신분인 군인에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었고 한번 쯤 시간을 내서 읽어보라고 권해도 읽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책이었다. 이 책을 읽은 시간이 빨리 흘러서 아쉬웠고 독후감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2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등대가 되어준 목민심서

수색대대 2중대 / M60 사수

상병 오 승 국

20살의 11월 겨울 나는 큰 파도 앞에 놓여있었다. 그전의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멋진 친구들이 있었으며, 몸 또한 건강해서 별탈없이 유쾌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살아왔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29일 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독한 절망에 빠져있었다. 20년 동안 오랜 나의 버팀목이셨고,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의 수많은 위로를 받아도 난 무거운 어깨를 추스를 수 없었다. 마침 당신의 사위를 먼저 떠나보내신 외할머니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애야 이젠 네가 한가정의 기둥이로구나 앞으로 무얼 하든 포기하지 말고 무얼 하든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생각했었다. '나의 사명과 책임감은 무엇이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냉혹한 파도 앞에 수많은 걱정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나의 걱정하는 모습은 어머니에게 더한 슬픔으로 다가오셨을 것이다. 나는 여러 고민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바로잡아주고 해답을 건네줄 아버지와 같은 인생의 큰 스승을 바랐었다.

시간이 흐르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내 모습을 찾을 각오로 입대를 한 후, 나는 입대전과는 다르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부대에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언제든지 손닿는 곳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읽을 수 있던 책 중에는 운 좋게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가 있었다. 내 인생의 지침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래왔었던 나에게 기적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해답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인생의 챔피언은 끈질기게

책장을 넘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흔히 딱딱 할거라고 생각되는 목민심서를 읽어 내려갔다.

다산은 책에서 "毋多言(무다언)하며, 毋暴努(무폭노)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목민은 원칙에 입각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 감정으로 일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인데 이렇듯 다산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윗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책을 집필 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다산은 이렇게 집필한 목민심서에서 왜, 어떻게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원칙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현대의 우리는 넘쳐나는 자기개발 지침서들 또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정보매체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책, 좋은 지식을 가려내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내가 전에 읽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원칙중심의 삶이 자신과 상대방 상호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에 200년 전에 앞서 한가하게 놀며 크게 즐기는 것을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며 "然遊般樂(연유반락)은 匪民攸悅(비민유열)이니 莫如端居而不動也(막여단거이부동야)니라"라는 말과 같이 원칙을 바탕으로 성품 중심의 자기성공을 얘기 한다. 또한 목민심서에서는 애국 애민 정신을 가장 잘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멀리서 교훈을 얻으려 하기 보단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생활을 20개월 남짓 하면서 배운점이 정말 많았다. 교육 훈련과 내무생활 등에서 오는 과정들은 나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목민심서를 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속 허전함을 채울수 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할 때 와 작업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군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었다. 나의 목적과, 사명감, 의무감을 책속에서 찾았을 때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고 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간혹,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 또한 입대 전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많은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한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목민심서에서는 "偽造族譜(위조족보)하고 盜買職牒(도매직첩)하고 圖免軍簽者(도면군첨자)는 不可以不懲也(불가이부징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자 부패를 저지르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꾸며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면 벌해야 하고 수령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 허위를 적발하고 엄하게 하여 풍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처럼 나는 부패를 저지르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족보를 팔고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없음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한 누릴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공허함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걸돌던 나의 생각을 정리 시켜준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내용들은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책을 읽을수록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에 애착과 책임감에 휩싸였다. 주변의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되면서 나의 임무를 게을리 할 수 없게 되었다. 부대 안에서의 이런 변화가 전역 후 나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은 책을 읽어가면서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대 안에서 나는 선임들의 전역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언젠가 한번은 전역장병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적이 있었다. 그 눈물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눈물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오는 기쁨의 눈물일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확실히 보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물들의 의미는 전역하는 날의 기쁨의 눈물 이라고 하기보다 지난 군생활에 대한 후회의 눈물 들이었다. 자신이 전역하기까지의 과정과 후임들을 대할 때 더 정을 주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 그리고, 자신의 고민하던 목적을 찾지 못한 과정들에 대한 후회였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전역하는 순간도 자신의 지난과정을 생각하면 행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 서서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나 또한, 생각해보니 작은 일들 하나하나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과정에 후회되는 일 들이 많다. 나는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뒤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의 내용들과 정약용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내 몸에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목민심서의 애민목조를 보면 얼마나 정약용 선생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어린 이들과, 나이든 이,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이들과, 같은 가난한 이들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鰥寡孤獨(환과고독)을 謂之四窮(위지사궁)이니 窮不自振(궁불자진)하여 徒人以起(사인이기)니라. 振者舉也(진자거야)라."라는 구절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환과고독 늙어서 아내가 없고, 늙은 과부, 어려서 아버지가 없고, 늙어서 아들이 없는 이들 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일으켜 세워 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안에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군 생활에서 이와 같은 목민심서의 구절을 비춰보자 나보다 후임들은 물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임병들까지 내 자신의 일처럼 옆에서 도와주며 일으켜 주는 전우애로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앞으로 나가는데에 이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선의 모습과,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하면 후회 하지 않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책을 덮으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 나에게서는 바다처럼 관대하셨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내가 보고 들은 아버지의 성품 또 한 홀름 하셨다. 그래서 나는 힘들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난 뛰어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묘비 앞에 서게 되면 그 묘비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나란히 묻혀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놀라게 했던 성인들의 무덤을 볼 때, 우리는 인간들의 하잘 것 없는 경쟁, 불화, 논쟁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어떤 공허감에 젖기 마련이다. 어제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백년 전 죽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저 무덤 속에 죽은 '어떤 이'가 아니라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자랑하고 싶다.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길이 되고 싶다. 목민심서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성품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의와 여러 사람들의 대한 세심한 배려, 군 복무 중에 목적을 갖게 해준 모든 것들은 나의 남은 삶이라는 긴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여행을 하다보면, 수많은 대목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과 부딪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 옆에는 좋은 인연들과 선택할 수 있는 신념 그리고, 목민심서와 같은 좋은 책이 함께 한다. 책을 읽으면서 그 한걸음 한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든지 간에, 그것이야말로 나를 산 정상으로 가까이 데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민심서 독서감상대회 수상작

2회 우수상 (문화원장상)

20대의 1/5, 젊은 날의 다산고찰, "상념의 춤", 그 끝에 다다르다

포병연대 522대대 3포대 3분대 통신

일병 정재민

3월의 나른한 봄 햇살 속에서 갓 일병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내게 『목민심서』라는 책이 다가왔다. 정약용...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지 나와 같은 정(鄭)씨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동경심을 지닌 사람, 청렴결백과 실사구시, 18년의 유배생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나에게 정약용이란 그런 막연함 속에서 살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았던"이에 불과했다. 현재와는 단절된, 지금 나의 모습과는, 나의 현재에는 잊힌 사람. 그가 내가 떠올리는 정약용이란 위인이었다.

허나 목민심서라는 책을 춘곤을 이겨내며 초코파이의 유혹을 뿌리치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에 대한 이전의 생각은 어느새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의 사상과 업적, 그리고 그의 삶은 '과거'의 그것이 아닌 '현재'의 것이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의 양반 중의 양반,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우선하는 그의 사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의 궁금중, 그리고 의구심. '나는 군인인데.....? 사회에서의 삶이 아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질문 그대로 과연 정약용의 말들이, 23살 대한민국 일병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상념이 한 동안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엄청나게 심오한 목민심서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참이 지난 뒤, 나는 그 상념의 춤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육조 1.속리(東夷) '신병~이등병'

1.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자기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지만 자기의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등병, 신병 때는 새로운 바다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뛰어 들게 된다. 모든 것들이 이전의 자신의 환경과 많이 다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시기다. '세 살 버

롯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군 생활의 기본과 정석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군 생활의 토대가 되어 2년을 함께한다. '속리1'의 말처럼 자신의 몸이 바르면 바르게 습관이 들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훗날 선임이 되었을 때 후임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을 본받아 바르게 생활하게 된다. 반대로 이 시기에 배울 수 있는 행동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의 몸,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은 바르지 않게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 "비록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새롭고 어렵기만 한 이등병 생활, '속리1'의 말처럼 자기의 몸을 바르게 세운다면 새로운 바다를 오리발하나가 아닌 유람선을 타고 항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비단, 자신의 몸가짐 뿐 아니라 마음가짐, 즉 정신전력까지 바르게 확립할 수 있다면 정약용의 '속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전육조 5. 찰물(察物) '이등병~일병'

4. 모든 미세한 과실과 작은 흠은 마땅히 더러운 것을 머금고 병을 감추듯 덮어두어야 한다. 자세하게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은 밝은 것이 아니다. 모른 척 하다가 이따금 간사한 것을 적발하는 것을 기민하기가 신과 같이 해야 백성들은 비로소 두려워 할 것이다.

자대 전입 후, 시간이 조금 흐르다보면 전우들의 행동 및 장단점, 그 사람 각각의 특성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등병 중간 기간부터 일병 초반까지가 특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척도가 결정되는 시기다.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는 말처럼 한 번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을 하면 그 '확신의 눈'을 가지고 그 혹은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찰물4'의 구절이다. '미세한 과실과 작은 흠은...병을 감추듯 덮어두어야 한다.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은 밝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지나치게 흠을 잡으려 하는 것은 '밝은 것'이 아니다. "작은 흠, 마땅히 더러운 것, 병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자세히 밝혀낸다는 것은 그 만큼 '숲'이 아닌 '눈앞의 나무'에 집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결과 편협한 사고를 지닌 채 선, 후임을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군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찰물5'의 어구들을 살펴본다면 자칫 자신과는 다른 남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또한 나무만을 쫓으려는 행동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도 '기민하기가 신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나이로, 강한친구 대한육군의 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특성 및 장단점과 자신의 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그들이 나를, 내가 나 자신을 비로소 두려워할 수 있다면 다산의 사상을 진정으로 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곡부5'의 구절 그대로이다. 본격적으로 후임 관리 및 선임과의 생활을 하는 시기

- 1) 밝은 것'이란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센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진실을 바라보는 눈,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다산의 "결백"이 담겨져 있다.

호전육조 4. 곡부(穀簿) 일병~상병

5. 상류가 이미 흐렸으니 하류가 맑을 수가 없다. 아전들의 험잡은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간사하고 교활함이 귀신같아서 밝게 살필 수 없다.

에 '곡부5'의 말들은 있는 그대로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강한 충격파를 전달한다. 후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의 나 자신은 상류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전들의 험잡과도 같은 교활함으로 후임들과 선임들을 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맑은 것'의 참 뜻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혼잡한 것'이다. 자기의 몸, 그리고 정신을 바르게 하지도, 밝지도 아니하다면 그의 후임들(하류)은 맑을 수도 밝을 수도 그리고 다산이 일컫는 진정한 목민관도 될 수 없다.²⁾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만일 나의 상류가 흐리다면? 정약용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몫으로 남겼고 그 답은 위에서 살펴본 '찰물4'에 담겨있다. 맑은 것에 대한 추구, 결백에 대한 추구의 결과로 흐린 상류를 바라보고 비판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물을 맑게 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상류로부터 하류로 지나가는 물이 아닌 '정화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맑음'과 '맑음'은 그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예전육조 3. 교민(敎民) 상병~병장

3. 학교라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곳이다. 스승이 있는 뒤라야 학교가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덕을 닦은 사람을 초빙하여 스승을 삼은 뒤라야 학교의 규례를 의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군복무를 통해서 "사람 됐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작은 사회'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에는 군대라는 것이 배움의 터인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병장의 역할은 일·이등병에게는 스승과도 같다. 스승은 밝고 맑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몸을 바로 세우며 때론 병을 감추듯 덮어줄 줄 아는 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존재하기에 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학교의 규례, 즉 작제는 부대 내의 발전 크기는 대대·연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육군 전체의 발전을 의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기본 중심 토대에 바로 그들이 존재한다. 주특기에 대한 스승에서부터 내무생활의 스승까지 더 나아가 큰 사회의 스승 역할을 그들이 이루어낸다면 더 발전되고 더욱 더 성숙해지는 군인의 일원들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조국을 위해 하루를 달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산의 21c형 가르침일 것이다.

해관육조 1. 체대(遞代) 병장~개구리

1. 벼슬이란 반드시 체임되는 것이다 체임되어도 놀라지 않으며 벼슬을 잃고도 못내 아쉬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2) 진정한 목민관이라 함은 다산의 대표적인 사상인 청렴결백, 실사구시, 옳곧은 정신을 함양한 이를 말한다.

절대 권력의 소유자 말년 병장,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전, 그들은 자신들의 2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미련과 마주하게 된다. 벼슬은 반드시 채임되는 것이고 이에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증거다.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것들, 밝고 맑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떠올리고 자신의 2년을 되돌아 보게 된다. 다산은 이에 아쉬워하지 말라고 한다. 허나 내가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청렴결백 사상에 반기를 드는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인간은 후회를 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미련과 입맞춤을 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정약용은 회초리를 든다. 허나 그는 나를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한 마디를 던진다. 바로 미래...정약용 재임 당시 퇴임과 지금의 전역이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둘의 경우 모두 다 그 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같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새로운 시작이고 애민육조에서부터 해관육조에 내용까지 목민심서의 전 내용을 되새김질 할 것이다. 유혹의 입맞춤, 미련이란 입맞춤을 뒤로한 채 그 미련을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슴 속 추억으로 간직한다는 것, '날카로운 첫 키스'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그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주위사람들은 후임들은, 선임들은 어떤 말을 건넬까? 아마 "군 생활 하더니 사람 됐다. 너?"

상념의 춤은 비로소 끝이 났다. 그리고 내 춤의 파트너였던 정약용은 이제 나를 뒤로하고 어둠속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걸어간다. 최고의 파트너가 떠나간 뒤, 나는 그를 잊지 못하고 가슴으로 그를 품는다, 그린다, 안는다, 그리고 남겨진 나를 바라본다.

23살 일병의 전투복을 입은 한 사나이가 서있다. 어린 아이에서 '멋진 사나이'로, 그리고 청렴결백한 전투복을 매만지는 손길이 보인다. 비록 그 파트너의 모든 것을 가슴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한 가지만을 분명하다. 청렴결백, 실사구시, 올곧은 정신을 담은 목민심서는 19c 목민관들의 글이 아닌 거울에 비친 '멋진 사나이'의 것이란 걸.....

〈목민심서〉를 통해 본 군수실무자의 역할과 자세

제206 보병연대 3대대 본부중대 / 편성보급병

일병 오혁규

내 인생의 '나침반' 〈목민심서〉 그리고 다산을 만나다.

나는 대대의 본부중대 편성보급병이다. 전입 이후 교범이외의 서적과 거리를 멀리하고 창고 그리고 재산대장을 가까이 하는 나였다. 전임자가 지워놓고 간 재산대장 덕분에 군수업무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책과의 거리가 서서히 멀어져가고 있었다. 휴가 중에 다산사상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되는 바람에,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산을 지나치게 되고 시간이 흘러 각종 검열들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다산사상 독서 감상문의 공문이 내려 왔을 때 기회다 싶어 책을 찾게 되었다. 다산대대에 복무하면서 다산선생이 쓴 이 책을 읽지 않고 그저 다산대대라는 것에 의미만 두고 있던 내가 업무 이외에 쉬고 놀 생각만 한 것이 부끄러워지고 숙연해졌다. 책을 펴고 첫 목민심서를 소개하는 글귀부터 비롯하여 '다산'은 날 목민관의 시각 속으로 잡아당겼다.

'백성을 부양한다는 뜻의 목(牧), 피땀 흘려 일하는 백성의 민(民), 몸소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 심(心) 그들을 위해 쓴 서(書)' 이 책 안에서 다산대대의 꿈, 열정, 그리고 다산대대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목표를 명쾌하게 알게 되었고 '다산'의 명쾌한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현대인들을 위한 '다산'의 눈물의 결정체

'목민심서'는 다산이 씌어가는 19세기 조선의 지방 수령들에게,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피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쓴 책으로 다산이 유배지에 갇혀 몸으로 나서지 못한 사회학 실천의 위상과 각 지방 수령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이 할 일을 바로잡은 책이다.

다산은 당시의 진보적 정치사상을 구현시키지 못한 사회기반을 현대의 우리가 뛰어난 업무로 비추어 보게 하고 구시대적으로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몇몇의 군복무자, 그리고 사회인들에게 행정업무의 개혁과 개선을 도모한다. 현대에서 과거의 많은 부조리를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 행동, 모순 등을 가지고 탁상공론에 빠져 문제를 단칼에 해치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단 1분이라도

도 칭찬, 성찰, 반듯한 몸가짐을 가지게 하며 여러 사회 각계 각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목민심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 두 장 씩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다산이 쓴 글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있으나 유배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마당을 밟으며 고뇌한 그의 발자취와 백성의 고통을 눈물로 써내려간 그의 떨리는 손을 느끼게 되었다.

〈목민심서〉가 알려주는 군수업무 10가지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자는 마땅히 군수를 알고 힘에 따라 준비 할 것이다.

하나, '군수병의 직분은 힘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추진 할 일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대가 그 해독을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후진 대대로 밀려날 것이다. 연대에서 비난하고 사단이 책망하여 그 재앙이 후임 보급병에게 미칠 것이니 이런데도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책의 내용에서 나의 직책과 책임에 대해서 대입해 보았다. 그러하다. 군수병이라는 직책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행정병이다. 행정병은 '준 간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업무와 겹겹에 지쳐 슬슬 초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산의 한마디 한 마디가 날 지적하고 책임감을 부추기면서 다시 초심을 되찾게 되었고 차후에 만나게 될 나의 후임자에게, 그리고 다산대대에게 군수분야 우수부대라는 선물을 안기고 전역하고 싶다.

둘, '물자의 망실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 자신의 물품이 사용가능하지만 신품을 원하여 소모沼窪 磯摸 물품을 찢는 행위, 반납 품임에 불구하고 제대 전 자신의 물품을 돌리는 병영부조리.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은혜를 모르고 국민에게 노략질을 하는 것이니, 그래서서 아니된다.'

새 수령맞이에 사용할 말 사용료를 공적으로 받음에 불구하고 또 백성에게 사용료를 걷는 행위에서 군수 실태를 대입해 보았다. 종합군수학교를 마치고 온 내게 충격을 주는 장면들이었다. 소모삭제 품목이라도 쓸 수 있는 위장포에 고무줄 끼우는 것 하나가 아까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품목을 찢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선임병이 그렇게 하면 물건이 잘 나온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사례를 애초에 알지 못했고, 또 겪어본 사람은 으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가르쳐 주었다. 고쳐 주었다. 그리고 소모삭제에 관해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가 말해주고 나니 대대 소모삭제 품목이 줄어들고 C급 물건들이 B급으로 바뀌어가는 현상들을 보았다. 무슨 일이든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하다보면 항상 무너지게 마련이다. 결론은 솔선수범, 그리고 나부터 청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 '공통업무가 생겼을 때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침에 대하여 초안이 되는 업무를 하라.'

최근 합참에서 지장물자 분리저장 및 주기표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바 있다. 동원훈련 하루 전날 지침이 내려왔고 동원훈련간 상황근무를 서면서 주기표에 대하여 작성해야 할 것과 그 주기표에 대하여 의문점, 문제점을 찾아 기록해놓았다가 동원훈련이 끝나고

각 대대가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행정보급관과 함께 고민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전 준비로 인해 2/4분기 군수준비태세 점검준비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전산재산대장 상의 목록제원현황이 우리 다산대대가 표준이 된다는 전산체계관리사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산선생은 '이튿날 새벽에 출근하여 정사에 임한다.' 라는 말을 하였다. 피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앞서려는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넷. '군수는 석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淸)맑아야 하고, 둘째는 (愼)삼갈 줄 알아야 하며, 셋째는 (勤)부지런함이다.'

빌린 물건에 대하여 말이 없더라도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 다른 대대에서 빌려줬던 공구함에서 부수기재가 손상되었을 때 수리하여 준다거나 보상을 하여준다면 그 대대와 더욱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 지지만 그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서로간 알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된다.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줄 안다는 것이 청렴이라는 것이다. 내 것을 좋아하다보면 일이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다. 군수업무를 하다가 보면 거의 신품을 만지게 마련이다. 항상 신품은 신병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좋은 개인장구류를 내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쓸 수 있는 기존의 장구류는 쓰고 후임병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게 삼가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부지런해야만 싸워 이길 수 있다. 물건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하다 보면 정작 전시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준비가 미흡하게 되고 매전필태(每戰必殆)할 수밖에 없다. 항상 정비에 힘쓰고 부족한 물자를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다섯. '물자 관리지침은 군의 명령이다.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부하가 된 자로써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건의 관리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 물건이 시효 초과를 한다하여도 쓸 수 있게 유지가 되어있다면 교환주기가 당해 연도로 바뀌게 된다. 화학장비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유류 및 발화성 물질은 인화물질 창고에 보관하고, 모든 보급품은

깔판 위에 저장하며 좀 및 곰팡이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 등 수많은 관리지침이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고 귀찮음에 아무데나 방치하고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입고하는 행위를 금하고 물자를 나의 생명처럼 여겨 소중히 보관한다면 '다산'의 말처럼 인욕을 물리치고 천리를 흘러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섯. '군은 화기이다. 화기를 100년 동안 쓰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화기를 알고 정비하는 것은 군수의 직무이다.'

군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장비이다. 파손된 것은 고치고 망실한 것은 채우는 것이 군수의

직무이다. 보검을 수천 번 담금질 한 옛 성현들처럼 군수에서는 장비의 손질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화기운용병 만큼이나 화기의 부수기재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는 것이 군수다. 아는 만큼 우리 군은 강해지게 되고 아는 만큼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이 될 수 있다. 더욱 익히고 더욱 아는 것이 내가 남보다 앞서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산같이, 아니 다산보다 더 멀리 보고 나아가도록 나를 키워야겠다.

일곱. '분기마다 마감한 재산에 대한 감영의 결제장부는 사리를 상당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무릇 연대에서 마감한 것은 우리 대대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실제 수치이다. 이미 나눠준 것이 얼마이고 남은 것이 얼마이며, 장차 반납 및 소모沼窪 ㅓ 품목이 몇 개인지, 사용가능 품목인지, 요 정비 품목인지, 폐품인지 그 실제 수량을 알고 확실한 대대의 재산을 만든다면 나 또한 뿌듯할 것이고 내 후임자에게 마음 편히 물려주고 전역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껏 해 온 것처럼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지런히 최신 화에 힘써서 완벽을 추구하는 군수업무를 시행하여 명예롭게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

여덟. '무릇 재해가 있다면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빠진 것을 건지기를 내 것이 부서지고 빠진 것처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난분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손을 써놓아야 하고 재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목민관이 되어 보고, 두들겨보고, 디더보고, 느껴보아야 하는 분야이다. 내가 군수 실무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부대를 관리하는 것은 작은 관심에 있는 것이지 행정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말만 하기보다 재난예방 교육과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홉. '부대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빠지는 구덩이 같아서 비록 관리자가 청렴하

고 유능히도 그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3D[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하다(Danger)]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귀찮은(Trouble) 일들을 하나같이 꺼려하기 마련이다. 목민관은 마땅한 사람을 얻어 일을 주관하게 하고 각기 맡아서 할 일을 분담시키고 그 중에 장인을 뽑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일들이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칭찬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는 2/4분기 군수준비태세를 앞두고 시설분야의 검열을 대비해 비록 우리 중대의 담당구역은 아니지만 대 소변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로 오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자 담당 중대에서 내려와 같이 하기 시작했다. 10분도 채 안되었을까 황태가 없어지고 새것들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시설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일이 남보다 앞서 움직이는데서 많은 갈등을 낳지만 나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목민관'의 입장에서 군수, 그리고 병영문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 ① 나 자신부터 앞장서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올바른 군수 병영문화를 이끌자.
- ② 개인장구류 신품은 신병 위주로 하고 중대 물자순환 시 보고하여 즉각 조치하자.
- ③ 소모작제는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하고 전역자반납품을 확실히 회수하여 부대발전에 기여하자.
- ④ 재산대장 최신화에 힘쓰면서 정확한 물자관리로 사용가능 품목을 늘리자.
- ⑤ 고객의 입장에서 군수분야의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에 힘쓰자.
- ⑥ 장비의 기본적인 운용법, 그리고 부수기재 파악에 힘쓰자.
- ⑦ 위의 할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자.

〈목민심서〉가 나에게 제시한 길

'다산'이 떠나가는 길에 백성들은 통곡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의 묘비에는 아직도 많은 하객이 찾아와 그의 백성을 위한 피와 땀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 모시고 있다. 나도 다산대대를 위하여 피와 땀을 쏟아 부어 후에 전우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전우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목민심서〉를 군수에 비추어 보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산은 정약용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사랑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산이 얼마나 백성들을 보면서 고심하고 괴로워했는지 그런 마음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다산이 그 당시에 유배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더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겠는지 많은 아쉬움이 오간다. 나는 다산대대의 군

수 실무를 하게 되면서 실무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내가 다산을 빨리 접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일을 진행하고 더 청렴하게 군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텐데 업무를 핑계로,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로 몇 달간의 업무를 놓친 것이 후회가 될 뿐이다.

내가 하는 행정업무에 관해서 청렴하라, 직접 뛰고 실천하라, 불편한 것에 관하여 연구하고 개선하라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할 군수병으로서의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의 나아갈 길, 그리고 열정을 심어주었다. 다산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다산대대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인재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밝게 빛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다산사상(茶山思想)에 비추어 본 올바른 장교(將校) 상(像)

205-3대대 / 대대장

중령 신 현 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는 방대하고 다양하나 기본적인 정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경세제민이다. 그 중 목민심서는 그 집약이며, 결론인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옮긴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알지 못하면 근세 한국의 학문과 사상을 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민심서를 군의 간부들이 읽는다는 것은 근세 한국의 학문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군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들에게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또한 목민심서 전반에 걸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청렴결백한 가치관을 느끼면서 실천한다면 부대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민심서가 과연 군 간부에게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는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수령의 사무를 처리하기까지 명심해야 할 부임육조부터 수령이 바뀌어 돌아갈 때의 태도와 그 뒤에 남긴 치적을 기록한 해관 육조 까지 총 1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조심해서 살펴야 할 일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잘 나타나 있어 다산의 나라사랑 정신과 청렴 정신을 알 수 있다. 이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산업전선에 있는 기업과 공직사회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교육시키는 서양의 리더십 이론과 비추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수 있다.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후세에 가르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은,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훌륭한 리더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며, 과업과 인간관계 모두 잘 해야 한다는 행동이론과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다. 또한 부임부터 해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기에 목민관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행동이론 이후에 제기된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리더십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론과 일맥 상통하며, 오히려 더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를 읽는 동안 위에서 느낀바와 같이 대대장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실사구시의 행동 및 가치관은 본인이 술선수범하여 시행한다면, 대대 간부들에게 교육될 수 있으며, 주어진 임무 완수와 대대의 단결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규정과 방침에 입각하여 청렴하게 부대를 지휘해 나가되, 규정과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는 반드시 대대장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부대, 어느 직책에 있더라도 육군의 간부라면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육군의 간부로서 반드시 체득화 해야하고, 확인해야하며 목민심서에서 적용하여 시행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단정한 용모를 갖추며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부임육조, 율기 육조, 봉공 육조, 이전 육조, 예전 육조에 잘 나타나 있다. 지휘관 스스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항상 검소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면 부하 간부들은 감히 임무를 포기하려 하거나 일과 이후 문란한 사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휘관이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거나, 상급 지휘관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부하 간부들은 그 지휘관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 화살은 지휘관 그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병사들은 군에 대한 불신감만을 가지고 나가 수많은 돈을 들여 화려하게 육군 홍보영화를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펴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만 보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지휘관인 나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을 한다면 내 손에서 사회로 다시 나가는 전역하는 병사가 이를 극복할 것이며, 동원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대원들이 그러할 것이다. 또한 다산 선생은 왕(王)의 명령과 국가의 법규를 어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군인에게 주는 가르침이 크다. 즉 지휘관의 명령과 규정과 방침을 위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지휘관이 규정과 방침에 입각하지 않거나, 지휘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지시하고 그것이 지휘권인양 착각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본 정신이며, 목민심서 전반에 잘 나타나 있다. 군 간부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세한 세금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는 봉급의 귀중함을 알고 자신의 봉급 수준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치관이 부재할 경우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운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소비 및 이로 인한 부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받는 봉급이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것을 인식한다면 이와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특히, 호전 육조, 형전 육

조, 진황 육조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세금과 형벌의 공정함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목민관으로서 무엇을 해야하는 지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전 육조에서 옥중에 있는 죄수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다산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지 않다. 림멜장군이 이야기 하였듯이 '1급의 훈련이 1급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로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목민심서 전반에 나와있는 업무의 공정함이다.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뇌물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등용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일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임무를 맡기며, 백성들에게 그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는 중요한 일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이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급히 부하들의 보고만으로 결심을 하지 말며,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관 직책을 수행한다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몇몇할 것이며, 해관 육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직책을 떠나갈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은 실사구시의 정신이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구성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 했다는 의미이다. 청년층은 사고가 자유로우며 과학기술에 적응해 있으며, 가정에서는 자식이 1내지 2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자라났고, 이러한 자원들이 현재 군의 병사 및 초급간부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육군은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전쟁의 억제 및 유사시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기본임무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비합리적이고 육체적·정신적 인내를 요구한다. 이에 군 간부들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전투에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제도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병전 육조에도 잘 나와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군수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사구시의 개선 뿐만아니라, 상시 전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정비가 되고, 이를 정비하는 방안에서도 개선사항을 제시한다면 이 역시 실사구시를 이루는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육군이라는 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개 병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습성을 연구하여 영(令)이 확립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지휘관이 우선은 알아야 할 것이며, 손에서 교범과 책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탐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다시 부하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산 사상과 목민심서의 가치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군의 간부이자 대대장으로서 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이를 실제 군

생활에 적응을 시켜보면, 지휘관으로 부임시에 호화로운 다과회나 불필요한 화환 등은 하지 않으며, 이·취임식 이후 전임자의 공적을 높게 받들며, 부대를 새로이 진단하여 부대의 강·약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부대의 특성을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책과 같이 대대원의 대부분이 동원 병력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특성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상급 지휘관의 지휘 의도를 받들어 지휘 중점을 하달하여 대대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부대를 진단할 때에는 인사·정보·작전·군수의 재 분야를 점검하여 간부나 병사중에 도움이 필요한 인원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시 동원 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대대원들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1년에 몇 번 볼 기회가 없다. 동원훈련과 소집점검 그리고 재입영 동원훈련 때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1년 365일 대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시행 함에 있어 부대에 보안상 취약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과학기술, C4I 체계를 적용하여 대대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육군의 장교이자 대대장인 나는 싸워서 이길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 하여 확인을 해보며, 나의 대대원들은 이러한 나의 작전계획을 시행할 준비는 되었는지 평상시 교육훈련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동원 훈련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투 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토록 정비하고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병전 육조에 나와 있는 바이며, 지금까지 항상 군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현재 육군에서도 규정하여 1년에 한번 전투장비 지휘검열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치장 장비 및 물자를 포함해서 정비를 하여 항상 사용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나 큰 훈련이 있을 때에는 미리 지침을 명확하게 주어 확인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한다면 부하들은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대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지휘관이 스스로 매일매일 단정하게 지휘하며, 간부 및 병사들의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의 임무수행이나 단결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회식 및 음주는 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는 부하는 엄중하게 규정 범위 내에서 처벌하지만 이에 가슴 아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휘관 직책을 수행 한다면 보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부하들이 저절로 아쉬워 할 것이며, 다음에 같이 근무하였을 때에도 충성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어떠한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청렴이라든지 부하를 사랑하는 행동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해도 부하들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목민심서와 같이 육군에서도 육군의 가치관, 군인 복무 규율 등 군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으로서 어떠한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할 것을 규정으로 정립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군인복무규율 등을 리더십이론에 비추어 보면 행동이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훌륭한 지휘관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고, 어떠한 것은 하지말아야 하며 올바른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올바른 군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주는 가치관이나 군인복무규율을 진심으로 행하기 위해 이러한 목민심서와 같은 좋은 책을 읽어 간부 개개인의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규정과 방침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야전 군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실사구시의 사고를 가지고 시대와 맞지 않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고쳐 나가는 용기를 가진 군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즉, 행동을 바꾸라고 하기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하는 정신과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군의 영(令)을 확립하는 행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정말 군을 사랑하는 간부라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를 사심없이 고쳐나갈 수 있는 간부 역시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간부라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진접문화의집

위탁운영실적보고서

2009. 12.

진접문화의집
위탁운영실적보고서

남양주문화원

사업 실적 개요

기간 : 2007년 1월1일~2009년 12월 31일

운영단체 : 남양주문화원

- 년도별 총 이용인원 -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95,938	92,336	79,091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은도서관 공사로 인하여 이용객수가 감소됨

< 세부이용인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정규교육프로그램	5,389	6,062	3,343
상설운영프로그램	2,500	2,760	1,200
기획프로그램	110	200	168
전시,공연	2,800	3,000	1,200
특강및외부체험	200	180	120
지원프로그램	486	510	141
행사참여 및 자료이용	20,560	20,545	14,126
동아리활동	60	70	-
외부활동프로그램	120	100	70
외부기관연계프로그램	-	180	120
도서및영상	43,887	32,916	49,302
기타행사참여및내방객	19,826	25,813	9,231
계	95,938	92,336	79,091

◆ 교육 프로그램

■ 정규교육 프로그램 현황

▷ 개설프로그램 수 및 참여인원

(2009년 9월 현재까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강좌수(개)	52	55	50
참여인원(명)	5,389	6,062	3,343

▷ 각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계
유화반	30	36	33	42	141	33	/	35	45	113	41	37	11	89
수채화반	27	24	24	27	102	35	48	29	23	135	27	12	6	45
유화기초	15	18	/	/	33	/	/	/	/	/	/	/	/	/
서예중급	21	21	39	33	114	42	39	30	36	147	30	25	16	71
서예기초	45	32	27	28	132	14	15	15	17	61	21	24	/	45
단견호흡	72	62	50	45	229	45	48	52	40	185	50	49	16	115
크낙새풍물패	18	/	/	/	18	/	/	/	/	/	/	/	/	/
사물놀이기초	30	21	21	13	85	15	/	/	/	15	/	/	/	/
종이공예	30	21	17	28	96	33	39	21	23	116	17	24	10	51
퀼트	22	24	28	28	102	25	25	32	24	106	40	42	11	93
생활도예	38	29	33	21	121	36	25	/	31	92	46	38	12	96
경기민요	27	30	24	40	121	45	33	33	33	144	35	29	7	71
고전무용	30	30	37	39	136	33	36	21	32	122	40	35	10	85
스포츠댄스	42	32	23	27	124	26	29	27	24	106	27	28	8	63
이주여성을위한 인터넷	/	12	12	/	24	/	/	/	/	/	/	/	/	/
성인단소반	9	21	12	3	45	6	3	3	/	12	/	/	/	/
오카리나	12	13	9	12	46	7	18	24	21	70	10	14	5	29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계
오카리나중급											21	15	6	42
플룻	12	12	19	12	55	11	13	21	21	66	19	24	3	46
플룻앙상블									12	12	21	24	5	50
바이올린A	21	12	21	17	71	18	15	6	21	60	15	13		28
바이올린B	21	21	19	21	82	18	21	21		60				
클라리넷	9	3	12	9	33	17	27	18	15	77	15	11	5	31
드럼A								21	27	48	24	24	7	55
드럼B								30	24	54	24	24	8	56
드럼C									21	21	24	24	6	54
뮤직가튼A		25	36	24	85	15	35	35	34	119	36	36	7	79
뮤직가튼B	25	30	24	25	104	12	36	34	22	104	37	36	9	82
뮤직가튼C			12	10	22	31	34	31	9	105		33	9	42
프뢰벨은물A	26	33		18	77	21	26	28	11	86	28	20	10	58
프뢰벨은물B	30	33	18	17	98	10	3	9	3	25		27	5	32
프뢰벨은물C		18	28	22	68	18	29	30	29	106	17	18	7	42
프뢰벨은물D			15	30	45	33	42	39	43	157	40	40	13	93
레고A	33	33	33	18	117	21	30	28	18	97	10	2	2	14
레고B	66	63	63	66	258	56	65	66	66	253	55	42	14	111
레고C	65	51	45	42	203	56	30	28	9	123	20	6	3	29
유아미술	59	56	60	54	229	57	57	58	60	232	60	60	20	140
초등미술	58	60	60	54	232	60	60	59	60	239	63	59	29	151
발레A	54	53	43	54	204	50	49	50	57	206	54	51	18	123
발레B	54	50	45	54	203	54	54	54	48	210	50	54	17	121
발레C	21	18	15		54	19	24	29	24	96	21	21	8	50
하모니카	21	12	15		48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계
어린이한국무용A	20	11	15	12	58									
어린이한국무용B	18				18									
신문통합논술A	43	29	18	27	117	36	32	36		104				
신문통합논술B	30	24	36	30	120	39	15	12		66				
독서지도글쓰기A	65	66	51	30	212	47	32			79				
독서지도글쓰기B	20	9	12	21	62	24	9			33				
과학교실A	41	33	21	19	114	21	30	34	36	121	10	18	5	33
과학교실B	60	57	39	18	174	26	33	27	36	122	59	31	6	96
과학교실C							24	30	33	87	26	21	5	52
초등단소	30	27	27	36	120	48	48	54	51	201	45	24	4	73
상상력놀이수업						42	58	58	45	203	60	35	8	103
리더쉽연극놀이	30	27	60	30	147	38	56	40	26	160	57	30	13	100
어린이종이공예A		33	43	39	115	22	30	42	15	109	13			13
어린이종이공예B		27	33	21	81	59	49	20	11	139	28			28
어린이장구			9	10	19	16				16				
체스교실(초급)				42	42	32	30	22	12	96	21	24	8	53
체스교실(중급)							9	18	27	54	30	30	10	70
어린이댄스스포츠				33	33	43	22	30		95				
동화랑스피치랑A						59	46	57	59	221	55	60	20	135
동화랑스피치랑B							60	56	54	170	51	60	18	129
서각									22	22	13			13
생활다도											12	15	5	32
불교미술											10			10
방송댄스A													17	17
방송댄스B													4	4

◆ 교육 프로그램

■ 정규교육 프로그램 현황

▷ 개설프로그램 수 및 참여인원

(2009년 9월 현재까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강좌수(개)	52	55	50
참여인원(명)	5,389	6,062	3,343

▷ 각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봄	여름	가을	계
유화반	30	36	33	42	141	33		35	45	113	41	37	11	89
수채화반	27	24	24	27	102	35	48	29	23	135	27	12	6	45
유화기초	15	18			33									
서예중급	21	21	39	33	114	42	39	30	36	147	30	25	16	71
서예기초	45	32	27	28	132	14	15	15	17	61	21	24		45
단전호흡	72	62	50	45	229	45	48	52	40	185	50	49	16	115
크낙새풍물패	18				18									
사물놀이기초	30	21	21	13	85	15				15				
종이공예	30	21	17	28	96	33	39	21	23	116	17	24	10	51
유희트	22	24	28	28	102	25	25	32	24	106	40	42	11	93
생활도예	38	29	33	21	121	36	25		31	92	46	38	12	96
경기민요	27	30	24	40	121	45	33	33	33	144	35	29	7	71
고전무용	30	30	37	39	136	33	36	21	32	122	40	35	10	85
스포츠댄스	42	32	23	27	124	26	29	27	24	106	27	28	8	63
이주여성을위한 인터넷		12	12		24									
성인단소반	9	21	12	3	45	6	3	3		12				
오카리나	12	13	9	12	46	7	18	24	21	70	10	14	5	29

프로그램	2008년 (제2기 전통의문을열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서각	6	7	6	7	13	12	11	11	73
우리꽃그리기	4	7	6	6	7	4	5	2	41
한지공예	15	15	15	15	15	15	15	15	120
민화		8	9	3	4	5	6	4	40
전통색채학		7	5	3	3	5	4	5	32
불교미술						5			5
특강'오늘필요한어제'	80								80

프로그램	2009년 (제3기 전통의 빛깔을 탐하다)				
	6월	7월	8월	9월	합계
서각	-	-	-	5	5
한지공예	12	12	12	12	48
우리옷만들기	10	10	10	10	40
사찰미술	8	5	6	10	29
규방공예	-	-	-	9	9

▷ 진행사진



◆ 기획프로그램

▷ 생태학교 “꿈꾸는 민들레”

운영기간		대상	장소	참여인원
1기	2007. 4~2008. 1(10회)	초등3년~6년	왕숙천 및 진접지역	11명
2기	2008. 4~2009. 1(10회)	“	“	12명
3기	2009. 3~2009. 5(4회)	초등4년~6년	“	13명
4기	2009. 6~2009. 8(4회)	“	“	5명
5기	2009. 9~2009.11(4회)	“	“	6명

▷ 난타반 “어화둥둥”

운영기간		대상	장소	참여인원
1기	2008.3~현재	성인	문화의집	8명
2기	2009.7~현재	“	“	10명

▷ 진행사진

<생태학교>



<난타반>



◆ 전시·공연 프로그램

▷ 어린이날기념행사

-운영기간 : 매년 5월 5일 전후

-내용

- 공연 : '돌보, 도깨비 만나다'(전통연희극) 딱 하나주면 안잡아먹지(인형극)
- 체험행사 : 악세사리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종이탈그리기, 티셔츠그리기,
케이백스체험, 엄마와함께하는 조형놀이, 꼬마오키리나배우기등
- 참가인원 : 1,200여명(체험참가인원 포함)

▷ **개관기념축제** - '우리는 꿈꾼다 문화가 스며든 일상을....'

-운영기간 : 매년 9월 8일(개관기념일) 전후

-내 용 : 회원전시, 워크샵, 특강, 회원발표회, 축하공연등

-참가인원 : 1,000여명(전시관람객 포함)

▷ **송년행사**

-운영기간 : 매년 12월중

-내 용 : 마술보고 마술배우기/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겨울

* 입장료로 받아 모은 라면은 북부희망케어에 전달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송년행사로 마무리함

-참가인원 : 300여명

▷ **초청사진전** -송기홍 사진전 '티베트, 그들이 꿈꾸는 세상'

-일 시 : 2008년 5월 20일 ~ 5월 31일

-장 소 : 3층 문화관람실

-관람인원 : 100명

▷ **연극 '서른엄마' 공연**

-일 시 : 5월 14일 오후4시

-내 용 : 어색한 '서른'과 모호한 '엄마'가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이야기.

-관람인원 : 100명

▷ **가정의달기념 '남양주양상블' 공연**

-일 시 : 2009년 5월 9일(토)

-내 용 : 가정의 달을 맞은 지역주민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공연 제공

-관람인원 : 100명

▷ **진행사진**



외부체험프로그램

▷ **와글와글 미술관 견학**

-일 시 : 2007년 2월 23일(금)

-장 소 : 63빌딩 특설전시관

-대 상 : 초등학생 40명

▷ 남양주 박물관.미술관 5+ 찾아가기

-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 장 소 : 서호미술관, 모란미술관, 왓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 참여인원 : 40명

▷ '체험속으로 GO! GO!'

- 생태 Tour : 2009년 7월 22일(수)/ 구리자원회수시설, 주필거미박물관, 남양주환경사업소
- 과학 Tour : 2009년 8월 12일(수)/ 국립 과천 과학관
- 별자리 Tour : 2009년 8월 14일(금)/ 송암 천문대
- 참 여 인 원 : 각40명

▷ 진행사진



◆ 특강프로그램

▷ 좋은엄마연습

- 일 시 : 2007년 3월 30일(금)
- 대 상 : 예비엄마를 포함한 모든엄마 25명

▷ 컴퓨터가 없으면 뭐하고 놀까?

- 일 시 : 2007년 9월 5일
- 대 상 : 학부모 20명

▷ 엄마가 배워 아이와 함께 즐기는 놀이 배우기

- 일 시 : 2007년 9월 6일
- 대 상 : 학부모 20명

▷ 우리집 재테크

- 일 시 : 2007년 9월 7일
- 대 상 : 성인 30명

▷ 진행사진



◆ 상설운영 프로그램

▷ 목련뜰무대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장소	참여인원
2007년1월~현재	매월마지막주 토요일 (4월~10월)	지역주민	주차장	각300~400여명

-공연내용

: “오케스트라와 떠나는 문화의집 가을여행”

“퓨전, 국악과 비보이”

“돛자리 매직쇼”

“코리아 주니어빅밴드의 재즈 콘서트”

멕시코민속음악“마리아치”

남양주시공무원밴드“NRB”

“몽골민속공연” 외

▷ 일요영화상영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장소	참여인원
2007.1.1~현재	매주 일요일 14:00~	지역주민	문화관합실	각50~80여명

▷ 체험마당제

-일 시 : 매년10월중

-내 용 : 벽화그리기, 타일그리기, 광주비엔날레 관람등

▷ 진행사진



◆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 유수회(유화,수채화반)

: 2007년~현재 매년 가을 정기전 개최

현재, 11월 2009년 8회 전시준비중

제2,3회 광릉숲문화축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

▷ 한지나래(한지공예)

: 2007년 6월 자체 전시
제2,3회 광릉숯문화축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

▷ 진행사진



◆ 외부활동 프로그램

▷ 관내 : 제2,3회광릉숯문화축제, 지역군부대공연, 남양주시자원봉사축제,
장현초등학교(평생교육 네트워크), 퇴계원마을축제 등 다수참여

▷ 전국문화의집축제 : 한지공예전시, 풍물,고전무용 공연 2007년 9월

▷ 진행사진



◆ 작은도서관(꿈꾸는 도서관) 운영

▷ 독후감쓰기, 동화구연 공연등 지원행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의 적극모색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장소	비고
2008년4월1일~	상시운영	지역주민	1층도서관	

▷ 진행사진



◆ 외부기관 연계프로그램

▷ 남양주보건소와 현대병원이 함께하는 금요건강강좌 운영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장소	참여인원
2008년3월~	매주 금 오후 2:00~4:00	지역주민	문화관람실	각20여명

▷ 진행사진



◆ 총 평

- 다양한 연령계층(10개월 영아~80세노인)이 이용하는 문화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됨으로 남양주시 평생교육의 온전한 장으로의 인식 고취
- 경기문화재단의 기반시설지원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사업 지원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 작은도서관(꿈꾸는 도서관) 운영으로 시립도서관이 없는 진접지역 주민들의 독서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
-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의 개발 활동으로 문화의 친근성과 책임성 등을 인식
- 지속적 문화활동의 결과로 지역축제 및 다양한 외부행사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
- 다양한 외부체험활동을 통하여 협소하고 제한적인 공간의 문제점 해결을 모색
- 개인 여가활동의 수준을 지역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초석 마련
- 외부 의료기관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의 운영은 문화의집의 새로운 기능을 인식시킴
-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역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이미지 확립

여 백



天 摩 山 의 脉



[특집]

❖ 남양주의 인물 (자료: 남양주문화원 향토사연구회)

- 다대첨사 윤홍신 장군
- 구완 이춘원 선생

한국의 전통건축

❖ 명가의 미 (자료: 이학박사 현영조)

- 다산초당 / 정약용

[특집1] 남양주의 인물

첨사윤공흥신순절비(僉使尹公興信殉節碑)

연 대 : 1841년(헌종7년)

높 이 : 194cm, 너비 62cm, 두께 26cm

출토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24번지

찬자/서자/각자 : 조진관(趙鎭寬) / 미상 / 미상

원 문 :



번역문

첨사 윤공 흥신 순절비

昔在龍蛇之變東萊首 其鋒■東萊鎭守之臣十數其殉節 者地主
宋象賢釜山鄭撥多大浦則尹公興信是爲東萊■
臣府人立忠烈祀宋鄭兩公公則 于家始倭陷釜山分兵圍多大公力
却之軍吏進曰賊必悉至莫如避公叱曰有死而已
日賊大集軍遂潰公獨終日射賊城陷死之其後八谷具公思孟爲吊 ■
錄紀其事甚備云公贊■任之子兄弟六■其三人者興
■乙巳之禍其赴鎭也有庶弟興悌從焉及賊逼公白刃亂下興悌抱公
同死握固終不釋遂同棺而 何其■且烈也後百有餘
年我先大夫守萊府繼泛東 知公事甚熟愍其闕■宋鄭之祠白于 朝
■之事竟施李侯海文 上客也及 此鎭先大夫記
分蹟與之既揭壁又將豎碑■海文去官其後守鎭者皆俗吏不■語此
事不 嘗訪李侯之石而鎭人無知者懼斯役之不成作
此文 去慕義如李侯者云
輔國■祿大夫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
趙鎭寬撰
鍾應出守 山今相國雲石趙公贈之以言曰萊府有忠烈祠舊享宋鄭
兩臣其竝 尹公自吾先大父始先君子實紀其事措
貞珉之刻尙此闕焉子其爲我圖之及 是地感念遺蹟 伐石以豎噫
修墜典補 事蓋雲石所以克齊先志■忠表節亦守
臣責遂■與之成
崇禎紀元後四辛丑四月 日知府洪鍾應書

옛날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에 동래(東萊)가 가장 먼저 그 칼날을 받았으므로 동래를 둘러싼 진(鎭)의 수신(守臣) 십여 명이 순절(殉節)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동래 부사(東萊府使)였던 송상현(宋象賢)과 부산(釜山)의 정발(鄭撥)이었고, 다대포(多大浦)에는 윤공흥신(尹公興信)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동래 첨사(僉使)였다.

동래부(東萊府)의 사람들이 충렬사(忠烈祠)를 세워 송상현과 정발, 두 분을 배향(配享)하였으나 공(公)은 그 집안에만 정려(旌閭)하였다. 처음에 왜적(倭賊)이 부산을 함락하고서 군대를 나누어 다대포를 포위하였다. 그때 공이 힘써 왜적을 물리쳤는데, 군리(軍吏 군대에 딸린 문관)가 나와서 아뢰기를, "왜적이 반드시 다시 쳐들어 올 것이니 피하는 것보다 나은 계책(計策)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왜적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자 군병(軍兵)을 소집하였으나 마침내 대열(隊列)을 무너뜨리고 흩어져버렸다. 공은 홀로 종일토록 왜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성(城)이 함락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뒤에 팔곡(八谷) 구공사맹(具公思孟)이 '조망록(弔亡錄)'을 지어서 그때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때의 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공은 찬성(贊成)을 지낸 윤임(尹任)의 아들이다. 형제가 여섯인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을사년(인종 1, 1545년)에 화(禍)를 당했다. 공이 다대포진(多大浦鎭)에 달려갔을 때에 서제(庶弟)인 윤흥제(尹興悌)가 함께 따라갔는데 왜적이 공을 위협하여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르자 윤흥제가 공을 끌어안고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끌어안은 것이 어찌나 견고하던지 끝내 풀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함께 관(棺)에 넣어서 하관(下棺)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기이하고 장렬(壯烈)한가.



남양주 월산리 소재 재실암 신도비(정면)

백여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선대부(先大夫)께서 동래 부사가 되어 계속해서 일본(日本)에 통신사(通信使)로 가게 되었는데, 그는 공의 일을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며 공이 송상현과 정발의 사당에서 빠져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었다. 그래서 조정(朝廷)에 아뢰니 오래 지난 일이 마침내 시행되게 되었다. 그때 이후 해문(李侯海文)이 통신사의 상객(上客)이었는데, 이 다대포진의 첨사(僉使)로 부임하게 되자 선대부께서 공의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그에게 주었다. 이해문이 그것을 벽에 게시하고 또 비석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해문이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뒤에 다대포진에 부임한 자들은 모두가 견식(見識)이 없고 속된 관리였으므로 이 일을 말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재주 없는 내가 일찍이 이후(李侯)의 비석을 방문했다가 무지한 다대포진의 사람들이 이 역사(役事)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 비문(碑文)을 지어서 충의를 사모하는 것이 이후 같은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판돈녕부사 겸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조진관(趙鎭寬)은 비문을 짓다.



남양주 월산리 소재
재실앞 신도비(측면)

내가 장산(山)의 수령(守令)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지금의 상국(相國)인 운석(雲石) 조공(趙公)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동래부에는 충렬사가 있다. 옛날에는 송상현과 정발, 두 신하만을 배향하다가 윤공(尹公)을 아울러 배향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대부(先大夫)로부터 시작하여 선군자(先君子)께서 그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석이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빠져있는 것이 애석하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였다. 이 땅에 부임하게 되어 남은 자취를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속히 돌을 깎아서 비석을 세웠다.

아! 쇠퇴해진 의식(儀式)을 고치고 기록에서 빠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바로 잡은 것은 대체로 윤석이 선대(先代)의 뜻을 이룬 것이요, 충절(忠節)을 드러내어 표창(表彰)하는 것 또한 수신(守臣)의 책무(責務)인 것이니, 마침내 기쁘게 그와 함께 이 일을 완성하였다.

송정기원후 네 번째 신축년(헌종 7, 1841년) 4월 일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홍종응(洪鍾應)은 글을 쓰다.

2. 다대포첨사윤공전망사적서(多大浦僉使尹公戰亡事蹟敘)

일찍이 <징비록懲毖錄>을 보니 '다대포첨사 윤흥신尹興信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쓰여 있고, 또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에는 '왜적이 병력을 나누어 서쪽으로 다대포를 함락시켰는데 그 때 다대포첨사 윤흥신이 힘껏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었다.

<징비록>은 바로 선조 때 정승인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책이고, <재조변방지>는 바로 동양위東陽尉의 맏아들 신경申兗(象村 申欽의 손자)이 지은 책이다. 이는 모두 왜란 당시의 문헌으로 반드시 증거가 있어서 쓴 것일 것이므로 가히 믿을 만하였다.

임진왜란이 난 지 166년이 지난 정축년(1757년, 영조 33년)에 내가 동래부사로 임명되어 관아에 부임하던 다음날 '충렬사忠烈祠'를 배알하였는데 그 충렬사는 곧 임란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宋象賢공과 부산 첨사釜山僉使였던 정발鄭撥공의 신위를 모신 곳이었다. 윤흥신공도 임란 당시 앞서 말한 두 분과 같은 곳에 있었고 또 함께 훌륭한 일을 하다가 순국殉國하였으니 그 공적을 숭배하고 갚기 위하여 사당에 제향하는 은전恩典을 똑같이 베풀어 마땅하다. 그런데 두 분은 한 사당에서 나란히 제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당시 함께 순국하였던 관아의 아전이나 노예奴隸들까지도 제사를 지내어주는데 윤흥신공만이 홀로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읍지邑誌'를 상고해 보고 또 다대포를 비롯하여 여러 포진浦鎭을



남양주 월산리 소재
재실앞 신도비(후면)

찾아 탐문해 보았으나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전하여 오는 이야기도 막연하였고 그의 후예後裔들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실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분의 의리와 충렬이 드러나지 못하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라질 것임을 안타까워하였다.

신사년(4년 뒤임) 봄에 내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도내道內에서 '효열절의孝烈節義'가 두드러진 사람을 낱낱이 추천 받아서 칭찬할 만한 사람을 골라 포상褒賞하여 주자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장계로 청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흥신공의 일이다. 그리하여 예부[禮曹]로부터 증직贈職을 해주자는 제목題目을 덧붙여 정부[議政府]에 보고되고 정부에서는 임금님에게 재심해 달라는 주청[覆奏]을 올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그래도 나의 마음에 미흡한 것은 그의 사적이 자세히 갖추어진 것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근일에 우연히 팔곡 구사맹八谷具思孟이 쓴 〈조망록吊亡錄〉을 읽다가 그 책의 '사절조死節條'에 다대포 첨사 윤흥신에 대하여 특별히 갈라서 써놓고 그 해설에 이르기를 '왜적이 성을 둘러쌌는데 힘껏 싸워 물리쳤다'라고 하고 그 아래 또 쓰여 있기를 '내일 만일 많은 적병이 와서 공격하면 견디기 어려울 터이니 성을 버리고 나가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누군가 말하니 흥신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도망가겠는가?'라고 하였는데 과연 많은 적이 몰려오자 군졸들은 모두 도망가고 윤공만 홀로 종일 적을 향하여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詩를 지어 애도하였는데

'奔亡列邑已全空 : 여러 고을들은 모두 도망가서 텅텅 비었는데
分死危言獨效忠 : 죽는 것이 분수라는 말로 혼자 충절을 다했네.
麾下若教終未散 : 휘하의 군졸들로 흩어지지만 못하도록 했다면
孤城猶足策奇功 : 외로운 성이라도 큰 공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을.'

이라고 하여, 이 글에서 윤공의 공적이 훌륭하다는 사실이 〈징비록〉이나 〈재조변방록〉보다 더욱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리하여 공이 남긴 충렬은 여기에서 더욱 빛나고 두드러져서 앞으로 천년만년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데도 충렬사의 제사에 함께 배

항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의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하겠는가? 그런데 절개와 의리가 드러난다든가 묻혀버리는 일도 각각 때가 있어 그런가?

내가 계미년(1763년, 영조 39년)에 왕명을 받들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그 때 임진년의 변고[龍蛇之變]를 도리켜 생각하니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갑절도 더 되었다. 그리고 충렬忠烈을 다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그분들의 업적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였다. 그 때 나는 함께 갔던 막료幕僚들과 이러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한탄하기도 하였다. 막료 중에 수령守令을 역임한 이해문李海文은 무사[壯士]이면서도 시詩를 잘하였다.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하고 원통함을 나타내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다대포 첨사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윤흥신공의 의열義烈이 사라져 없어질 것을 애석히 여겨 사수四首의 율시律詩를 지어 가지고, 편지에 동봉하여 내게 보고하고 나의 글[序文]을 얻어서 관아의 벽에 걸어두겠다고 하였다. 그의 뜻은 실로 변방의 선비들을 고무[聳動]시키고 윤공을 드러내어 빛나게 하는데 있었다. 이는 과거 십년 동안 내가 가진 본래의 뜻이기도 했다. 비록 아직도 조정으로부터 나의 장청狀請이 허락을 받지 못하여 송정宋鄭 두분과 함께 충렬사에 배향하도록 하지는 못하였지마는 지금 본진本鎭인 다대포의 벽에 찬양하는 시를 걸어 놓겠다고 하는 제안을 내가 문장이 미숙하다고 하여 사양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전후의 사실을 대강 주어 맞추어 앞에 쓴 것과 같이 기록한다.

송정기원후 백삼십팔년(1766년, 영조 42년) 원임행부제학 조엄 찬
崇禎紀元後 百三十八年 原任行副提學 趙 撰

3. 선조 14권, 13년(1580 경진 / 명 만력(萬曆) 8년) 10월 21일(정사)

헌부가 진천 헌감 윤흥신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진천 헌감(鎭川縣監) 윤흥신(尹興信)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4. 선조 16권, 15년(1582 임오 / 명 만력(萬曆) 10년) 8월 3일(무자)

헌부가 사대부가 대경의 예를 모른다고 문안을 조사하여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염치가 땅에 떨어져서 사대부가 대경(代耕)¹⁾ 하는 의를 모르니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전교에 따라 각 도의 문안(文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이미 죽은 자와 심전(沈銓)·신수경(申秀經) 등 이미 파직되어 산관이 된 사람과, 혹은 이름과 품계가 낮고 미천한 자 이외에도 하원군(河原君)·하릉군(河陵君)·한경록(韓景祿)·송인(宋寅)·박호원(朴好元)·최황(崔滉)·정창서(鄭昌瑞)·이증(李增)·고경허(高景虛)·권벽(權擘)·남언경(南彦經)·성수익(成壽益)·김해·황정식(黃庭式)·윤흥신(尹興信)·이성헌(李成憲) 등은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추고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5. 선조 26권, 25년(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4월 14일(계묘)

경상 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

경상 좌수사 박홍(朴泓)은 바로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주(慶州)의 왜적이 군대를 나누어 서생포(西生浦)와 다대포(多大浦)를 함락시켰는데, 다대포 첨사 윤흥신(尹興信)이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으니 바닷가의 군현(郡縣)과 진보(鎭堡)들은 모두 소문을 듣고 도망하여 흩어졌다.

6. 영조 118권, 48년(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1월 14일(경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서흥을 도호부로 승격할 것 등을 의논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구선복(具善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장신(將臣)이지만, 만약 마땅히 신칙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찌 신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아들이 가서 탐지
한 일이 있었는데, 감히 말하기를, '집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중신 신회(申晦)는 거듭 견파(譴罷)당했으니, 그 국체(國體)에 있어서 그대로 내
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파직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서흥(瑞興)은 본래 도호부(都護府)였는데, 조대립(趙大立)의 사건(18212) 이 있
은 후 특별히 1백 년 동안 현(縣)으로 강등했었습니다. 이제 1백 년의 한정이
이미 지났으니, 도로 도호부로 승격시킴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비국 당상 조엄(趙)이 말하기를,

"임진년(18213) 에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였던 윤흥신(尹興信)이 절개를 지켜
죽은 사적(事蹟)이 《징비록(懲毖錄)》聖뎨篇妍 蕃邦誌)》聖뎨뎨 弔亡)》 등의 책
자에 실려 있는데,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정려(旌閭)하고 병조 참판으로 추증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 충렬사(忠烈祠)가 있는데, 곧 임진년에
본부의 부사였던 송상헌(宋象賢)을 철향(享)한 곳으로 그 당시 순절(殉節)한
사람들도 또한 모두 따라서 향사(享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흥신은 경
내(境內)의 관장으로서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인데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마침 임진년이 거듭 돌아온
때를 당하여 만약 충렬사에 아울러
향사하도록 명하시면 진실로 풍성(風
聲)을 수립하는 도리가 될 것이니, 대
신(大臣)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아울러 향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7. 八谷雜稿

死節

多大浦僉使尹興信倭賊圍城，力戰却之。其下曰，明若舉陣來攻，勢必難支，莫如出避。興信曰，有死而已，何忍去也。賊栗大至，軍卒盡逃，獨終日射賊，城陷而死。

奔亡列郡已全空，分死危言獨效忠。
麾下若教終未散，孤城猶足策奇功。

8. 青城集

卷之一 昌山成大中士執著 詩

送多大浦李僉使 海文

蒙衝閒繫石城陽，僉使營高碧海長。教罷佳人雙劍舞，西風一嘯踞胡床。

其二

今人不識尹將軍，戰地蒼茫但水雲。大石要張忠勇氣，教君城角一揮斤。尹興信以多大僉使，死於壬辰亂。興信父任興信兄弟五人，三死乙巳之禍，二則以稚免。又盡死於兵亂，慘矣。鎮無彰烈之碑，識者傷之。

9. [부산] 임진왜란 417주년 '충렬사 제향'

YTN 입력시각 : 2009-05-25 17:12

'임진왜란 제417주년'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부산지방을 지키다 순절한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한 '충렬사제향'이 충렬사내 본전과 의열각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제향에는 그동안 충렬사 직원들이 맡아오던 제관을 관계, 유림, 후손 종친회 등으로 구성된 제향봉행위원회에서 맡아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동래부사였던 충렬공 송상현공, 부산진첨사 충장공 정발 장군과 다대첨사 윤흥신공 등 93위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10. 제417주기 다대성키배 향사 열려8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윤공단에서 개최...해군 등 400여명 참가

데일리안 이주형 기자 (2009.05.07 16:01:57)

부산 사하구(구청장 조정화)는 조선시대 선조 25년(서기 1592년)임진왜란 당시 다대포 첨사로 용전하다 순절한 윤흥신공의 충절을 추모하는 제417주기 향사를 8일 오전 다대 윤공단에서 개최한다.

집례관인 다대문화연구회 한건 회장이 개제선언을 하고 다대초등학교장 비문낭독, 집례관 鎧鎧藥藥 독축 및 헌관분향, 해군작전사령관 헌화 및 묵념, 분향, 장미합창단의 추모가에 이어 폐제된다.

윤흥신공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다대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순절했는데 일부 향토사학자들 사이에서 이 전투가 임진왜란 첫 승리로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옥포해전 보다 앞선다는 주장도 있다.

윤공단은 1765년 다대첨사 이해문이 설치한 제단으로 지난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됐으며 사하구는 윤흥신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월 음력 4월14일 향사를 지내고 있다. [데일리안부산 = 이주형 기자]

11. "임진왜란 첫 전승지는 다대포"

다대문화연구회 한건 회장 주장

부산 동구 초량동에 세워져 있는 윤흥신 장군 동상. 그가 임진왜란 때 첫 승전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첫 승전지가 1952년 5월 7일(이하 음력) 이순신 장군이 거둔 옥포해전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4월 13일 다대 첨사 윤흥신 장군이 이끈 다대성 전투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와 다대문화연구회는 28일 오후 3시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관계자, 교수, 향토사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임란 초기의 다대성 싸움과 윤흥신 첨사'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자료조사:김근태 박사

정리: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윤덕규

구완 이춘원 선생(九원 李春元 先生)의 인물과 역사성

一. 인물개관(人物概觀)

1. 구완선생 이춘원은 조선조 중기의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연간을 덕행(德行)과 절의(節義)를 신조로 살다 간 간세(間世)의 위인(偉人)이다. 안으로는 당쟁으로 인한 반목이 심화되고 밖으로는 왜구의 침입(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광해군의 실정(失政),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둘러싼 간신배들의 횡포, 인조반정(仁祖反正) 및 이에 기인한 이괄(李适)의 반란, 정묘호란(丁卯胡亂-1627)등 우리나라 일찍이 없었던 혼란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수습함에 막중한 책무(責務)를 담당해야 하는 소명(召命)을 받은 선생은 민족적 화합을 결집(結集)하고 국운을 만회하는데 지대(至大)한 노고(勞苦)를 기여했던 것이다.



2. 선생은 용모가 관옥(冠玉)같고 별빛 같은 눈매에 풍신(風身) 또한 흰칠하고 식견(識見)과 도량(度量)이 맑고 넓을 뿐 아니라 품성(性)이 인자충후(仁慈忠厚)하고 온아화평(溫雅和平)하여 따르는 이가 많았으며 담대소심(膽大小心)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의연히 대처하는 폭넓은 아량이 있어 일찍이 조정의 공보(公輔)로 기대하는 이가 많았다 한다.

3. 재지(才智) 또한 비범하여 10세 전에 경사(經史)를 통독(通讀)하고 시부(詩賦)를 배움에 사의(詞義)가 탁월하여 당시의 종공거장(宗工鉅匠)들도 그 재능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문단(文壇)에서 그 성가(聲價)를 높이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청화(淸華)한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말은바 임무를 공정히 처리 함으로써 벼슬은 아경(亞卿)에 그쳤으나 청백리(淸白吏)로 칭송이 높았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후손들의 추모는 물론이러니와 많은 사람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다.

二. 출생(出生)과 성장(成長)

선생은 부친 이창(李暢)과 모친 능성구씨(綾城具氏) 사이에서 1574년(선조 4년) 7월 15일 한성 훈도방(薰陶坊) 지금의 중구 저동(苧洞)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신원(信元) 자(字)를 입지(立志)라 하였는데 44세 나던 1614년(광해군 6년)에 기피할 일이 있어 춘원(春元)으로 개명하고 자도 원길(元吉)로 고쳤다. 본관(本貫)은 함평(咸平)이며 구완은 그의 호이다.

三. 학문수학(學文修學)과 과거급제(科擧及第)

선생은 지재(知才) 또한 비범하여 학문을 권하고 훈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하여 6세에 눈사람을 보고 설물찬(雪勿贊)을 지어 칭찬을 받을 정도로 공부에 숙성(夙成)하였다.



이러한 재지(才知)와 총명을 안고 남다른 문필을 보이던 그무렵(10세때) 뜻 밖의 부친상을 당하여 실의와 비탄속에 잠겼으나 조모와 모친의 극진한 사랑으로 심기일전하여 학업에 열중하기로 작정하고 불정 홍지성(佛頂洪至誠)에게 나아가 배우게 되는데 동문학도로 선생을 따를만한 자가 없었다 한다. 16세 때에, 영의정을 14

년간 재직하다 율곡(栗谷)등을 옹호하다 탄핵을 받고 영평(永平) 백운산에 은거한 사암 박순(思庵 朴淳)을 찾아 그간의 학문을 질정 받았다. 사암 역시 선생의 재능을 크게 인정하여 심오한 뜻을 전수함으로써 문의(文義)는 더욱 진취하였다. 그로부터 향해(鄉解) 즉, 향시나 초시(初試)에 응시하면 언제나 최고로 선발되었고 사람들은 그 시구(詩句)를 다투어 전송(傳誦)함으로써 명성이 회자(膾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험난(險難)했던 관로(官路)를 지내고 1619년(광해군 11년, 49세) 동지돈녕부사

(同知敦寧府事)로 서용되고 다음해(광해군 12년, 50세)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온다. 1621년(광해군 13년, 51세) 명나라에서 오는 초사(詔使)를 평안도 안주 백상루(安州 百祥樓)에서 영위(迎慰)하다가 풍증(風症)을 얻어 좌체(左體)가 편폐(偏廢)되는 불행을 만나 이로부터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시주(詩酒)로 자오(自娛)하며 여생을 보낸다.

1623년(광해군 15년, 53세)에 인조반정으로 절의(節義)를 지킨 구신(舊臣)들을 발탁함에 선생의 대절(大節)을 높이 평가하여 현반(賢班)에 올려 출사를 간절히 권했으나 선생은 병자의 출사가 구차스럽다 하여 끝내 이를 거절하고 치유를 위해 금주(禁酒)를 권하는 친지들에게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 즐길 수 있음으로써 인데 이제 이 벼들과 뜻을 펴는 것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자 하겠는가” 라고 하며 항상 술을 마시고 즐기는 호방한 풍류생활(風流生活)을 즐겼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신병치료에 편리한 지방 수령(守令)을 제수하여 예우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남자로서 구차한 삶을 영위할 바에야 만식안보(晩食安步)하느니만 못하다고 사절했다.

이와 같이 달리안명(達理安命)의 심정으로 음주와 시부(詩賦)를 즐기며 산 의연한 자세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지 선생은 64세까지 수(壽)를 누리고 1634(인조 12년) 갑술 7월 26일에 경제(京第)에서 장서(長逝)하여 광주 서부 감천리(廣州 西部 甘泉里) 선영에 장사 지냈다.

근래에 광주가 개발되면서 1972년 4월 5일에 선생의 산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백월(南楊州市 和道邑 琴南里 白月)로 이장하였다.

四. 시부(詩賦)의 세계(世界)

선생은 산수를 좋아하여 경치 그윽한 명승지 탐방에 피로를 몰랐고 반드시 시구(詩句)를 담았다 한다. 인품이 고결하고 사려 또한 남달라 정경(情景)을 묘사함에 가론적(假論的)인 구사가 없다. 대체로 선생은 중국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사부(辭賦)를 깊이 이해하고 소인(騷人)의 정취(情趣)를 실감하여 음운(音韻) 같은 여사(餘事)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고 하나 그 운율(韻律)의 격조는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오묘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영상(領相)을 지낸 백강 이경여(白江 李敬輿)는 구완집 서문에서 “물질에 의지함이 없이 천기(天機)가 자전함에는 기

(氣)의 주재(主宰)로 모든 것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신이 함께하여 궁상(宮商)의 소리가 화협(和協)을 이룬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선생의 시는 청원(淸遠)하여 속세의 때가 묻지 않았다” 고 하고 “옛사람들의 규범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멋대로 구사하다가도 결말에 있어서는 변화에 능통하여 신기(神氣)가 안정되고 여교(餘巧)가 있으며 환경과 재능이 모아져 의태(意態)에 여유가 있다” 하여 선생의 시를 극구 칭찬하고 있다.

동명 정두경(東溟 鄭斗卿)도 구완집 서문에서 “선생의 시는 충담아건(沖澹雅健)하여 다듬고 꾸마는 힘을 빌리지 않아도 기격(氣格)이 고상하고 율도(律度)가 정돈되어 그 뒤를 따를 만한 이가 없다” 라고 하였다.

구완집은 1656년(효종 7년) 7월에 목판(木板) 4권 2책으로 발간 되었는데 바 그 후 추각본(追刻本)이 발간 되었고 근래에는 등사본(謄寫本)이 전하여지고 있으며 최근에 표점영인(標點影印)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도 수록되었다. 추각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춘원선생 묘역 및 신도비(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백월리)

■ 이 묘역은 함평이씨 구완공파의 세 사람이 영면해 있는 곳이다. 가장 위쪽에는 이춘원(李春元, 1571(선조4)~1634(인조12))의 묘가 있고, 다음은 그의 넷째아들인 이초기(李楚奇, 1613(광해5)~1691(숙종17)), 그리고 손자인 이지두(李之斗, 1639(인조17)~1673(현종14))의 묘가 차례대로 조성되어 있다. 이춘원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에 활동한 문신이자 시인이다. 초명은 신원(信元)이며 자는 원길(元吉), 호는 구완(九完)이다. 21세 때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6세 때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모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파직되는 등 굳센 지조와 드높은 문장으로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함평이씨 묘역 입구에 있는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충청도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이공 신도비'(有明朝鮮國 嘉善大夫 忠淸道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李公 神道碑)는 높이 약 270센티미터로 받침돌과 비석, 그리고 이수로 이루어져 있다. 받침돌은 사각의 기단석 위에 파도무늬와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는데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비석은 흰색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비문은 이조판서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사위인 공조정랑 윤순거(尹舜舉)가 쓴 것이다. 이 신도비는 1636년(인조14)에 건립된 것이다.

■ 백월정(白月亭)에 대하여 : 이춘원선생 묘역 부근에 손자가 지은 정자가 있었다고 가문에 구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이 정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백월정이며 손자 중에서 이지성이 지은 것이라는 관련 자료를 발견했다. 해당 자료와 가문에 전하는 위치를 찾아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다산초당-정약용 茶山草堂-丁若鏞

자연과 전통
다산초당

自然 + 傳統
茶山草堂

Nature & Tradition
Dasanchodang(house)

자연과 전통

지역의 생태계는 지역전통을 낳는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특성이며, 지역특성은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전통건축문화는 식생활문화의 함축된 공간문화(空間文化)이다. 즉 식생활문화는 주생활문화와 연계되면서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한다. 예컨대 유목적(遊牧的)인 생활은 이동식 주생활문화 공간을 낳게하고, 농경문화는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고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면서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된다. 그것은 계절의 순환을 이해하게 하고 자연의 주기를 이용하여 먹이를 구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한다. 특히 자연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의 섭취와 그 배설이다. 우리와 같이 농경문화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정된 지역에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한다.

그 결과 먹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버려진 소재가 생활공간에서 재활용되면서 주생활공간과 도구의 주요한 자재가 된다.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식물류와 흙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자연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고, 자연에 돌려줄 수 있는 초(草)와 목(木)과 흙(土)으로 훌륭한 생태적 건축재료이다. 또한 식물류는 식생활문화에서 언어지는 자연의 일부로서 일차적 구조용 재료가 된다. 그 위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씌우게 된다.

그 지역의 건축문화의 특징은 지붕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지붕 만들기」에 고민하였다. 그래서 건축의 역사는 지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이 변하면 민족의 동질성(Identity)이 혼란을 가져온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변화된 지붕의 결과」가 빚은 것이다.

필자는 1994년 「'94 남한산성 자연미술제」를 주최하면서 설치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행사장에 위치한 슬레이트집을 구입하여 설치미술로 개조한 적이 있다. 모 방송매체에서 작품의 제목을 묻기에 「대통령 박정희와 건축가 현영조」라고 소개하였다. 멋도 모르는 취재기자는 웃는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묻는다. 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대통령 박정희는 초가를 가난의 상징으로 치부했다. 그는 「초가집도 없애고...」하면서 잘살아 보자고 외쳤다. 따라서 대통령 박정희는 초가지붕을 헐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고속도로 주변에는 슬레이트 위에 원색적인 페인팅으로 이상한 집과 마을이 만들어 졌다. 덕분에 얼 손실(?)로 국민들은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던 삼천리 금수강산은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다산초를 가는길
-경주시 남부면 대곡리에서 서면 「다산초」로 가는 길(2005년)

경제위주의 서양식 개발로 민족성(외면과 내면 모두)마저 급속도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다시 「죽 사발에 웃음 있고 밥 사발에 울음 있다」는 속담을 음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가를 가난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던 대통령 박정희의 작품인 슬레이트 지붕위에 다시 짚을 씌우고 사라져 가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싶었다. 다시 말하지만 뽕자는 민족의 철학을 무시한 경제위주의 서양식 개발이 싫었던 것이다. 뽕자의 최초의 설치미술인 「대통령 박정희와 건축가 현영조」라는 작품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 이것은 전통건축문화의 회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축문화인 초가는 우리의 소중한 생활, 철학적 전통문화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붕의 변화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전통문화까지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세계화에서 다시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붕의 형태미-초가(草家)의 멋

초가지붕의 주요소재는 짚이다. 지주라기라고도 하는 멧짚은 생태적인 자연재료이다. 농경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는 삶의 방법으로 짚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곡식을 생산한 후 또는 각종 초목이 어우러져 건축과 생활 도구를 만드는데 짚은 주요재료로 사용되었다. 짚은 곡식을 말리는 명석에서부터 각종용품을 만드는 짚 공예의 주요한 재료가 된다. 요즈음 언어로 「환경 친화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무와 흙과 짚은 훌륭한 건축 자재인 셈이다. 이것들은 무공해로 인류가 일정기간 사용하다 자연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가장 자연비보적인 건축소재인 것이다. 특히 초가를 짓는 과정에서 깨끗대로 생긴 돌덩이를 적당한 간격(human scale)으로 기초하고 그 위에 나무기둥을 새우고 토대와 중도리따위로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사용되는 나무는 잘 다듬거나 자연스러운 모양을 그대로 노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기초 위에 기둥, 보, 지까래를 모두 목재로 조립한 후 개관대신 싸리나 수수깡과 같은 것으로 적당히 덮고 흙으로 매운다. 그 다음 짚으로 만든 이엉을 만들어 엮고 용마루를 틀어 덮는다. 마지막으로 새끼줄을 동여 매어 짚이 바람에 건널 수 있게 고정한다. 그리고 낮이나 가위로



다산초집
-경주시 남부면 대곡리에서 서면 「다산초」로 가는 길(2005년)

다듬고 일꾼들은 지붕에서 내리와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지붕공사는 끝이 난다. 얹어진 듯 편안한 곡선의 초가지붕은 자연에 순응하는 곡선으로 보는 이를 편하게 한다. 이렇게 짚으로 덮어진 주생활 공간을 우리는 초가(草家)라고 한다. 또는 초당(草堂)이라고도 한다.

초가나 초당은 벽체나 기둥의 재료와 관계없이 빗길으로 덮어진 건축이다. 주로 살림집과 그 부속 건물들의 지붕의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지붕의 재료를 막조편 널을 사용하면 너와집, 기와를 사용하면 기와집 또 와당, 빗집을 사용하면 초당 또는 초가집..... 따위와 같이 지붕의 모양을 결정하는 주요소가 된다. 이렇게 완성된 초가에는 생활도구도 대부분 짚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것은 명석과 가마니 그리고 땃방석과 망태와 같은 생활공예품도 짚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명석은 곡식을 말리거나 관혼상제와 같은 잔치에



다산초당의 관벽

다산이 박봉과 교유를 하면서 지은(제책)인 문호서재였다는 문헌임을 알리고 있다.



문집(東坡)

다산 선생이 사적학업한 생활공간(대청안 복원)

사용되기도 한다.

가마니는 곡식을 저장보관 하거나 이동가능한 수납용품이면서 간이 명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땃방석은 작업할 때 깔고 앉는 편의용품이고, 망태는 산꾼망태, 연장망태, 풀망태와 같은 작은 물건을 담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다. 요즘을 유행하는 각종 크고 작은 손가방과 마



서당(西堂)

학자들이 지어(제책)한 생활공간(서당안 복원)

한가지이다. 짚으로 지붕을 만든 주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도 대부분 짚으로 만든 공예품이다. 우리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지혜와 더불어 세련된 우리만의 맛을 창출한 삶을 영위한 문화적 선진국(文化的先進國)이 있었다. 그 후 산업화는 경제위주의 서양식 개발 논리로 지역의 전통문화는 사라져 가고 있다. 다행히 지금 세계는 지역성(환경과 문화)을 강조 하면서 경제 선진국보다는 문화 선진국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적인 요소가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는 민족정기(民族精氣)가 담겨져 있는 문화공간미(文化空間美)의 제1 조건이다.

한국전통 건축미의 사례-다산초당(茶山草堂)의
초당은 중국 당나라의 낭만적인 시인 낙천 백거이(樂天白居易:772~846)의 여산 초당(廬山草堂)과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1762~1836)의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유명하다.



지초
은하 11월경 11월경 또는 연초(11월경)를 곁잡고 앉아서 글을 읽고 편지(11월경)를 쓰고서(11월경)를 쓴다(11월경)



지초
은하 11월경 또는 연초(11월경)를 곁잡고 앉아서 글을 읽고 편지(11월경)를 쓰고서(11월경)를 쓴다(11월경)



선정(11월경) - 11월경 또는 연초(11월경)를 곁잡고 앉아서 글을 읽고 편지(11월경)를 쓰고서(11월경)를 쓴다(11월경)

다산과 낙천은 시대적으로 약 천년에 공간이 있지만 각각 당대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당을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의 느낌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국경을 초월해 귀감이 되는 분들이다. 즉 학문과 문학 그리고 정치와 행정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서민을 생각하고 청렴결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가 보다는 시인으로 더 유명한 낙천의 대표적 서사시 장한가(長恨歌)와 비파행(琵琶行)에서 감상적이고 풍류적인 시로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였다. 한편 낙천은 여산에 초당을 짓고 여산 초당기(廬山草堂記)를 쓴다. 낙천은 초당기에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초당을 짓고 만족해 한다. 낙천은 세 칸의 초당으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두 개의 방에 네 개의 창을 만든다. 북으로 문을 내어 시원한 바람을 들어오게 하여 무더위를 막고, 남으로 서까래를 내고



초가(11월경) - 11월경 또는 연초(11월경)를 곁잡고 앉아서 글을 읽고 편지(11월경)를 쓰고서(11월경)를 쓴다(11월경)



초기의 전통건축이- 낙안읍성내의 초기

햇볕을 들게 하여 호한을 막았다. 나무를 깨고 다듬기만하고 붉은 칠을 하지 않았고 벽은 흙손질만 하였을 뿐 석회를 바르지 않았고, 종이로 창을 바르고 대발로 장막을 삼으니 초당의 건축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

혹시 다산이 이러한 낙천의 생활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왜냐하면 다산초당(茶山草堂)도 건축적인 분위기(지금은 와당)가 여산초당 못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중국여산과 강진다산의 자연환경만 제외한다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 강진에 위치한 다산초당은 산중턱에 위치하여 실재는 좋지만 전망이 앞에 있는 각죽수목으로 인하여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다산초당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초당(草堂)을 중심으로 좌측에 연지(蓮池)가 있고 그 앞을 지나 천일각(天-閣)으로 가는 능선에 동암(東臺)이 있고 초당우측에 서암(西臺)이 있어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여산초당과 큰 차이점이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경기도 평주(지금의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시절(1801~1818), 유배지 빛산에 차밭이 있었다. 이 무렵 선생은 다산(茶山)으로 호를 정하고 이곳에 초당을 짓는다. 정다산은 심정주변을 정원화하고 충도형방지(忠度형方池)를 만든다. 이것은 조선시대 첫정원이라고도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세운 초당주변에는 뒤뜰언덕 밑에 약천(藥泉)이 있고 초당앞에 다소가 놓여있다. 다시말하면 석가산(石鼓山)을 포함한 연지와 약천 그리고 차조와 정석(丁石)을 다산사경(茶山四景)이라고 한다. 특히 다산이 기거한 동암과 재자

들이 거처하였던 서암 그리고 유배된 큰형(약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랠 장소라는 곳에 천일각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학문하고 교육한 다산초당은 차를 마시고 풍류를 즐긴 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마루에 치발을 배산(배경)으로 한 초당은 약천에서 길어온 물로 차도구를 썼고 차를 우리는 모습이 선하게 느껴진다. 다산은 이곳에서 백성의 아픔을 생각하고 많은 저술을 했으며 다양한 인생경험을 정리한 장소이기도 하다. 중간에 낙천 백자이의 여산초당과 다산 정약용의 다산초당을 비교한 것은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이백과 두보를 본받는 동안 다산은 낙천의 생활철학과 사상을 본받지 않았나 추측해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위인이 초당을 짓고 만반나도 하면서 차향과 차맛과 함께 하고 많은 정신세계의 이상향(理想鄉)을 꿈꾸던 장소가 초가(草家) 또는 초당(草堂)이 주는 이미지(image)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초가는 자연생태계와 가장 잘 조화되면서 「인간의 환경문화공간(人間의環境文化空間)」창출에 더 없이 훌륭한 건축재료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다산초당에서 초기의 맛을 느낄 수 없어 초가의 참고적 사례로 민속촌과 낙임읍성 그리고 강진의 영랑 김유식의 생가를 사천만 소개한다.

필자가 다산 선생의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1969년 (부산공전 재직시) 건축가 엄덕문 선생의 부탁으로 조각가 윤영자 선생과 남산 부근에 위치한 조각가 이승택 선생택에

[illegible]



서 color rendering 작업을 하면서부터다. 그 당시 조각에 대한 color rendering은 이승택 선생이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1화, 2화)은 쾨퍼가 작업 도운 바 있다.

이 작품의 기록에 의하면 '철산신 약용은 임조 38년 1762 음력 6월 16일에 광주판 마재에서 남인학자 정재원의 대제 아들로 태어났다. 천성이 어질고 총명하여 7세때부터 글을 잘 짓고 15세 때부터 남인학자 이익의 학풍을 이어받아 실헐학을 연구하고 22세 때에는 소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글을 닦다가 그 때부 이승훈의 감화로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 28세



패배는 대외에 급제하여 급장각에서 많은 책을 편찬했다. 패마철이 일인 임금 절조가 수원성을 쌓을 때 다산은 서양의 기성기법을 써서 나뉘는 4만냥을 절약하게 하고 마마병을 예방하는 우두법을 시행하여 의술로도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정조가 1,800년으로 회세하고 철주교 대박제가 일어나다 다산도 천령도 강진으로 귀양과 18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1836년 2월 29일 75세로 별세했다.

나선은 위양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정치, 경제 등의 계획을 주
경한 복민심서, 경제유료를 비롯하여 508권의 책을 지어 남
으로써 신라의 최고봉이 되어 후세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조각: 윤영호, 글: 류홍렬, 글씨: 김충현, 전면글씨: 박영준,
서기 1979년 10월 20일 예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서울신문
사 세운 박영준 바치, 이라고 적혀있다.



대전초당 창생도

※ 한국의 전통건축 명가의 미
저자 이학박사 현영조,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발췌한

天摩山の脉

다산문화제 / 문·예대회 우수작품

발 행 일 2009. 12.

발 행 인 이 창 수

편 집 윤 덕 규

발 행 처 남양주문화원

(이 책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



남양주문화원